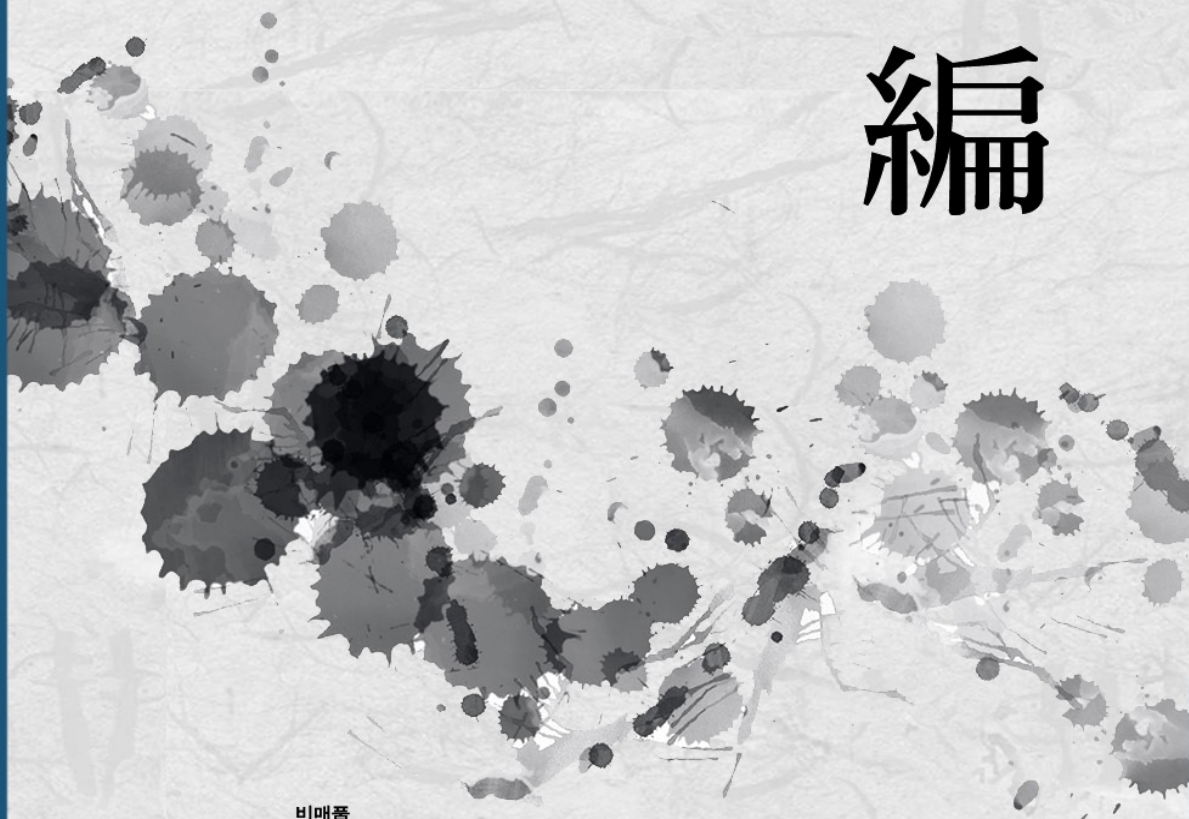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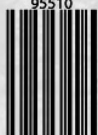


저자 송계  
역자 오준호  
해제 오준호

국역 藏珍要編



비매품  
95510



9 788959 703142  
ISBN 978-89-5970-314-2 (EPUB3)  
ISBN 978-89-5970-315-9 (PDF)  
ISBN 978-89-5970-316-6 (MOBI)



한국한의학연구원

---

# Table of Contents

## 원문·국역

장진요편 서문 藏珍要編序	1.1
장부총론 臟腑總論	1.2
장진요편 범례 藏珍要編凡例	1.3
장진요편 藏珍要編	1.4
장부중풍〔구급〕臟腑中風〔附救急〕	1.4.1
폭음 暴瘖	1.4.2
구안와사 口眼喎斜	1.4.3
수족탄탄 手足癱瘓	1.4.4
풍비증〔마목〕風痺症〔附麻木〕	1.4.5
역절풍〔절절통〕歷節風〔節節痛〕	1.4.6
파상풍 破傷風	1.4.7
상한태양증 傷寒太陽症	1.4.8
상한양명 傷寒陽明	1.4.9
상한소양 傷寒少陽	1.4.10
상한태음 傷寒太陰	1.4.11
상한소음 傷寒少陰	1.4.12
상한궤음 傷寒厥陰	1.4.13
상한리증 傷寒裏症	1.4.14

---

상한음독 傷寒陰毒	1.4.15
상한양독 傷寒陽毒	1.4.16
음극사양〔정성〕陰極似陽〔附鄭聲〕	1.4.17
양극사음〔섬어·발광〕陽極似陰〔附譚語發狂〕	1.4.18
상한번조 傷寒煩躁	1.4.19
설태 舌胎	1.4.20
상한대양〔전율·번갈·동계·동기〕傷寒戴陽〔附戰慄·煩渴·動悸·動氣〕	
상한결흉〔비기〕傷寒結胸〔附痞氣〕	1.4.22 1.4.21
상한에 회충을 토하는 경우 傷寒吐蛔	1.4.23
상한의 괴증(壞症)〔나은 후에 정신이 혼미한 경우〕壞症〔附瘥后昏沈〕	
백합〔노복·식복〕百合〔付勞腹·食腹〕	1.4.25 1.4.24
내상을 끼고 온 외감 外感挾內傷	1.4.26
임신부의 상한 孕婦傷寒	1.4.27
고랭 痼冷	1.4.28
중서 중갈〔구급〕中暑·中渴〔附救急〕	1.4.29
서증으로 인한 토사(吐瀉) 暑症吐瀉	1.4.30
중습〔장습〕中濕〔付瘴濕〕	1.4.31
골증 骨蒸	1.4.32
음허화동 陰虛火動	1.4.33
식상 食傷	1.4.34
담체〔도포〕痰滯〔附倒飽〕	1.4.35
숙체 宿滯	1.4.36
허로증 虛勞症	1.4.37

유정몽설 遺精夢泄	1.4.38
백음증 白淫症	1.4.39
상기·역기 氣·逆氣	1.4.40
경계·정충 驚悸怔忡症	1.4.41
건망증 健忘症	1.4.42
전간 癲癇	1.4.43
전광 癲狂	1.4.44
코피 衄血	1.4.45
구혈·토혈 嘔血吐血	1.4.46
해혈·수혈 咳血嗽血	1.4.47
변혈 便血	1.4.48
치늑·설늑 齒衄舌衄	1.4.49
혈한 血汗	1.4.50
구규출혈 九竅出血	1.4.51
허번불수 虛煩不眠	1.4.52
실음 失音	1.4.53
자한〔도한〕 自汗〔附盜汗〕	1.4.54
담음 痰飲	1.4.55
회궤토충 蛔厥吐蟲	1.4.56
임질〔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막힌 경우〕 淋疾〔不利不通〕	1.4.57
설사 泄瀉	1.4.58
이질 痢疾	1.4.59
대변비결〔жат은 대변〕 大便秘結〔附數便〕	1.4.60

두풍〔정두통·편두통〕頭風〔附頭正痛偏頭痛〕	1.4.61
현훈 眩暈	1.4.62
내장 內障	1.4.63
외장 外障	1.4.64
이명〔귀 가려움증〕耳鳴〔附耳痒〕	1.4.65
이롱 耳聾	1.4.66
정이·농이 聾耳膿耳	1.4.67
코막힘, 코의 통증〔비연·비구〕鼻塞鼻痛〔附鼻×鼻痛〕	1.4.68
비치·비창 鼻痔鼻瘡	1.4.69
비사 鼻鼈	1.4.70
중설〔설종〕重舌〔附舌腫〕	1.4.71
상치통 上齒痛	1.4.72
하치통 下齒痛	1.4.73
인후통〔단유아·쌍유아〕咽喉痛〔附單蛾雙蛾〕	1.4.74
직항 直項	1.4.75
예항 例項	1.4.76
태양〔오른쪽 경혈을 쓴다〕太陽〔右治〕	1.4.77
태음〔왼쪽 경혈을 쓴다.〕太陰〔左治〕	1.4.78
결흉·비기 結胸痞氣	1.4.79
혈결흉 血結胸	1.4.80
유암〔유옹·결핵〕乳巖〔附乳癰結核〕	1.4.81
복통 腹痛	1.4.82
요통 腰痛	1.4.83

양협통 兩脇痛	1.4.84
가려우며 아픈 경우 痒痛	1.4.85
반진 癩疹	1.4.86
은진 癰疹	1.4.87
단독 毒	1.4.88
근계〔발바닥 근육에 쥐 나는 경우〕筋痙〔附足心筋偏〕	1.4.89
견통〔비통〕肩痛〔附臂痛〕	1.4.90
습열각기 濕熱脚氣	1.4.91
학슬풍 鶴膝風	1.4.92
산증 疝症	1.4.93
음낭습양증 陰囊濕痒症	1.4.94
후음치루증 後陰痔瘻症	1.4.95
탈항 脫肛	1.4.96
건곽란〔전근〕乾霍亂〔附轉筋〕	1.4.97
습곽란 濕霍亂	1.4.98
구토 嘔吐	1.4.99
해수〔천기〕咳嗽〔附喘氣〕	1.4.100
적취 積聚	1.4.101
식적 食積	1.4.102
혈적 血積	1.4.103
충적 蟲積	1.4.104
여러 원인으로 생긴 적(積) 諸物傷成積	1.4.105
부종 浮腫	1.4.106

---

창만 張滿	1.4.107
배만 부어오르는 고창(蠱脹) 單腹蠱脹	1.4.108
소갈증 消渴症	1.4.109
황달〔흑달〕黃疸〔附黑疸〕	1.4.110
학질 瘡疾	1.4.111
사수 邪祟	1.4.112
옹저에 화농 여부와 깊이를 가리는 방법 癰疽辨膿成深淺	1.4.113
홍사정 紅絲疔	1.4.114
대풍창 大風瘡	1.4.115
혈풍창 血風瘡	1.4.116
나력〔연주결핵〕癰癧〔附連珠結核〕	1.4.117
두창 頭瘡	1.4.118
내감창 內瘡	1.4.119
제상 諸傷	1.4.120
제독 諸毒	1.4.121
중악〔시결·울모·졸사〕中惡〔附尸厥·鬱胃·卒死〕	1.4.122
귀염 鬼魘	1.4.123
부인태루태동 婦人胎漏胎動	1.4.124
자현〔태아가 뱃속에서 우는 경우〕子懸〔附見在腹中尖〕	1.4.125
최산〔난산·횡산·편산·애산〕催産〔附難産·橫産·便産·石産〕	1.4.126
산후발열 産後發熱	1.4.127
탈음 脫陰	1.4.128
월경이 고르지 못한 경우〔혈패〕月候不調〔附血閉〕	1.4.129

---

혈붕혈루 血崩血漏	1.4.130
대하증 帶下症	1.4.131
혈괴 血塊	1.4.132
소아급경풍 小兒急驚風	1.4.133
만경풍 慢驚風	1.4.134
간기〔야제〕肝氣〔附夜啼〕	1.4.135
치경 瘧瘧	1.4.136
감병 疳病	1.4.137
해로 解顱	1.4.138
구배 龜背	1.4.139
구흉증 龜胸症	1.4.140
소아단독 小兒丹毒	1.4.141
감안 疳眼	1.4.142
태독 胎毒	1.4.143
두진 痘疹	1.4.144
복학 腹瘻	1.4.145
[경혈 經穴]	1.5
공손(부) 公孫(父)	1.5.1
내관(모) 內關(母)	1.5.2
후계(부) 後谿(夫)	1.5.3
신맥(처) 申脈(妻)	1.5.4
임읍(남) 臨泣(男)	1.5.5
외관(여) 外關(女)	1.5.6



열결(주) 列缺(主)	1.5.7
조해(객) 照海(客)	1.5.8
[기타 치료법 別法]	1.6
체학 滯瘡	1.6.1
급관격 急關隔	1.6.2
학슬풍 鶴膝風	1.6.3
간기 肝氣	1.6.4
소양증 癢痒症	1.6.5
비옹 痲癰	1.6.6
적병 積病	1.6.7
애기 呃氣	1.6.8
무사마귀 무사마귀	1.6.9
가래톳 가래톳	1.6.10
소아복학 小兒腹瘡	1.6.11
담벽 痰癖	1.6.12
흉만통 胸滿痛	1.6.13
두드러기 두드래기	1.6.14
담적 痰積	1.6.15
혈괴 血塊	1.6.16
소아간기 小兒癰氣	1.6.17
소변불리·임질 등 小便不利·淋疾等	1.6.18

## 해제·출판

---

일러두기	2.1
해제	2.2
출판사향	2.3

---

## 1.1. 藏珍要編序 | 장진요편 서문

凡人之生也에 皆具五行之精而每於風寒暑濕에 從其不足處하야 生病者也니 當其治病인댄 先看人之氣質하고 次察病之輕重이 此是大概也라 雖看其氣察其病治之<sup>1</sup>라도 當穴投之當藥에<sup>1</sup> 反有其害하니 何者오 不知天稟之不足하고 但量病勢之沈重이니 且看爲人之輕重軟弱타고 不度病症之痼疾하고 以輕治重하고 以重治輕하야 三焦經絡이 不能均平而然矣라 豈不誤哉아

사람이 태어나면 모두 오행(五行)의 정기(精氣)를 갖추게 되지만, 정기가 부족한 곳에 풍、한、서、습의 사기(邪氣)가 침입하여 병이 생긴다. 그러므로 병을 치료할 때는 먼저 사람의 기질을 보고 다음으로 병의 경중을 살피는 것이 그 요점이다. 환자의 기질과 병의 경중을 살펴 올바른 경혈을 치료하고 올바른 약을 투여하였는데도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어째서인가. 타고난 정기의 부족을 알지 못하고 병세가 심한 것만을 헤아렸거나 사람의 기질이 연약하다고 여겨 병증이 완고함은 따져보지 않고 가벼운 방법으로 심한 병을 치료하거나 강한 방법으로 가벼운 병을 치료하여 삼초 경락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予則識見이 淺短하고 所學이 不長이나 然이나 幾年以來與耳聞目見이 多有多驗之確定故로 略具一二하야 以備要覽而近來世俗이 但稱服하고<sup>2</sup> 未識鍼法中補瀉溫冷之玄妙하니 良可歎也라 觀其人之動靜하고 審其病之本源하야 補中有瀉하고 溫中有冷이니 適中於稟賦하고 順氣於病勢면 如衡하야 不得偏倚則病無不差矣라 此編이 雖不繁多나 皆是先輩에 秘傳之妙法이니 後之學者가 不可尋常工夫하야 幸無歎后之痛케할진저

나는 식견이 얇고 배움이 짧으나 수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을 경험으로 확인한 것이 많다. 그래서 대략 한두 가지를 모아 요람(要覽)으로 만들었으나, 근래 세속 사람들이 침법 가운데 보(補)、사(瀉)、온(溫)、냉(冷)의 현묘함을 알지 못하니 한탄할 만하다. 사람의 상태를 보고 병의 본원을 살펴 보(補)하는 가운데

사(瀉)하고 온(溫)하게 하는 가운데 냉(冷)하게 하여, 기질에 알맞게 맞추고 병세에 따라 기를 고르게 하여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듯 하면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 책은 비록 분량이 많지 않으나 모두 선배들이 비밀스럽게 전해준 심오한 방법이니 후학들은 평소에 공부하여 부디 나중에 탄식하는 아픔이 없기를 바란다.

上之三十二年甲午春에 後學江陽后인에 松溪는謹識하노라

고종 31년(1894, 갑오) 봄에 후학 강양(江陽) 후인 송계(松溪)가 삼가 적다.

---

1. 雖看其氣察其病治之라도 當穴投之當藥에 : “雖看其氣察其病, 治之當穴投之當藥”을 잘못 새긴 듯하다. ↩

2. 但稱服하고 :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

## 1.2. 臟腑總論 | 장부총론

五臟者, 心丁火, 肝乙木, 腎癸水, 肺辛金, 脾己土, 包絡無位火.

오장은 심(정화), 간(을목), 신(계수), 폐(신금), 비(기토), 포락(무위화)이다.

六腑者, 胃戊土, 小腸丙火, 胆甲木, 膀胱壬水, 大腸庚金, 命門相火, 三焦無位.

육부는 위(무토), 소장(병화), 담(갑목), 방광(임수), 대장(경금), 명문(상화), 삼초(무위)이다.

臟者는 藏平也니 藏諸神而精氣流通也요 腑者는 府庫也니 出納轉輸之謂也라 臟腑는 兄弟也니 同氣而異形耳라 素問에 曰五臟者는 藏精而不瀉故로 滿而不能實하고 六腑者는 傳化物而不藏故로 實而不能滿에나 所以然者는 水穀이 入口則胃實而腸虛하고 食下則腸實而胃虛故로 實而不能滿이요 滿而不能實也라

장(臟)은 간직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뜻으로 여러 신(神)을 간직하고 정기를 소통시킨다. 부(腑)는 곳간(府庫)이라는 뜻으로 내보내고 들이며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장부는 형제의 관계로, 같은 기운을 타고 났으나 형태를 달리할 뿐이다. 『소문』에서 말하였다. “오장(五臟)은 정기(精氣)를 저장하되 쏟아버리지 않기 때문에 충만하되 가득차지 못하고, 육부(六腑)는 음식물을 옮기고 소화하되 저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득차되 충만하지 못한다. 그 까닭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면 위(胃)는 가득차지만 장(腸)은 비고, 음식이 내려가면 장(腸)은 가득차지만 위(胃)는 빈다. 그러므로 육부는 가득 차되 충만하지 못하고, 오장은 충만하되 가득차지 못한다.”

難經엔 曰呼出은 心與肺요 吸入은 腎與肝이니 呼吸之間이니라 脾受穀米니 言心肺는 在上爲陽이요 肝腎은 在下爲陰이요 脾居中州而播敷四臟하야 爲一身之運幹也리라 又曰五臟六腑皆相近而心肺<sup>3</sup>與大腸小腸으로 相遠者는 何也오 經에 言

心榮肺衝<sup>4</sup>는 通行陽氣故로 居在上이오 大小腸은 傳陰氣而下故로 居在下니 所以 相去而遠也니라 觀素難所論에 臟腑分陰分陽而脾胃는 其中之太極矣乎인더

『난경』에서 말하였다. “날숨은 심(心)·폐(肺)의 작용이고 들숨은 신·간의 작용이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비위(脾胃)에서 음식물을 받는다.” 심·폐는 위에 있어 양(陽)이 되고, 간·신은 아래에 있어 음(陰)이 되며, 비위는 가운데 있어 네 장(臟)으로 퍼뜨려주어 몸의 축이 된다. 또 말하였다. “오장과 육부는 모두 가까우나 심·폐만이 소장·대장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경문(經文)에서, 심은 가꾸고 폐는 지켜서 양기를 운행시키기 때문에 상부에 위치하고, 대장과 소장은 음기를 전하여 내려 보내므로 하부에 위치하므로 서로 떨어져 멀리 있다.” 『소문』과 『난경』에서 논한 것을 보건대, 장부는 음과 양으로 구분되고 비위는 그 가운데에서 태극이 되는구나.

至於氣血多小라 體用上下를 亦不可而不知라 詩에 曰多氣多血經次<sup>5</sup>記니 手經大腸足經胃오 多氣少血有六經하니 三焦膽腎心脾肺오 多血少氣心包經과 膀胱小腹<sup>6</sup>肝所異니(病值氣血火者<sup>7</sup>補之, 多者損之) 此事難知에 曰天六腑는 氣表니 其體在上하고 其用이 在下오(胆胃膀胱大腸小腸) 地五臟은 血裏니 其體在下오 其用이 在上이니(耳目口鼻) 言陰陽이 互相爲用則天氣는 在<sup>8</sup>旋而下降하고 地氣는 右旋而上昇하야 氣血이 和하고 表裏靜하야 上下通知<sup>9</sup>天地之泰然하야 人身이 其小天地乎인저(氣屬衆<sup>10</sup>天左旋, 血屬陰衆<sup>11</sup>地右旋, 血從其<sup>12</sup>行, 其體靜而不動)

기혈의 다소(多少)、체용(體用)、상하(上下)도 몰라서는 안 된다. 시(詩)에서 노래했다. “다기다혈(多氣多血)한 경맥을 반드시 알아야 하니, 팔의 대장경과 다리의 위경이요, 다기소혈(多氣少血)한 경맥은 여섯이 있으니 삼초·담·신·심·비·폐이며, 다혈소기(多血少氣)한 것은 심포경이니 방광·소장·간경이 다를 것인가.”<sup>13</sup> [병이 기나 혈이 적은 곳에 들면 보하고, 많은 곳에 들면 사한다.] 『차사난지』에서 말하였다. “하늘의 기운을 받은 육부(六腑)는 기(氣)와 겹(表)에 해당하니 체(體)는 상부에 있으나 용(用)은 하부에 있다(담·위·방광·대장·소장). 땅의 기운을 받은 오장(五臟)은 혈(血)과 속(裏)에 해

당하니 체(體)는 하부에 있으나 용(用)은 상부에 있다(귀·눈·입·코).” 이 것은 음과 양이 서로에게 용(用)이 되어 하늘의 기운은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고 땅의 기운은 오른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기와 혈이 조화롭고 겉과 속이 안정되어 위 아래로 잘 통하는 것이 마치 천지가 평안한 것과 같으니, 인체는 소우주로구나. (기(氣)는 양에 속하여 하늘을 본 따 왼쪽으로 돌고, 혈(血)은 음에 속하여 땅을 본 따 오른쪽으로 돈다. 혈은 좇고 기는 이끌지만 그 본체는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以聲色覺味<sup>14</sup>常變으로言之컨대 肝主色하니(應春. 物皆有色, 皆肝變化, 不特脫病<sup>15</sup>, 徵<sup>16</sup>於面也. 經言大腸謂白腸, 小腸謂赤腸之類, 言腑病與色相合也. 又言脈之各有青赤黃白黑, 言脈與色亦當與色<sup>17</sup>合) 自入爲靑이오 入心爲赤이오 入脾爲黃이오 入肺爲白이오 入腎爲黑이니 假如中風이니라 肝爲心邪則知色當赤也오 心主臭하니(應夏. 火能焦物, 五臭皆心所主) 自入爲焦臭오 入肝爲臊臭오 入脾爲香臭오 入肺爲腥臭오 入腎爲腐臭니 假如心經이 傷暑則知其症에 當惡臭也오 脾主味하니(應季夏. 味自土生, 行五味以養五臟者, 脾所主也) 自入爲甘이오 入肝爲酸이오 入心爲苦오 入肺爲辛이오 入腎爲鹹이니 假如飲食勞倦하야 以致脾邪入心則知當喜苦味也오 肺主聲하니(應秋. 金之有聲也, 五聲皆肺所發也) 自入爲悲오(卽哭也, 金氣肅殺悽慘也) 入肝爲呼오(金勝肝, 故發爲呼也) 入心爲言이오(火克金, 故述爲言也) 入脾爲歌(母見子, 州<sup>18</sup>樂而歌也) 入腎爲呻이니(子見母, 則嬌而呻吟) 假如傷寒엔 肺邪入心則知當譫言妄語也오 腎主液하니(應冬. 水性濡潤, 五液皆於<sup>19</sup>腎) 自入爲唾오(腎主骨, 腎液從齒生) 入肝爲泣이오 入心爲汗이오 入脾爲涎이오 入肺爲涕니 假如中濕엔 爲腎邪入心則知當汗出不可止也니라

소리와 빛깔과 맛과 냄새의 정상과 이상을 말하여 보자. 간(肝)은 빛깔을 주관하므로(봄에 상응한다. 사물은 모두 색이 있는데, 인체의 색은 모두 간의 변화이다. 장병(臟病)만 얼굴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난경(難經)』에서 대장을 백장(白腸)이라 하고 소장(小腸)을 적장(赤腸)이라고 하여 부병(腑病)도 빛깔과 서로 연관됨을 말하였다. 또 맥에도 각기 청·황·적·백·흑을 말하여 맥도 분명 색과 서로 연관됨을 말하였다.),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면 푸른색이 되고 심

으로 들어가면 붉은색이 되며 비로 들어가면 누런색이 되고 폐로 들어가면 흰색이 되며 신으로 들어가면 검은색이 된다. 예를 들어 중풍에서 간풍(肝風)이 심의 사기가 되면 분명 붉은 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心)은 냄새를 주관하므로(여름에 상응한다. 화(火)는 사물을 태울 수 있으므로, 다섯 가지 냄새는 심이 주관한다.),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면 타는내가 되고, 간으로 들어가면 누린내가 되며, 비로 들어가면 향기가 되고, 폐로 들어가면 비린내가 되며, 신으로 들어가면 썩은내가 된다. 예를 들어 심경이 서사(暑邪)에 상하면 증상에 분명 악취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脾)는 맛을 주관하므로(계하(季夏)에 상응한다. 맛은 토(土)에서 생겨나므로, 오미(五味)로 오장을 기르는 것은 비가 주관한다.),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면 달고, 간으로 들어가면 시며, 심으로 들어가면 쓰고, 폐로 들어가면 매우며, 신으로 들어가면 짜다. 예를 들어 음식상이나 노권상으로 비의 사기(邪氣)가 심으로 들어가면 쓴맛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肺)는 소리를 주관하므로(가을에 상응한다. 금(金)은 소리를 내므로, 다섯 가지 소리는 모두 폐에서 생겨난다.), 자기 자신에게 들어가면 슬픈 소리가 되고(곧 곡소리이다. 금(金)의 기운은 만물을 죽이고 처참(懷慘)하기 때문이다.), 간으로 들어가면 고함 소리가 되며(금의 기운이 간을 억제하므로 고함치는 소리를 낸다), 심으로 들어가면 말하는 소리가 되고(화(火)가 금을 극(克)하므로 말로 설명하게 된다.), 비로 들어가면 노래 소리가 되며(어미가 자식을 보면 즐거워 노래한다.), 신으로 들어가면 교태 소리가 된다(자식이 어미를 보면 응석부리며 콧소리를 낸다.). 예를 들어 폐의 사기가 심으로 들어가면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게 된다. 신(腎)은 액(液)을 주관하므로(겨울에 상응한다. 수(水)의 성질은 흘러내리는 것이므로, 다섯 가지 액(液)은 모두 신에서 나온다.), 자기 자신에게 들어가면 침(唾)이 되고(신은 땀을 주관하니, 신액(腎液)은 이에서 생겨난다.), 간으로 들어가면 눈물이 되며, 심으로 들어가면 땀이 되고, 비로 들어가면 침(涎)이 되며, 폐로 들어가면 콧물이 된다. 예를 들어 신의 사기가 심으로 들어가면 땀이 나고 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以主病要略言之컨대 三陰之脈은 榮於臟하고 三陽之脈은 榮於腑하야 陰陽이 和而無關格之患이오 惟五臟不和則氣滯而爲九竅不通하고 六腑不和則榮聚而爲癰疽하나니〔九竅, 耳目鼻口爲陽七竅, 大小便爲陰二竅. 蓋肝氣通於目, 目和則知白黑, 心氣通於舌, 舌<sup>20</sup>和則知五味, 脾氣通於口, 口和則知穀味, 肺氣通於鼻, 和<sup>21</sup>則知香臭, 腎氣通於耳, 耳和則知五音, 五義<sup>22</sup>不和, 則榮衛不通, 邪氣不得外泄, 故로 竅<sup>23</sup>壅滯, 九竅既滯, 則六腑陽氣亦不得外泄, 故로 竅滯, 九竅既滯, 則六腑陽氣<sup>24</sup>亦不得通通和<sup>25</sup>於內, 內外不通, 故留結爲癰疽<sup>26</sup>瘡癰也. 臟腑不知<sup>27</sup>所致이<sup>28</sup>, 陽滯於陰, 癰, 陰滯於陽, 疽<sup>29</sup>〕

주로 병이 되는 요점을 말하여 보자. 삼음(三陰)의 맥은 오장(五臟)에서 길러지고 삼양(三陽)의 맥은 육부(六腑)에서 길러지므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면 관격(關格)의 문제가 없게 된다. 그러나 오장이 조화롭지 못하면 기운이 막혀 구구(九竅)가 통하지 못하고, 육부가 조화롭지 못하면 영혈(榮血)이 몰려 웅거가 된다(구구는, 귀·눈·코·입이 양(陽)으로 칠구(七竅)이고, 대소변이 음(陰)으로 이구(二竅)이다. 간의 기운은 눈으로 이어지며 눈이 조화로우면 색을 구별할 수 있다. 심의 기운은 혀로 이어지며 혀가 조화로우면 맛을 구별할 수 있다. 비의 기운은 입으로 이어지며 입이 조화로우면 곡식의 맛을 알 수 있다. 폐의 기운은 코로 이어지며 코가 조화로우면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 신의 기운은 귀로 이어지며 귀가 조화로우면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 오장이 조화롭지 못하면 영위가 소통되지 않고 사기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므로 구구가 막힌다. 구구가 이미 막히면 육부의 양기도 안에서 조화롭게 소통되지 못한다. 안팎이 모두 통하지 못하므로 정체되고 맺혀 웅(癰)·저(疽)·창(瘡)·절(癰)이 된다. 이들은 장부의 불화로 생긴 것으로, 음분에서 양기가 정체되면 웅(癰)이, 양분에서 음기가 정체되면 저(疽)가 된다.〕.

蓋邪在六腑則陽脈이 不和而氣留在內則陽氣大盛而陰氣不得相榮於下故로 曰關이니 凡外感에는 是動氣病而下竅不利者는 皆關之類也오 邪在五臟則陰脈이 不和而血留在內則陰氣太盛而陽氣不得相榮於上故로 曰格이니 凡雜病이 由血所生而上竅不利者는 皆格之類也〔氣先病而血後病. 但外感從氣而入, 雜從血而出也〕陰

陽이 俱甚하야 陰中에는 無陽하고 陽中에는 無陰하야 陰陽이 相離하고 使榮衛否塞<sup>30</sup>故로 氣血이 不相榮運이면 此則五臟六腑皆受邪也라 故로 曰關格이니 關格者는 不得盡其命而死하나니 關格者는 其百病之關鍵矣乎인더

사기(邪氣)가 육부에 있으면 양맥이 조화롭지 못하여 기(氣)가 체내에 머물게 되고, 그러면 양기가 왕성하여 하부에서 음기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 이것을 관(關)이라고 한다. 외감병(外感病)은 시동병(是動病)인 기(氣)의 병이지만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 관의 부류이다. 사기가 오장에 있으면 음맥이 조화롭지 못하여 혈(血)이 체내에 머물게 되고, 그러면 음기가 왕성하여 상부에서 양기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 이것을 격(格)이라고 한다. 잡병(雜病)은 소생병(所生病)인 혈(血)의 병이지만 이목구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모두 격의 부류이다(기가 먼저 병들고 혈이 나중에 병든다. 그러나 외감은 기를 좇아 침입하고 잡병은 혈을 좇아 생겨난다.). 음양의 병이 모두 심하여, 음 속에 양이 없고 양 속에 음이 없어서 서로 떨어져서 영위가 막히게 되고 기혈이 서로 어울려 운행하지 못한다. 이것은 오장육부가 사기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관격이라고 한다. 관격이 되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으므로 관·격은 모든 병의 관건이다.

病有咳嗽泄痛瘡癰者는 何也오 人與天地相參故로 五臟이 各以時感於寒則受病이니 微則爲咳오 甚則爲泄爲<sup>31</sup>이라 春則肝先受之하고 夏則心先受之니 餘는 倣此라 瘡者間日一發하고 癰者一日一發이니 臟腑之瘡이 各不同이니 當隨所狀而刺之니라(刺法見後)

해수·설사·복통·해학(瘡癰)의 병이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사람은 천지 자연과 서로 관여되어 있으므로 오장이 각기 제 때에 한사(寒邪)를 받으면 병이 된다. 가벼우면 기침을 하고 무거우면 설사를 하거나 아프다. 봄에는 간이 먼저 받고 여름에는 심이 먼저 받으니 나머지도 이와 같다. 해(瘡)는 하루 건너 한 번 발작하고, 학(癰)은 하루 한 번 발작한다. 장부의 학질이 각기 다르니 병의 증상을 좇아 자침해야만 한다(자법은 뒤에 나온다.).

病有積聚者는 何也오 積者는 五臟所生이니 其始發이 有常處하고 其痛不離其部며  
〔或上或下或右或左〕 聚者는 六腑所成이니 其始發이 無根本하고 其痛에 無常處  
〔上下往來不定〕 積者는 陰氣오 聚者는 陽氣故로 不同也니라

적취의 병이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적(積)은 오장에 생기는 것이니, 처음 생겨  
날 때 부위가 일정하고 통증이 그 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위쪽이나 아래쪽이  
나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다〕. 취(聚)는 육부에 생기는 것이니, 처음 생겨날 때  
뿌리가 없고 통증도 일정한 부위가 없다〔위아래로 오르내리며 일정하지 않  
다.〕. 적은 음기로 되고 취는 양기로 된다. 그러므로 같지 않다.

凡病<sup>32</sup>에는 欲得寒冷하며 又欲見人者는 屬腑하고 陰病에는 欲得溫熱하며 又欲閉  
戶獨處하 惡聞人聲者는 屬臟이나 然이나 臟病이 所以難治者는 傳其所勝也니 假  
如心病이 傳肺하며 肺傳肝하며 肝傳脾하며 脾傳腎하여 腎傳心이니 一臟이 不再  
傳故로 言七傳者는 死하고 腑病이 所以易治者는 傳其所生也니 假如心病이 傳脾  
하며 脾傳肺하며 肺傳腎<sup>33</sup> 腎傳肝하며 肝傳心이니 是는 子母相傳하야 周而後始<sup>34</sup>  
하야 如環無端故로 言生也라

양병(陽病)은 차거나 시원한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람을 보고자 하니 부(腑)에  
속한다. 음병(陰病)은 따뜻하거나 뜨거운 것을 좋아하고 또 집 안에서 혼자 있  
기를 좋아하며 사람 소리를 싫어하니 장(臟)에 속한다. 장병(臟病)이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승(勝)하는 곳을 좇아 병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병은  
폐로 전해지고, 폐에서 간, 간에서 비, 비에서 신, 신에서 심으로 전해진다. 한  
장부에 2번 전해지지 않으므로 7번 전해진 뒤에 죽는다고 하였다. 부병(腑病)  
이 치료하기 쉽다고 한 것은 생(生)하는 곳을 좇아 병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심병은 비로 전해지고, 비에서 폐, 폐에서 신, 신에서 간, 간에서 심으  
로 전해진다. 이렇게 어미에서 자식으로 서로 전해져서 한 바퀴 돌아 다시 시  
작되며 고리와 같이 끝이 없기 때문에 산다고 하였다.

經에 邪氣之客於身에 以勝相加하고 至其〔己〕所生而愈하여 至其〔己〕所不勝而甚하고 至於所生〔己〕而持라가 自得其位而起하나니〔病在肝木, 愈於夏, 不愈, 甚於秋金, 秋不死, 持於冬水, 起於春木, 禁當風. 肝病者, 愈於丙丁火, 丙丁不愈, 甚於庚辛金, 庚辛不死, 持於生癸水, 起於甲乙木. 他經倣此, 則肝病者, 手足<sup>35</sup>慧爽, 下腩甚, 夜半靜退. ○病在<sup>36</sup>, 愈於長夏, 長夏不愈, 甚於冬, 冬不死, 持於春, 起於夏. 禁場食<sup>37</sup>熱衣. 日中慧, 夜半甚, 平旦靜. ○病在脾, 愈於秋, 秋不愈, 甚於春, 不死, 持於死<sup>38</sup>夏<sup>38</sup>, 起於長夏. 禁溫食飽食濕也隔衣<sup>39</sup>. 日脯慧, 日出甚, 下脯靜. ○病在肺, 愈於於冬<sup>40</sup>, 冬不愈, 甚於夏, 夏不死, 持於長夏, 起於秋. 禁寒飲食寒衣. 下脯慧, 目<sup>41</sup>中甚, 夜半靜. ○病在腎, 愈於春, 春不癒<sup>42</sup>, 甚於長夏, 長夏不死, 持於秋, 起於冬. 林炬焮焮熱食溫灸衣. 夜半慧, 四季甚, 下輔靜〕西<sup>43</sup>先定五臟之脈이라야 乃可言間甚之時오 死生之期也니라〔必先知經脈, 然後知病脈〕

『소문(素問)』에서 말하였다. “사기(邪氣)가 인체에 침입할 때 승(勝)하는 관계에 따라 더해지게 된다. 자신이 생(生)하는 곳에서 나으며, 자신이 승(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심해지고, 자신을 생(生)하는 곳에서는 유지되다가 자기 자신의 위치가 되어 일어나게 된다.”〔병이 간목(肝木)에 있으면 여름에 낫고, 낫지 않으면 가을에 심해지고, 가을에 죽지 않으면 겨울에 유지되다가 봄에 일어나니 풍(風)을 맞지 말아야 한다. 간병(肝病)은 정화일(丁火日)에 낫고, 병정일(丙丁日)에 낫지 않으면 경금일(庚金日)에 심해지며, 경신일(庚申日)에 죽지 않으면 계수일(癸水日)에 유지되다가 갑을일(甲乙日)에 일어난다. 다른 경(經)도 이와 같다. 간병은 새벽에 호전되고 저녁에 심해지며 한밤중에 안정된다. ○병이 심(心)에 있으면 장하(長夏)에 낫고, 장하에 낫지 않으면 겨울에 심해진다. 겨울에 죽지 않으면 봄에 유지되고 여름에는 일어난다. 따뜻한 음식과 뜨거운 옷을 피해야 한다. 심병은 한낮에 호전되고 한밤중에 심해지며 새벽에 안정된다. ○병이 비(脾)에 있으면 가을에 낫고, 가을에 낫지 않으면 봄에 심해진다. 봄에 죽지 않으면 여름에 유지되고 장하(長夏)에 일어난다. 따뜻한 음식, 포식, 습지, 눅눅한 옷을 피해야 한다. 해가 기울 때에 호전되고 해가 뜰 때 심해지며 해질녘에 안정된다. ○병이 폐(肺)에 있으면 겨울에 낫고, 겨울에 낫지

않으면 여름에 심해진다. 여름에 죽지 않으면 장하(長夏)에 유지되고 가을에 일어난다. 차가운 음식과 차가운 옷을 피해야 한다. 해질녘에 호전되고, 한낮에 심해지며, 한밤중에 안정된다. 〇병이 신(腎)에 있으면 봄에 낫고, 봄에 낫지 않으면 장하(長夏)에 심해진다. 장하에 죽지 않으면 가을에 유지되고 겨울에 일어난다. 찜질이나 뜸을 뜨지 말고 뜨거운 음식이나 불에 찢은 옷을 피해야 한다. 한밤중에 호전되고, 진(辰)·술(戌)·축(丑)·미(未)시에 심해지며, 해질녘에 안정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장부의 맥을 확정해야 가볍고 심해지는 시간과 죽고 사는 시기를 말할 수 있다. (반드시 병이 없을 때의 맥을 안 뒤에 병이 있을 때의 맥을 알 수 있다.)

自其補瀉言之컨대 外感內傷에는 病有虛實賊微正五邪之分하니 從後來者者爲實邪<sup>44</sup>오 從所不勝來者爲微邪<sup>45</sup>오 自病이 爲正邪니 假令心病에는 傷暑得之爲正邪오 中風得之爲虛邪오 飲食勞倦得之爲實邪오 傷寒得之爲微邪오 中濕得之爲賊邪니 是之爲五邪也오 憂愁思慮則傷心하고 形寒飮冷則傷肺하고 怒氣逆上而不下則傷肝하고 飲食勞倦則傷脾하고 久吐<sup>46</sup>濕地와 強力入水則傷腎은 是正經<sup>47</sup> 自病也라 虛則補其母하고 實則瀉其子니 假如肝은 內<sup>48</sup>心之母라 心虛에는 當補肝이오 脾는 內<sup>49</sup>心之子라 心實에는 當瀉脾니 餘經<sup>50</sup>臟도 倣之라 是以로 五補五瀉는 爲方祖與인저(心虛, 朱砂安神丸. 肝腎虛, 腎氣丸. 脾虛, 蓋黃散<sup>51</sup>. 肺虛, 阿膠散. 心熱, 卑瀉腎湯<sup>52</sup>. 後之補瀉, 皆椎<sup>53</sup>此.)

보사(補瀉)를 말해보자. 외감과 내상의 병에는 허사(虛邪)·실사(實邪)·적사(賊邪)·미사(微邪)·정사(正邪)의 오사(五邪)의 구분이 있다. 자기를 낳아주는 것에서 온 경우는 허사이고, 자기를 이기는 것에서 온 경우는 적사이며, 스스로 병이 난 경우는 정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심병(心病)이 있을 때, 상서(傷暑)로 생긴 경우는 정사가 되고, 중풍으로 생긴 경우는 허사가 되며, 음식상·노권상으로 생긴 경우는 실사가 되고, 상한(傷寒)으로 생긴 경우는 미사가 되며, 중습(中濕)으로 생긴 경우는 적사가 된다. 이것이 오사이다. 걱정하고 마음을 쓰면 심(心)을 상하고, 몸을 춥게 하고 찬 것을 마시면 폐(肺)를 상하며, 분노로 기가 치솟아 내려가지 않으면 간(肝)이 상하고, 음식과 노권에 상하면 비

(脾)가 상하며, 축축한 곳에 오래 앉거나 억지로 물에 들어가면 신(腎)을 상한다. 이것이 정경(正經)이 스스로 병드는 경우이다. 허하면 모(母)에 해당하는 장기를 보해주고, 실하면 자(子)에 해당하는 장기를 사해준다. 예를 들어 간(肝)은 심(心)의 모(母)에 해당하니, 심이 허하면 간을 보해주어야 한다. 비는 심의 자(子)에 해당하니 심이 실하면 비를 사해 주어야 한다. 다른 장기도 이와 같다. 다섯 가지 보법(補法)과 다섯 가지 사법(瀉法)은 모든 처방을 구성하는 근원이다〔심허에 주사안신환, 간신허에 신기환, 비허에 익황산, 폐허에 아교산, 심열에 단사심탕을 쓴다. 나머지 보사(補瀉) 모두 이 원리를 미루어 넓힌 것이다.〕.

抑又聞腑有五<sup>54</sup>藏有六有九者是何謂也 腑有六者是謂三焦爲外腑也 上焦者是在心下胃上口<sup>55</sup> 主內而不出 其治在膻中 中焦者是在胃中脘 主腐熟水穀 其治在臍兩傍 下焦者是在臍下當膀胱上口 主分別清濁 出而不內 其治在臍下一寸 故曰三焦是腑之所以有六也 臟亦有六者 謂腎有兩臟 左爲腎 右爲命門 命門者是精神之所舍也 男以藏精 女以繫胞 其氣與胃<sup>56</sup>相通 故言臟亦有六也 〔華氏曰 自喉嚨以下六臟 以應天 肺之系也 自咽門以下六腑 以應地 氣 胃之系也 前喉內氣 後咽內食 有謂三管者非〕

그런데 듣기로 부(腑)가 여섯 개, 장(臟)이 여섯 혹은 아홉 개가 있다고도 하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부(腑)에 여섯이 있다는 것은 삼초를 외부(外腑)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 상초(上焦)는 명치 아래 위(胃)의 윗구멍에 있으며 수납하고 내보내지는 않는다. 치료는 전중(膻中)에서 한다. 중초(中焦)는 위의 중완(中脘)으로 위도 아래도 아닌 곳에 있으며 음식을 소화시킨다. 치료는 배꼽 양쪽에서 한다. 하초(下焦)는 배꼽 아래 방광 윗구멍에 있으며 청탁을 가려 내보내고 들이지 않아서 소변을 내보낸다. 치료는 배꼽 아래 1치 부위에서 한다. 그러므로 삼초(三焦)라고 한다. 이것이 부(腑)에 여섯이 있다고 하는 까닭이다. 장(臟)도 여섯이 있으니, 신(腎)에 두 장(臟)이 있어서 왼쪽은 신이 되고 오른쪽은 명문이 된다. 명문(命門)은 정신이 머무는 곳이니 남자는 정(精)이 저장

되고 여자는 포(胞)가 매여 있다. 그 기운이 신(腎)과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장에도 여섯이 있다고 하였다(화타(華陀)가 말하였다. 숨구멍 아래에 있는 여섯 장(臟)은 하늘에 상응하며 폐(肺)의 계통이다. 목구멍 아래 있는 여섯 부(腑)는 땅에 상응하며 위(胃)의 계통이다. 앞에 있는 숨구멍으로 숨이 들어가고 뒤에 있는 목구멍으로 음식이 들어가므로 삼관(三管)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臟有九者는 神藏이 五니 肝藏魂하며 心藏神하며 脾藏意하며 肺藏魄하며 腎藏精與志니 以其皆神氣居之故로 曰神藏이 五也오 形藏이 四니 一은 頭角이오 二는 耳目이오 三는 口齒오 四는 胸中이니 以其如器外藏<sup>57</sup>하야 虛而不屈伸하고 以藏於物故로 曰形藏이 四니 合之則爲九臟矣라 或이 疑氣衝이 爲腑라하니 古人議論이 最活이로다 他如內經에는 又言腦髓骨脈膽女子胞六者를 名曰奇恒之府라하고 胃大小腸膀胱三焦五者를 名曰傳化之府라하니 此皆不能久留輸瀉者오 魄門을 亦爲五臟은 使水穀으로 不得久藏이오<sup>58</sup>

장(臟)에 아홉이 있다고 한 것은, 신장(神藏)이 다섯으로 간은 혼(魂)을 간직하고 심은 신(神)을 간직하며 비는 의(意)를 간직하고 폐(肺)는 백(魄)을 간직하며 신은 정(精)과 지(志)를 간직한다. 모두 신기(神氣)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신장이 다섯이라고 한 것이다. 형장(形藏)은 넷 있으니 첫째는 두각(頭角)이고 둘째는 귀와 눈이며 셋째는 입과 이이고 넷째는 흉곽이니, 그릇과 같이 밖으로 열려 있고 속이 비어 모양이 변하지 않아 사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형장이 넷이라고 한 것이다. 이를 합하면 구장(九臟)이 된다. 또 기충(氣衝)이 부(腑)가 되는지에 대해 옛사람들이 매우 활발하게 토론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내경(內經)에 “뇌(腦)、수(髓)、골(骨)、맥(脈)、담(膽)、여자포(女子胞)의 6가지를 기항지부(奇恒之府)라 하고 위(胃)、대장(大腸)、소장(小腸)、삼초(三焦)、방광(膀胱)의 5가지를 전화지부(傳化之府)라고 한다. 이것들은 모두 사물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전달하여 배설하는 것들이다. 백문(魄門)도 오장의 부림을 받으나 수곡을 오래 저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又頭者是精明之府니 頭傾視深하면 精神이 將奪<sup>59</sup>이 背者是 胸中之府니 背曲<sup>60</sup>隨<sup>60</sup>에 府將壞矣오 腰者是 腎之府니 轉搖不能이면 腎將憊矣오 膝者是 筋之府니 屈伸不能하고 行則<sup>61</sup> 筋將憊矣오 骨는 髓之府니 不能久立하고 行則振掉면 骨將憊矣라 得強則生하고 失強則死니 是는 臟腑之散殊如此니 然이 豈無其要乎아

또 머리는 정명지부(精明之府)이니 머리가 한 쪽으로 기울고 눈에 초점이 없으면 정신(精神)이 사라지게 된다. 등은 흉중지부(胸中之府)이니 등이 굽고 어깨가 처지면 흉곽이 장차 무너진다. 허리는 신지부(腎之府)이니 돌리거나 굽히지 못하면 신(腎)이 장차 병들게 된다. 무릎은 근지부(筋之府)이니 굽혔다 폈다 하지 못하고 걸을 때 굽어지면 힘줄이 장차 병들게 된다. 뼈는 수지부(髓之府)이니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걸을 때 떨리면 뼈가 장차 병들게 된다. 강해지면 살고 강함을 잃으면 죽는다. 장부가 이처럼 다양하고 서로 다르지만 어찌 그들 사이에 요점이 없겠는가.

經에는 凡<sup>62</sup> 上<sup>62</sup> 臟<sup>62</sup>이 皆取決於膽이라하니 蓋風寒이 在下오 燥熱이 在上이오 濕氣 居中하고 火<sup>63</sup> 游<sup>63</sup> 遊行其間하야 以主榮衛而不息하니 火<sup>64</sup> 衰則爲燥熱이라<sup>64</sup> 故로 中正之官이니 決斷이 出焉이라 噫라 鼠膽는 隨人神所在하고 象膽은 隨斗柄所指하니 物亦然이온 況於人乎아 人之所以靈於物者는 心乎神乎인저 至尊至貴하며 至清至淨하야 其十二官之主乎故로 曰心靜則萬病이 息하고 心動則萬病이 生이라하니 라

『소문(素問)』에서 “11가지 장(臟)이 모두 담(膽)에서 결정을 취한다.”고 하였다. 풍한은 하부에 있고 조열은 상부에 있으며 습기는 가운데 머무는데, 화(火)만 홀로 그 사이를 움직이며 영위를 다스리고 쉬지 않으니 화가 쇠약하면 한습이 되고 화가 왕성하면 조열이 된다. 그러므로 중정(中正)의 관직인 담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아, 쥐의 담은 사람의 신(神)이 있는 곳을 쫓고, 코끼리의 담은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곳을 쫓는다. 미물 또한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에 있



어서야. 사람을 영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心)과 신(神) 때문이구나.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청정하여 12개 관직의 군주로구나. 그러므로 심이 안정되면 모든 병이 그치고 심이 움직이면 모든 병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冬傷於寒, 春必溫病. 春傷於風, 夏必飧泄. 夏傷於暑, 秋必痲瘧. 秋傷於濕, 上逆而咳.

겨울에 한(寒)에 손상되면 봄에 반드시 온병이 되고, 봄에 풍(風)에 손상되면 여름에 반드시 손설(飧泄)을 앓으며, 여름에 서(暑)에 손상되면 가을에 해학(痲瘧)이 생기고, 가을에 습(濕)에 손상되면 기가 거슬러 올라 기침을 하게 된다.

3. 肺 : \*獨 [『의학입문』](#) [↩](#)

4. 衝 : \*衛 [『의학입문』](#) [↩](#)

5. 次 : 須 [『의학입문』](#) [↩](#)

6. 小腹 : \*小腸 [『의학입문』](#) [↩](#)

7. 火者 : \*少者 [『의학입문』](#) [↩](#)

8. 在 : \*左 [『의학입문』](#) [↩](#)

9. 知 : \*如 [『의학입문』](#) [↩](#)

10. 衆 : \*陽象 [『의학입문』](#) [↩](#)

11. 衆 : 象 [『의학입문』](#) [↩](#)

12. 其 : \*氣 [『의학입문』](#) [↩](#)

13. : 『침구대성』에 「十二經氣血多少歌」로 실려 있다. [↩](#)

14. 覺味 : \*臭味 [『의학입문』](#) [↩](#)

15

15. 脫病 : \*臟病 ㉾『의학입문』↩

16. 徵 : 微 ㉾『의학입문』↩

17. 與色 : \*相 ㉾『의학입문』↩

18. 州 : 則 ㉾『의학입문』↩

19. 於 : \*出於 ㉾『의학입문』↩

20. 台 : \*舌 ㉾『의학입문』↩

21. 和 : 鼻和 ㉾『의학입문』↩

22. 義 : \*臟 ㉾『의학입문』↩

23. 竅 : 九竅 ㉾『의학입문』↩

24. 亦不得外泄, 故로 竅滯, 九竅旣滯, 則六腑陽氣 :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

25. 通通和 : \*通和 ㉾『의학입문』↩

26. 癰疽 : \*癰疽 ㉾『의학입문』↩

27. 不知 : 不和 ㉾문맥상 ↩

28. 이 : 이니 ㉾문맥상 ↩

29. 疽 : 疽 ㉾문맥상 ↩

30. 否寒 : \*否塞 ㉾『의학입문』↩

31. 爲 : \*爲痛 ㉾『의학입문』↩

32. 病 : \*陽病 ㉾『의학입문』↩

33. : 하며 ㉾문맥상 ↩

34. 後始 : 復始 ㄹ『의학입문』↩
35. 手足 : \*平旦 ㄹ『의학입문』↩
36. 病在 : 病在心 ㄹ『의학입문』↩
37. 場食 : 溫食 ㄹ『의학입문』↩
38. 持於死夏 : 持於夏 ㄹ『의학입문』↩
39. 濕也濡衣 : 濕地濡衣 ㄹ『의학입문』↩
40. 愈於於冬 : 愈於冬 ㄹ『의학입문』↩
41. 目 : \*日 ㄹ『의학입문』↩
42. 癒 : 愈 ㄹ『의학입문』↩
43. 西 : 必 ㄹ『의학입문』↩
44. 實邪 : \*虛邪 ㄹ『의학입문』↩
45. 微邪 : \*賊邪 ㄹ『의학입문』↩
46. 久吐 : 久坐 ㄹ『의학입문』↩
47. 正徑 : 正經 ㄹ『의학입문』↩
48. 內 : 乃 ㄹ『의학입문』↩
49. 內 : 乃 ㄹ『의학입문』↩
50. 徑 : 經 ㄹ『의학입문』↩
51. 蓋黃散 : 益黃散 ㄹ『의학입문』↩
52. 卑瀉腎湯 : 單瀉心湯 ㄹ『의학입문』↩
53. 椎 : 推 ㄹ『의학입문』↩

54. 五 : 六 ㉠『의학입문』 ㉡

55. 胃上上口 : 胃上口 ㉠『의학입문』 ㉡

56. 胃 : 腎 ㉠『의학입문』 ㉡

57. 藏 : \*張 ㉠『의학입문』 ㉡

58. 亦爲五臟은 使水穀으로 不得久藏이오 : “亦爲五臟使, 水穀不得久藏”으로 보고 번역하였다. ㉡

59. 이 : \*이오 ㉠문맥상 ㉡

60. 肩隨 : 肩垂 ㉠『의학입문』 ㉡

61. 僂附 : 僂俯 ㉠『의학입문』 ㉡

62. 上臟 : \*十一臟 ㉠『의학입문』 ㉡

63. 狎 : 獨 ㉠『의학입문』 ㉡

64. 火衰則爲燥熱이라 : \*火衰則爲寒濕하고 火盛則爲燥熱이라 ㉠『의학입문』 ㉡

### 1.3. 藏珍要編凡例 | 장진요편 범례

一. 授立鍼<sup>65</sup>之法은 先以右手로 挽人之手하고(男左女右) 左手로 按穴處之하야臂<sup>66</sup>將左拇指를 曲折如丁하야 以爪指穴後, 更以右手로 執鍼하고 以拇指端으로 推하야 以次指端으로 挾捺하야 以中指端으로 壓拊左拇指節下하고 以無名指爪肉間으로 挾持側附於左拇指爪甲而甲而<sup>67</sup>右拇指와 及次指를 頻頻微動之際에 名指<sup>68</sup>則輕輕暫推入膚하고 中指로 緊緊停住하야 定分界하되 一動指에 入一分하나니 雖至三四分이라 亦皆倣此니라

-. 엮침(葉鍼)<sup>69</sup>을 자침하는 방법. 먼저 오른손으로 환자의 손을 잡고(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왼손으로 혈이 있는 팔을 눌러 두고 왼쪽 첫째손가락을 ‘丁’모양으로 접어 손톱으로 혈을 가리킨다. 그런 뒤에 오른손으로 침을 잡고 첫째손가락 끝으로 밀며 둘째손가락 끝으로는 끼워 누르고, 셋째손가락 끝으로 왼쪽 첫째손가락 마디 아래에 밀착시키며, 넷째손가락 손톱과 살 사이로 지지하여 왼쪽 첫째손가락 손톱에 옆으로 붙여서 오른쪽 첫째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여러 번 조금씩 움직일 때에 넷째손가락으로 가볍게 잠깐씩 피부 속으로 밀었다가 셋째손가락으로 뽐뽐하게 고정한다. 이 때 단계를 두는데, 1번 손가락을 움직일 때 1푼씩 들어가게 한다. 3-4푼 깊이라도 모두 이렇게 한다.

一. 授銅鍼之法은 曲指拈穴之法이 與立鍼<sup>70</sup>으로 同而授其穴處後에 懸臂執鍼하고 以右拇指端及指<sup>71</sup>端으로 挾付하고 頻頻轉轉之時에 以中指端으로 運氣入送矣니 轉力은 可如馬馳하고 入氣는 平如蠅跡하야 雖過一寸之深이라도 痛不如一分之刺니라

-. 동침(銅鍼)을 자침하는 방법. 손가락을 구부려 경혈을 잡는 방법은 엮침(葉鍼)<sup>72</sup>과 같다. 혈처를 잡은 뒤에 팔에 힘을 빼고 침을 잡고 첫째손가락 끝 및 둘째손가락 끝으로 침을 잡고 여러 번 엮전(捻轉)한다. 이 때 셋째손가락 끝으로

로 기(氣)를 움직여 들여보낸다. 돌리는 힘을 말이 달리는 듯이 하고, 들이는 기운을 파리 자취처럼 하면 자침 깊이가 1치를 넘더라도 통증은 1푼 찌르는 때만 못하다.

一. 補法은 徐徐入穴後에 靜中有動하고 動中有靜하야 沈潛引氣하고 緩緩於氣하며 速振<sup>73</sup> 掩孔하야 勿搖泄氣하라

-. 보법(補法). 서서히 경혈에 자침한 후에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고요함이 있게 하여 가라앉혀 기를 이끌고 기운을 넉넉하게 한다. 그런 뒤 빠르게 침을 뽑고 구멍을 막아 기운이 흔들려 새어나가지 못하게 한다.

一. 瀉法은 緊緊入穴後에 微去暫來要搖爲泄하야 徐振<sup>74</sup> 披孔이면 氣出如筐이니라

-. 사법(瀉法). 단단히 경혈에 자침한 후에 기가 조금 이르면 잠깐 뽑아 기가 움직여 빠져나가게 한다. 그런 뒤에 천천히 침을 뽑고 구멍을 열어 두면 기(氣)가 가득 빠져 나온다.

一. 補中有冷하고 瀉中有溫之法에 與散如聚氣로 導<sup>75</sup> 氣入形之妙를 不可以搜形盡喻也니라

-. 보하는 가운데 차갑게 하고 사하는 가운데 따뜻하게 하는 방법과, 모으는 듯 기(氣)를 흘리고 머물게 하여 기를 들이는 방법은 모습만 따라해서는 모두 깨우칠 수 없다.

一. 拈穴法은 人之長端肥瘦나 各自不同하고 穴之橫直偏斜가 亦不能一也니 人瘦而指長하고 人肥而指短하며 骨大者는 必有太過오 骨小者는 必有不及이니 但因其形取之하면 方得其當이니라

-. 취혈하는 방법. 사람의 신장이나 살집에 따라 각기 다르고, 경혈의 모양도 한결같지 않다. 마른 사람은 손가락이 길고 살찐 사람은 손가락이 짧기 때문에 골격이 큰 사람은 분명 넘치게 측정되고 작은 사람은 분명 모자라게 측정된다. 그러므로 환자의 체형을 근거로 경혈을 잡아야만 맞을 것이다.

一. 入分數法은 先看人之厚薄하고 且察穴之深淺하면 或二三分或一二寸이라도 定其限界而左右均平하야 使不得一毫之有差하나니라

-. 자침하는 깊이. 먼저 환자의 살집을 보고 또 경혈의 깊이를 살핀다. 2-3푼, 1-2치라도 한계를 정해두고 좌우를 균등하게 하여 조금도 차이가 없게 해야 한다.

一. 呼吸法은 定分數하야 入穴後以已之呼吸으로 計數가 或三次或五次或至四五十次而若左穴五次則右穴로 亦然하나니 不偏不倚하야 無過無不及이니라

호흡하는 방법. 자침 깊이를 정해 두고 침을 찌른 뒤에 자기 호흡수를 세어 3·5번에서 40·50번까지로 하되, 왼쪽 혈에 호흡수가 5번이면 오른쪽 혈에도 그렇게 하여 치우치지 않게 하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한다.

一. 寸法은 以男左女右로 大指中指를 圓曲交接如環하야 取中指中節橫紋兩頭盡處를 此爲一寸이니 凡手足尺寸과 及背部橫寸無折法之處에 乃用此法이오 其他는 不必混用이니라

-. 길이를 재는 방법.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첫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을 원이 되도록 둥글게 굽혀 마주 대었을 때 셋째손가락 가운데 마디 횡문 양쪽 끝의 거리를 1촌으로 한다. 팔다리의 척촌과 등의 가로방향 길이와 같이 비율에 따라 나누어 잴 수 없는 곳에서는 이 방법을 쓰고 그 외에는 혼용할 필요가 없다.

一. 投鍼威儀를 如鷹騰空하고 如序<sup>76</sup>下山하며 料數精神을 若水明鏡則神氣自有活動이니 活人切效가 不啻倍從矣니라

-. 침을 쓸 때의 몸가짐을 매가 허공으로 오르는 듯 자고가 산을 내려오는 듯 하고, 수를 헤아릴 때의 정신을 밝고 투명하게 하면 신기(神氣)가 저절로 노닐 것이니 사람을 살리는 탁월한 효과가 배 이상이 될 것이다.

一. 治病之法은 一一詳列於後나 然이나 慣其法而後에 可以得其妙고 得其妙而後에 可以與言이니 穴有大小하야 鍼難의 中이니 知其中而拔之하면 十分速差矣니라 且病之或大同小異之處로 小同大異之處가 各自懸殊하니 其玄妙之手端은 以眼傳眼하고 以心而不可以曲盡形論也니라

- .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뒤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열거하였으나 그 방법을 익힌 뒤에 오묘함을 얻을 수 있고, 오묘함을 얻은 뒤에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경혈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여 침으로 적중시키기 어려우니 경혈의 중심을 알고 자침한 뒤 뽑아내면 모든 병이 빠르게 낫는다. 또 병들은 비슷한 듯하지만 다르고, 다른 듯하지만 비슷하여 각기 다양하므로 그 현묘한 의술은 직접 보여줌으로써 전할 수 있고 생각으로는 전모를 소상히 다할 수 없다.

65. 立鍼 : \*葉鍼@문맥상 ↩

66. 按穴處之하야臂 : \*按穴處之臂하야 ↩ 문맥상 ↩

67. 甲而 :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

68. 名指 : \*無名指 ↩ 문맥상 ↩

69. 엽침(葉鍼) : 원문에 “立鍼”으로 되어 있으나 글자 그대로는 풀리지 않는다. 권말 별법(別法) 소아간기(小兒癇氣)에 동침(銅鍼)에 대비해 엽침(葉鍼)이 사용된 것을 근거로 엽침(葉鍼)으로 보고 번역하였다. ↩

70. 立鍼 : \*葉鍼 ↩ 문맥상 ↩

71. 指 : \*次指 ↩ 문맥상 ↩

72. 엽침(葉鍼) : 앞의 조문 참조 ↩

73. 振 : \*拔 ↩ 문맥상 ↩

74. 振 : \*拔 ↩ 문맥상 ↩

75



75. 尊 : \*存 ㉠ 문맥상 ↩

76. 序 : \*鷗 ㉠ 문맥상 ↩

1.4.1. 一, 臟腑中風〔附救急〕| 1. 장부중풍〔구급〕

卒中風, 不省人, 痰延<sup>77</sup> 壅塞, 精神昏憤, 言語蹇涉. ○風症은 以痰爲患故로 開關化痰爲先, 急則祛生<sup>78</sup>, 緩則順氣, 冬<sup>79</sup>則活血.

갑자기 중풍으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래가 끓어 목을 막으며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 풍증은 담(痰) 때문에 병든 것이므로 우선 숨길을 열고 가래를 삭인다. 위급할 때에는 풍사(風邪)를 몰아내고,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순기(順氣) 시키며, 오래된 경우에는 활혈(活血) 시킨다.

- 합곡〔治三分, 極補三呼〕, 태충〔治三分, 極補九呼〕.
- 합곡〔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태충〔3푼 찌르고 9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sup>77</sup>. 痰延 : \*痰涎 ㉠문맥상 ㉡

<sup>78</sup>. 生 : \*風 ㉠『제중신편』 ㉡

<sup>79</sup>. 冬 : \*久 ㉠『제중신편』 ㉡

### 1.4.2. 二, 暴瘡 | 2. 꼭음

語澁皆屬風. 腎虛內奪, 則舌瘡足癱.

말을 잘 못하는 것은 모두 풍(風)에 속한다. 신(腎)이 허하여 속이 쇠약해지면 혀를 못 움직여 말하지 못하고(舌瘡) 다리를 쓰지 못한다.

- 합곡〔治三分, 補七呼〕, 太衝〔治三分, 補七呼〕.〔實則加三寸<sup>80</sup>一寸, 補二十呼.〕
- 합곡〔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태충〔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실증에는 여기에 삼리를 1치 찌르고 12번 내쉴 동안 보한다.〕

---

<sup>80</sup>. 三寸 : \*三里 ㉠문맥상 ㉡

### 1.4.3. 三, 口眼喎斜 | 3. 구안와사

風中<sup>81</sup> 脈也.

풍사가 혈맥에 적중한 것이다.

- 頰車〔治一寸, 補二十呼〕, 肩井〔治一寸, 補二十呼. 肩髃・曲池, 一寸式, 補二十呼, 數次換治〕, 合谷〔治三分, 補七呼〕.〔以上并右病治左.〕
- 협거〔1치 찌르고 12번 내쉴 동안 보한다〕, 견정〔1치 찌르고 12번 내쉴 동안 보한다. 견우・곡지, 1치씩 찌르고 12번 내쉴 동안 보한다. 여러 번 경혈을 바꿔가며 치료한다〕, 합곡〔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이와 같이 하여 오른쪽 병에 왼쪽 경혈을, 왼쪽 병에 오른쪽 경혈을 쓴다.〕

---

<sup>81</sup>. 辺 : 血 『제증신편』 ←

#### 1.4.4. 四, 手足癱瘓 | 4. 수족탄탄

氣血虛而痰火流注也. 遷延不死者, 如木根未衰, 而一技光瘳<sup>82</sup>. ○男忌左, 女忌右.

기혈(氣血)이 허한데 담화(痰火)가 흘러든 것이다. 오래 앓아도 죽지 않는 것은 나무의 뿌리는 쇠약하지 않았지만 가지 하나가 먼저 시든 것과 같기 때문이다. ○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생기면 좋지 않다.

- 曲池〔治一寸, 補二十呼. 肩髃・肩井, 各一寸, 補二十呼, 幾項<sup>83</sup>換治.〕
- 곡지〔1치 찌르고 12번 내쉴 동안 보한다. 견우・견정, 1치씩 찌르고 12번 내쉴 동안 보한다. 몇 차례 경혈을 바꿔가며 치료한다.〕
- 습곡〔治三分, 補七呼〕
- 함곡〔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足三里〔治一寸, 補二十呼. 絕骨・風市, 各一寸, 補二十呼, 幾項<sup>84</sup>換治〕
- 족삼리〔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절골・풍시, 1치씩 찌르고 12번 내쉴 동안 보한다. 몇 차례 경혈을 바꿔가며 치료한다〕
- 太衝〔治三分, 補七呼〕〔癱則治右, 瘓則治左.〕
- 태충〔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탄(癱)에는 오른쪽 경혈을 쓰고, 탄(瘓)에는 왼쪽 경혈을 쓴다.〕

82. 一技光瘳 : 一枝先瘳 『제중신편』↩

83. 項 : \*次 『문맥상』↩

84. 項 : \*次 『문맥상』↩



#### 1.4.5. 五, 風痺症〔附麻木〕| 5. 풍비증〔마목〕

汗出, 風<sup>85</sup>之, 血凝於膚者則爲風<sup>86</sup>. 痺<sup>87</sup>之爲病, 當半身不遂, 或但臂不遂, 此爲痺. ○三痺者, 風寒濕三氣雜之<sup>88</sup>, 合爲痺也. 無<sup>89</sup>風勝者, 爲行痺, 寒氣勝者, 爲痛痺, 濕氣勝者, 爲着痺也. 右痺左治.

땀 흘린 뒤에 바람을 쏘여 피부에 혈이 응체되면 비(痺)가 된다. 풍(風)으로 병이 들면 반신불수가 되는데, 한쪽 팔만 쓰지 못한다면 이것은 비(痺)이다. ○ 3가지 비병은, 풍·한·습 3가지 기운이 섞여 들어와 합쳐져 비(痺)가 된 것이다. 풍기가 우세하면 행비(行痺), 한기가 우세하면 통비(痛痺), 습기가 우세하면 착비(著痺)가 된다. 오른쪽 비증에는 왼쪽 경혈을, 왼쪽 비증에는 오른쪽 경혈을 쓴다.

- 曲池〔治一寸, 補二十呼〕, 合谷〔治三分, 補七呼〕
- 곡지〔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합곡〔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三里〔治一寸, 補二十呼〕, 太衝〔治三分, 補七呼〕
- 삼리〔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태충〔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85. : \*吹 ㉠『동의보감』↩

86. 風 : \*痺 ㉠『동의보감』↩

87. 痺 : \*風 ㉠『동의보감』↩

88. 雜之 : 雜至 ㉠『동의보감』↩

89. 無 : \*其 ㉠『동의보감』↩





#### 1.4.6. 六, 歷節風〔節節痛〕| 6. 역절풍〔절절통〕

內因血虛有火, 外因風濕生痰, 編<sup>90</sup>歷關節, 痛如虎咬, 夜則痛甚, 血行於陰也. 蓋因飲酒當風, 或血虛熱淋<sup>91</sup>, 或受<sup>92</sup>取冷所致. 在上多屬風, 左下多屬濕. ○肢節腫痛, 痛屬火, 腫屬濕, 兼受風寒發, 動經<sup>93</sup>之中, 治<sup>94</sup>熱流注肢節之間. ○右病左治.

내인으로 혈이 허한데 화가 있거나, 외인으로 풍습으로 담이 생겨서 발생한다. 두루 관절을 돌아다니며 호랑이가 문 것 같이 아픈데,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은 혈이 음분을 돌기 때문이다. 대게 술을 마시고 바람을 쏘였거나 혈이 허한데 열이 들끓거나 습기를 받은 상태로 찬 기운을 얻었기 때문이다. 상부에 생기는 것은 풍(風)에 속하고, 하부에 생기는 것은 습(濕)에 속한다. ○사지 관절이 붓고 아플 때, 아픈 것은 화(火)에 속하고 붓는 것은 습(濕)에 속한다. 여기에 풍한을 받으면 발작하는데, 경락 속에서 움직여 습열이 사지 관절에 흘러들게 되기 때문이다. ○오른쪽에 생긴 경우는 왼쪽 경혈을, 왼쪽에 생긴 경우는 오른쪽 경혈을 쓴다.

- 曲池〔治三分, 補二十呼〕, 合谷〔治三分, 補七呼〕
- 곡지〔3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합곡〔3치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足三里〔治一寸, 補二十呼〕, 太衝〔治三分, 補七呼〕
- 족삼리〔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태충〔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90. 編 : \*遍 ㉠『동의보감』↩

91. 熱淋 : \*熱沸 ㉠『제증신편』↩

92. 受 : \*受濕 ㉠『제증신편』↩

93. 經 : \*經絡 ㉠『제중신편』↩

94. 治 : \*濕 ㉠『제중신편』↩

#### 1.4.7. 七, 破傷風 | 7. 파상풍

多由亡血, 汗下過多, 或產婦及病瘡人擊破皮肉, 風邪外襲, 寒熱口噤目斜, 角弓反張.

대게 망혈(亡血) 때문이니, 한법이나 하법을 지나치게 시킨 경우, 혹은 출산한 부인이나 창(瘡)이 있는 사람이나 피부와 살이 터졌을 때 풍사가 밖에서 침입하여 발생한다. 오한과 발열이 있고 입을 악다물며 눈이 비뚤어지고 활처럼 몸을 뒤집는다.

- 합곡〔治三分, 補七呼〕, 太衝〔治三分, 補七呼〕
- 합곡〔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태충〔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風市〔治一寸, 補二十呼〕
- 풍시〔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4.8. 八, 傷寒太陽症 | 8. 상한태양증

陽症은 卽太陽表症也. 頭痛身熱, 無汗惡寒. 尺寸浮緊, 傷寒, 〇浮緩, 傷風也. 〇尋掌感冒, 不敢輕發汗, 惟泄其氣, 而宜平和之. 緊은 急也糾也.

양증은 곧 태양표증이다. 머리가 아프고 몸에서 열이 나며 땀이 나지 않고 오한이 든다. 척맥이 부긴(浮緊)하면 상한(傷寒)이고, 부완(浮緩)하면 상풍(傷風)이다. 〇 일반 감모에는 경솔하게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 발한시키면 기운을 빠져나가게 할 뿐이니 화평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긴(緊)’은 “팽팽하다”, “꼬여있다”는 뜻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 列缺〔治一分, 瀉七呼〕
- 外關〔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4.9. 九, 傷寒陽明 | 9. 상한양명

頭痛, 鼻乾, 不眠, 發熱, 無汗. 尺寸長而微洪經病, 長而沈數腑病.

머리가 아프고 코가 마르며 잠들지 못하고 열이 나며 땀이 나지 않는다. 척맥과 촌맥이 장(長)하면서 조금 홍(洪)하면 경병(經病)이고, 장(長)하나 침삭(沈數)하면 부병(腑病)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 內關〔治三分, 瀉七呼〕
- 外關〔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내관〔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列缺〔治一分, 瀉七呼〕, 三陰交〔治三分, 補九呼〕
- 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삼음교〔3푼 찌르고 9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4.10. 十, 傷寒少陽 | 10. 상한소양

耳聾, 脇痛, 寒熱, 嘔而口苦, 尺寸但弦. 半表半裏, 往來寒熱, 能和其內熱, 解其外邪, 傷寒方之正道.

귀가 들리지 않고 옆구리가 아프며 한열이 왕래하고 구토하며 입맛이 없고, 척맥과 촌맥이 현하기만 하다. 사기가 반표반리에 있어 한열이 왕래하는 경우에 내열(內熱)과 외사(外邪)를 화해시킬 수 있으니 상한방의 바른 방법이다<sup>95</sup>.

- 外關〔治三分, 補五呼〕, 列缺〔治一分, 瀉七呼〕
- 外關〔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 公孫〔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臨泣〔治三分, 補七呼〕
- 임읍〔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sup>95</sup>. 사기가 반표반리에 있어 한열이 왕래하는 경우에 내열(內熱)과 외사(外邪)를 화해시킬 수 있으니 상한방의 바른 방법이다 : 『제중신편』에는 소시호탕(小柴胡湯)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다. ←

1.4.11. 十一, 傷寒太陰 | 11. 상한태음

腹痛, 咽乾, 自利. 尺寸沈實有力, 當下, 沈細無力, 當溫. ◯陰症, 厥冷, 吐利, 不渴, 靜  
絀<sup>96</sup>. 感傷風寒, 頭痛身疼, 四肢逆冷, 胸腹作痛, 嘔吐泄瀉, 或內傷生冷, 外感風冷.

배가 아프고 목이 건조하며 설사를 한다. 척맥과 촌맥이 침(沈)·실(實)하며 힘이 있으면 하법을 써야 하고, 침(沈)·세(細)하고 힘이 없으면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 상한 음증에는 손발이 차고 토하고 설사하며 갈증이 없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 풍한의 사기에 감촉되면 머리와 몸이 아프고 손발 끝부터 차가우며 가슴과 배가 아프고 토하며 설사하니, 안으로 날 것이나 찬 것을 먹었거나 밖으로 풍냉에 상한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後谿〔治四分, 瀉七呼, 吐瀉則補〕
- 후계〔4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토하고 설사하면 보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七呼, 虛則去公孫, 加照海, 治三分, 補七呼〕
- 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허하면 공손 대신 조해를 쓰는데,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96</sup>. 絀 : \*蹇 ㄹ 문맥상 ↩

#### 1.4.12. 十二, 傷寒少陰 | 12. 상한소음

舌乾, 口燥. 尺寸沈實有力, 當下, 沈微無力, 當溫之.

혀가 마르고 입이 건조하다. 척맥과 촌맥이 침(沈)·실(實)하며 힘이 있으면 하법을 써야 하고, 침(沈)·미(微)하고 힘이 없으면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後谿〔治四分, 瀉七呼, 實則去後谿, 加內關, 三分, 瀉七呼〕
- 후계〔4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실증에는 후계 대신 내관을 쓰는데,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照海〔治三分, 補七呼〕.〔實則加公孫, 治三分, 補七呼〕
- 조해〔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실증에는 공손을 더하는데,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1.4.13. 十三, 傷寒厥陰 | 13. 상한결음

煩滿, 囊拳. 尺寸沈實有力, 當下, 沈遲無力, 當溫.

답답하고 그득하며 음낭이 오그라들고 혀가 말린다. 척맥과 촌맥이 침(沈)·실(實)하며 힘이 있으면 하법을 써야 하고, 침(沈)·지(遲)하고 힘이 없으면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 後谿〔治三分, 瀉七呼, 虛則補〕
- 外關〔3분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후계〔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허증에는 보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 申脈〔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신맥〔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4.14. 十四, 傷寒裏症 | 14. 상한리증

陽明入臍<sup>97</sup>, 潮熱, 不大便, 惡熱, 狂譫, 發<sub>陽</sub><sup>98</sup>, 腹滿, 澼澼汗出, 裏症悉俱, 脈實有力.

양명의 사기가 부(臍)로 들어와서, 조열이 나고 대변을 보지 못하며 열을 싫어하고 미쳐서 헛소리를 하며 갈증이 나고 배가 그득하며 땀이 줄줄 나면 이증(裏證)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다. 맥은 실(實)하고 힘이 있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 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內關〔治三分, 瀉七呼〕, 公孫〔治三分, 補七呼〕
- 내관〔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列缺〔治一分, 瀉七呼〕, 申脈〔治三分, 補七呼〕
- 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신맥〔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後谿〔治四分, 瀉七呼〕
- 후계〔4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以上先而又沈重, 治委中, 一寸, 二十呼, 刺血絡, 出血.〕
- 〔위의 경혈로 먼저 치료하였으나 낫지 않고 심해지면 위중을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 뒤 혈락(血絡)을 찌러 출혈시킨다.〕

<sup>97</sup>. 臍 : \*臍 『제증신편』 ←

98. 陽\* : 渴 ㄹ『제중신편』↩

1.4.15. 十五, 傷寒陰毒 | 15. 상한음독

冷寒用淸<sup>99</sup>, 而身痛若鞭, 六脈沈細. 陰症發斑<sup>100</sup>, 相火乘肺, 但出胸背手足稀少.

식은땀이 나고 손톱이 푸르며 채찍질 당한 듯 몸이 아프고 육맥(六脈)이 침(沈)·세(細)하다. 음증발반(陰證發斑)은 상화(相火)가 폐를 겁박한 때문이니, 가슴·등·손발에만 드문드문 난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 後谿〔治四分, 補七呼〕
- 외관〔3분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후계〔4치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 公孫〔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치 찌르고 7번 보할 동안 보한다〕, 공손〔3치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照海〔治三分, 補七呼〕
- 조해〔3치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99</sup>. 冷寒用淸 : \*冷汗甲青 ㉞『제중신편』↩

<sup>100</sup>. 發斑 : \*發斑 ㉞『제중신편』↩

1.4.16. 十六, 傷寒陽毒 | 16. 상한양독

無汗眼<sup>101</sup>洪<sup>102</sup>, 布<sup>102</sup>遍身班紋<sup>103</sup>, 胸緊若右<sup>104</sup>

땀이 나지 않고 눈이 붉으며 온 몸에 반점이나 무늬가 생기고 가슴이 돌처럼  
긴장되어 있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內關〔治三分, 瀉七呼〕
- 외관 (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내관 (3치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列缺〔治一分, 瀉七呼〕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열결 (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삼음교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七呼〕
- 공손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101. 洪 : \*紅 ㉠『제증신편』↩

102. 布 : \*而 ㉠『제증신편』↩

103. 班紋 : \*斑紋 ㉠『제증신편』↩

104. 右 : \*石 ㉠『제증신편』↩

## 1.4.17. 十七, 陰極似陽〔附鄭聲〕| 17. 음극사양〔정성〕

火浮於外, 發<sup>105</sup>燥<sup>106</sup>擾亂, 狀若陽症, 但身雖煩燥<sup>106</sup>, 而引衣自覆, 口雖燥渴, 而瀨水不下. 脈必沈細無力而不<sup>107</sup>行或無脈. 唇<sup>108</sup>青面黑, 大便自利黑水, 身冷或身熱, 欲坐井地.

화가 겉으로 떠올라 조증(躁證)이 생겨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이 양증(陽症)과 같지만, 몸에 번조가 있으나 옷을 찾아 걸치려 하고 입이 마르고 갈증이 있으나 물을 머금을 뿐 삼키지 않는다. 맥이 반드시 침(沈)·세(細)하고 힘이 없어 뛰지 않거나 맥이 없는 것 같다.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검으며 검은 물 같은 설사를 하고 몸이 차거나 뜨거워 우물 속에 앉으려 한다.

◦鄭聲者, 頻煩也, 只將一句舊言, 重疊頻言也, 虛也.

◦정성(鄭聲)은 자꾸 반복하는 것으로, 했던 말 한 구절을 계속 반복해 말하는 것이니 허증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後谿〔治三分, 補七呼〕
- 外關〔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후계〔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七呼〕照海〔治三分, 補七呼〕
- 公孫〔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조해〔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申脈〔治三分, 補七呼〕
- 申맥〔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105</sup>. 燥 : \*躁 『제증신편』 ←

106. 燥 : \*躁 ㄹ『제중신편』↔

107. 行 : 擊 ㄹ『제중신편』↔

108. 脣<sup>○</sup> : \*○脣 ㄹ문맥상↔

1.4.18. 十八, 陽極似陰〔附譫語發狂〕| 18. 양극사음〔섬어·발광〕

熱伏於內, 身寒<sup>109</sup>, 狀如陰症, 但身雖冷, 而不欲近衣, 神雖昏, 而氣色光潤. 脈必滑數有力而鼓擊.

열이 속으로 숨어들어 몸과 손발이 차가운 모습이 음증(陰證)과 같지만, 몸은 차갑지만 옷을 입으려 하지 않고 정신이 맑지 못하나 안색은 밝고 윤택하다. 맥이 반드시 활(滑)·삭(數)하며 힘 있게 세게 된다.

○譫語者, 亂語無次序, 數數更<sup>110</sup>也, 實也. 發狂者, 熱毒入心, 神昏, 忘笑忘語, 甚者登高喻垣, 陽毒.

○섬어(譫語)는 두서 없이 혼란스럽게 말하는 것으로, 자주 말머리를 바꾸는 것이니 실증이다. 발광(發狂)은 열독이 심으로 들어가 정신이 혼미하고 함부로 웃고 말하는 것으로, 심하면 높은 곳에 오르고 담을 넘으니 양독의 증상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內關〔治三分, 瀉七呼.〕
- 外關〔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내관〔4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列缺〔治一分, 徐瀉七呼.〕後谿〔治四分, 瀉七呼.〕
- 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서서히 사한다.〕후계〔4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四分, 瀉七呼.〕公孫〔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4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以上先治, 而又沈重, 治委中, 一寸, 二十呼, 刺血絡, 出血.〕
- 〔위의 경혈로 먼저 치료하였으나 낫지 않고 심해지면 위중을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 뒤 혈락(血絡)을 찔러 출혈시킨다.〕



---

109. 厥 : \*厥逆 ㄱ『제증신편』↔

110. 短 : \*端 ㄱ『제증신편』↔

#### 1.4.19. 十九, 傷寒煩躁 | 19. 상한번조

煩, 內<sup>111</sup>心中懊憹欲吐之貌, 躁, 則手掉足動, 起臥不安, 皆氣髓火升. 煩主氣, 肺也, 躁主血, 腎也. 先煩而漸躁爲<sup>112</sup>症, 不煩而便發躁, 爲陰症.

번(煩)은 가슴 속이 불편해 토하려 하는 모습이고, 조(躁)는 손과 발을 흔들며 항상 불안한 증상으로 모두 기(氣)가 화(火)를 따라 오른 것이다. 번은 주로 기병(氣病)으로 폐에 원인이 있고, 조는 주로 혈병(血病)으로 신에 원인이 있다. 먼저 번이 있다가 점차 조가 되는 것은 양증(陽症)이고, 번 없이 조만 생긴 것은 음증(陰證)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內關〔治三分, 瀉七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내관〔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列缺〔治一分, 瀉七呼.〕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臨泣〔治三分, 補七呼.〕〔陰症則去內關、列缺, 加後谿, 治四分, 瀉七呼.〕
- 임읍〔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음증에는 내관、열결 대신 후계를 쓰는데, 4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公孫〔治三分, 補七呼.〕
- 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111</sup>. 內 : 乃 『제중신편』 ↩

<sup>112</sup>. 症 : \*陽症 『제중신편』 ↩



## 1.4.20. 二十, 舌胎 | 20. 설태

邪在表, 無胎. 邪初傳裏, 白而滑, 熱深, 則白而濇, 熱深入胃, 則黃. 尖白根黃者, 表多裏少. 熱則紫黑, 或生芒刺, 燥裂, 宜下之. 黑尖者, 虛煩也. 黃而中黑至尖, 或黑亂點者, 熱毒深也.

사기가 겉(表)에 있으면 설태가 없다. 사기가 처음 속(裏)으로 들어가면 태가 희면서 매끈하고, 열이 심하면 태가 희면서 꺼끌거린다. 열이 위(胃)까지 깊이 들어가면 태가 누런데, 혀 끝 쪽만 희고 뿌리 쪽이 누런 것은 사기가 겉에 많고 속에는 적은 경우이다. 열증에는 태가 자흑색인데 까끄라기 같은 것이 일거나 말라서 갈라지기도 하니, 하법을 써야 한다. 혀 끝 쪽만 검은 것은 허번이다. 태가 누런 색인데, 가운데부터 끝까지 검거나 여기저기 검은 점이 있는 경우는 열독이 심한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公孫〔治三分, 補七呼.〕
- 外關〔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內關〔治三分, 瀉七呼.〕或列缺〔一分, 瀉七呼.〕
- 內關〔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혹은 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1.4.21. 二十一, 傷寒戴陽〔附戰慄·煩渴·動悸·動氣〕 | 21. 상한대양〔전율·번갈·동계·동기〕

下虛而陽浮於面, 身熱, 脈沈遲. 面雖赤, 不口滑<sup>113</sup>而黯.

대양증(戴陽證)은 하초가 허하여 양기(陽氣)가 얼굴로 떠오르고 몸에서 열이 나며 맥이 침(沈)·지(遲)하다. 얼굴은 붉지만 생기가 없이 어두운 빛이다.

○戰慄<sup>114</sup>者, 身振而動, 正氣勝邪, 大汗而解.

○전율은 몸이 떨려 움찔거리는 것으로, 정기가 사기를 이긴 징후이니 크게 땀이 난 뒤 풀어진단다.

○煩滑<sup>115</sup>者, 水入即吐者, 名曰水逆. 熱表在不滑<sup>116</sup>, 裏則渴. 陰盛激陽<sup>117</sup>, 燥渴而漱水蒸<sup>118</sup>.

○번갈이 있는 경우에 물을 마시고 바로 토하는 것을 수역(水逆)이라고 한다. 열사가 겉에 있으면 갈증이 없고 속에 있으면 갈증이 있다. 음성격양의 경우에는 는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지만 물을 머금고 삼키지 않는다.

○動悸者. 此因肝熱勝<sup>119</sup>肺, 元氣虛弱, 不能主持, 以致譫語昏沈<sup>120</sup>.

○동계는 간열이 폐를 억눌러 허약한 원기가 버티지 못하여 섬어하고 정신이 혼미한 것이다.<sup>121</sup>

○動氣者, 病人素有積, 人傷人傷寒<sup>122</sup>, 新舊邪, 相搏而痛也.

○동기는 평소 적(積)이 있던 병자가 다시 상한으로 인해 새로운 사기와 기존의 적취가 서로 다투어 아픈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照海〔治三分, 補七呼.〕
- 조해〔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113. 口滑 : 紅活 ㉠『의학입문』 ㉡

114. 戰慄 : 戰 ㉠『제증신편』 ㉡

115. 煩渴 : \*煩渴 ㉠『제증신편』 ㉡

116. 滑 : \*渴 ㉠『제증신편』 ㉡

117. 陰盛激陽○ : \*陰盛膈陽 ㉠『제증신편』 ㉡

118. 蒸 : 不嚥 ㉠『제증신편』 ㉡

119. 勝 : 乘 ㉠『제증신편』 ㉡

120. 昏沈 : \*神昏 ㉠『제증신편』 ㉡

121. 간열이 폐를 억눌러 허약한 원기가 버티지 못하여 섬어하고 정신이 혼미한 것이다. : 『제증신편』에는 ‘상한동계(傷寒動悸)’ 치료 처방인 도씨승양산화탕(陶氏升陽散火湯)이 치료하는 찰공증(撮空證) 설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

122. 人傷人傷寒○ : 復因傷寒 ㉠『제증신편』 ㉡

1.4.22. 二十二, 傷寒結胸〔附痞氣〕| 22. 상한결흉〔비기〕

表未解, 反之<sup>123</sup>, 結胸, 心下按之痛, 連臍腹. 水結胸, 則飲水停胸, 汨汨<sup>124</sup>有聲.

결흉은 표사(表邪)가 풀어지지 않았는데 도리어 하법을 사용하여 생긴다. 심하를 누르면 통증이 배꼽까지 미친다. 수결흉은 마신 물이 가슴에 머물러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것이다.

○痞氣者, 病發於陰, 而反下之, 因作痞也.

○비기는 병이 음경(陰經)에서 생겼는데 도리어 하법을 사용하여 비(痞)가 된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內關〔治三分, 瀉七呼.〕
- 外關〔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內關〔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公孫〔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臨泣〔治三分, 補七呼.〕〔火結胸<sup>125</sup>則或列缺, 一分, 瀉七呼, 或後谿, 四分, 瀉七呼.〕
- 임읍〔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수결흉에는 열결을 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하거나, 후계를 4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sup>123</sup>. 反之 : 反下之 ㉠『제중신편』↩

<sup>124</sup>. 汨汨 : \*汨汨 ㉠『제중신편』↩

<sup>125</sup>. 火結胸 : \*水結胸 ㉠문맥상 ↩





1.4.23. 二十三, 傷寒吐蛔 | 23. 상한에 회충을 토하는 경우

胃寒, 蛔不安, 煩渴, 而漱水不嚥, 雖有火熱<sup>126</sup>, 大忌冷涼物.

위(胃)가 차서 회충이 안정되지 못하면 답답하고 갈증이 나지만 물을 머금고 삼키려고 하지 않는다. 비록 열이 많더라도 차가운 약재는 절대 피해야 한다.

- 別穴〔治三分, 補七呼.〕
- 별혈〔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三陰交〔有熱, 刺. 或加列缺, 一分, 瀉七呼, 或後谿, 四分, 瀉七呼.〕
- 삼음교〔열이 있으면 자침한다. 혹 열결을 더하는데, 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하며, 후계를 더하기도 하는데 4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sup>126</sup>. 火熱 : 大熱 ㉠『제중신편』↩

1.4.24. 二十四 壞症〔附瘥后昏沈〕 | 24. 상한의 괴증(壞症)〔나은 후에 정신이 혼미한 경우〕

治傷寒十四日, 外餘熱未除, 或渴, 或煩, 不能安臥, 不思飲食, 大便不快, 小便黃赤.

상한을 앓은 지 14일이 지났으나 외부의 남은 열이 가시지 않아서 갈증이 나거나 답답하고, 편히 자지 못하며 음식 생각도 없고 대변도 시원하지 않으며 소변이 황적색을 띄는 경우를 치료한다.<sup>127</sup>

○瘥后昏沈者, 或旬無寒熱, 但神昏語錯, 目赤舌乾, 不飲水, 與粥則不思<sup>128</sup>, 形貌如醉者, 此熱而傳心也.

○상한이 나은 뒤에 정신이 혼미한 경우는, 열흘 정도 오한이나 발열 없이 단지 정신이 혼미하며 조리 없이 말하고, 눈이 붉으며 혀가 마르고 물을 마시려 하지 않으며, 죽을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모습이 취한 것 같니, 이것은 열사가 심으로 옮겨간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後谿〔治四分, 瀉七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후계〔4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申脈〔治三分, 補七呼.〕〔實則加內關, 治三分, 瀉七呼.〕
- 신맥〔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실증이면 내관을 추가하는데,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sup>127</sup>. : 『제중신편』에는 삼호작약탕(參胡芍藥湯) 주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128. 與粥則不思 : \*與粥則嘔, 不與則不思 ㄹ『제중신편』↩

1.4.25. 二十五, 百合〔付勞腹·食腹<sup>129</sup>〕| 25. 백합〔노복·식복〕

誤汗誤下, 百脈受病, 點點<sup>130</sup> 欲食不食, 欲臥不臥, 欲行不行, 如寒無熱<sup>131</sup>, 如熱一無<sup>132</sup>, 口苦, 尿赤, 如邪崇者.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잘못 사용하여 온 경맥이 병든 것으로, 말없이 있으며 먹으려 하나 먹지 못하고, 누우려 하나 눕지 못하며, 걸으려 하나 걷지 못하고, 추운 것 같으나 한기가 없으며 더운 것 같으나 열이 없고, 입이 쓰고 소변이 벌겋게 되는 것이 사수(邪崇) 같다.

㉠新瘥后, 氣血虛弱, 而梳洗太早, 而思慮太過而盛<sup>133</sup>而成也.

○노복(勞復)은 갓 나은 뒤에 기혈이 허약한 상태에서 너무 일찍 머리를 빗거나 얼굴을 씻고 지나치게 고민하여 생긴다.

○若中寒症者, 寒毒直入三陰經, 或上從鼻入, 下從足心入而厥冷.

○중한증(中寒症)은 한독(寒毒)이 삼음경으로 곧바로 들어간 것으로, 위로 코를 따라 들어가거나 아래로 발바닥을 따라 들어가서 팔다리가 싸늘해진다<sup>134</sup>.

- 外關〔治三分, 補五呼.〕後谿〔治三分, 瀉七呼.〕
- 外關〔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후계〔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照海〔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조해〔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129</sup>. 付勞腹、食腹 : \*附勞復、食復 ㉠문맥상 ←

<sup>130</sup>. 點點 : 點點 ㉠『제증신편』←

131. 無熱 : 無寒 ㉮『제중신편』↩

132. 一無 : 無熱 ㉮『제중신편』↩

133. 而盛 :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

134. 팔다리가 싸늘해진다 : 『제중신편』에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지가 당기면서 강직되며 말단부터 싸늘해진다.(昏倒, 肢攣强直, 厥冷)”라고 하였다.

↩

1.4.26. 二十六, 外感挾內傷 | 26. 내상을 끼고 온 외감

傷寒挾<sup>135</sup>, 十居八九, 蓋邪之所湊, 而其氣必虛矣.

외감병에서 내상을 끼고 있는 경우가 8-9할이니, 사기(邪氣)가 모이는 곳은 정기가 반드시 허하기 때문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列缺〔治一分, 瀉七呼.〕
- 외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公孫〔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sup>135</sup>. 傷寒挾 : \*傷寒挾內傷 ㉮『제중신편』↩

#### 1.4.27. 二十七, 孕婦傷寒 | 27. 임신부의 상한

忌汗吐下, 當和解.

한법、토법、하법을 써서는 안되고, 화해시켜야 한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列缺〔治一分, 瀉七呼.〕
- 외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公孫〔治三分, 補七呼.〕
- 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1.4.28. 二十八, 痼冷 | 28. 고랭

痼久而冷也. 痼者, 固也. 冷者, 寒之甚也. 臟腑之中, 停寒不散, 謂之沈寒, 寒積不解者, 謂之痼冷也.

고랭(痼冷)은 오래도록 낫지 않는 병으로 몸이 차갑게 된 것이다. ‘고(痼)’는 완고하다는 뜻이고, ‘냉(冷)’은 한(寒)이 심한 것이다. 장부 가운데 한기가 머물러 흠어지지 않는 것을 침한(沈寒)이라고 하고, 한기가 쌓여 풀리지 않는 것을 고랭이라고 말한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三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照海〔治三分, 補五呼.〕申脈〔治三分, 暫瀉五呼.〕
- 조해〔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신맥〔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천천히 사한다.〕



#### 1.4.29. 二十九, 中暑、中暈〔附救急〕| 29. 중서 증갈〔구급〕

中暑者, 深堂水閣靜處而得之, 必而頭痛惡寒, 身形拘急, 支節痛, 煩心, 神<sup>136</sup>而大熱無汗, 爲房室之陰寒所過<sup>137</sup>, 使周身陽氣不神<sup>138</sup>而陰症也.

중서(中暑)는 집 안쪽 으스스한 곳이나 물가의 누각에서 가만히 머물다가 걸린다. 반드시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며 몸이 오그라들고 팔다리 관절이 아프며 가슴이 답답하고 몸에는 열이 심하게 나지만 땀은 나지 않으니, 방의 차가운 기운에 가로막혀 온 몸의 양기(陽氣)가 퍼지지 못하는 것으로 음증이다.

中暈者, 日中勞動而得之, 必苦頭痛, 發躁熱, 惡熱, 大熱<sup>139</sup>, 大渴, 大泄<sup>140</sup>, 無氣而動, 乃大<sup>141</sup>熱外傷肺氣, 症<sup>142</sup>也.

중갈(中暈)은 별 아래서 일을 하다가 걸린다. 반드시 머리가 아프고 번조와 열이 나며 열을 싫어하고 살을 문지르면 매우 뜨거우며 갈증이 심하게 나고 땀을 많이 흘리며 움직일 기운이 없으니, 더운 날씨의 열기가 겉에서 폐를 손상시킨 것으로 양증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
- 외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列缺〔治一分, 徐瀉七呼或九呼.〕〔日久則加後谿, 四分, 或瀉七呼或九呼. 中暑毒則加內關, 三分, 瀉七呼.〕
- 열결〔1푼 찌르고 7번이나 9번 내쉴 동안 서서히 사한다.〕〔얕은 지 오래 되었으면 후계를 더하는데, 4푼 찌르고 7번이나 9번 내쉴 동안 사한다. 서독(暑毒)에 적중된 경우에는 내관을 더하는데,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九呼.〕〔有泄則加後谿, 治四分, 補九呼.〕

- 공손〔3푼 찌르고 9번 내설 동안 보한다.〕〔설사를 하면 후계를 더하는데, 4푼 찌르고 9번 내설 동안 보한다.〕

---

136. 神 : 身 ㉞『제중신편』↩

137. 過 : 遏 ㉞『제중신편』↩

138. 神 : 伸 ㉞『제중신편』↩

139. 大熱 : \*捫肌大熱 ㉞『제중신편』↩

140. 大泄 : \*汗大泄 ㉞『제중신편』↩

141. 大 : 天 ㉞『제중신편』↩

142. 症 : \*陽症 ㉞『제중신편』↩

#### 1.4.30. 三十, 暑症吐瀉 | 30. 서증으로 인한 토사(吐瀉)

暑毒入腸胃, 痛<sup>143</sup>, 惡心, 嘔吐, 泄瀉, 或霍亂轉筋.

서독(暑毒)이 장위(腸胃)로 침입하면 배가 아프고 속이 미식거리며 구토하고 설사한다. **곽란으로 전근(轉筋)이 생긴 경우도 치료한다**<sup>144</sup>.

- 外關〔治三分, 補五呼.〕胸滿痛而煩間<sup>145</sup>, 則加內關〔治三分, 瀉七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가슴이 그득하고 아프며 답답한 경우에는 내관을 추가한다.〔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列缺〔治一分, 瀉七呼.〕
- 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後谿〔治三分, 補七呼或十一呼, 則瀉病止.〕
- 후계〔3푼 찌르고 7-11번 내쉴 동안 보하면 설사가 멈춘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或加公孫〔治三分, 補七呼.〕或加太衝〔治三分, 補七呼.〕甚則加足三里〔一寸, 二十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을 더하기도 한다.〔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태충을 더하기도 한다.〔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심한 경우에는 족삼리를 더한다.〔1촌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

<sup>143</sup>. 痛 : 腹痛 ㉠『제중신편』↩

<sup>144</sup>. 곽란으로 전근(轉筋)이 생긴 경우도 치료한다 : 『제중신편』에는 육화탕(六和湯)의 주치증으로 나온다. ↩

<sup>145</sup>. 煩間 : \*煩悶 ㉠문맥상 ↩



1.4.31. 三十一, 中濕〔付瘴濕〕| 31. 중습〔장습〕

面色浮澤, 腹脹, 倦怠, 或一身熏<sup>146</sup>着, 久則浮腫喘滿.

얼굴이 들뜨고 번들거리며, 배가 창만하고, 권태로우며 온 몸이 무겁기도 하다. 오래되면 부종이 생기고 숨이 차며 그득하다.

㊦瘴濕者, 山嵐瘴氣, 及出遊遠, 方服<sup>147</sup>水土, 吐瀉不利<sup>148</sup>.

◦장습은 산람장기(山嵐瘴氣)나 멀리 떠난 곳의 물과 음식이 맞지 않아 구토하고 설사하는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列缺〔治一分, 瀉七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公孫〔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146</sup>. 熏 : \*重 ㉞『제중신편』↩

<sup>147</sup>. 方服 : 不服 ㉞『제중신편』↩

<sup>148</sup>. 不利 : \*下利 ㉞『제중신편』↩

### 1.4.32. 三十二, 骨蒸 | 32. 골증

嗜欲勞傷, 眞水枯渴, 陰火上<sup>149</sup>, 發蒸蒸之燥熱, 其症<sup>150</sup>嗽發熱. 陰氣不足, 血氣不榮, 精神恍惚, 日漸勞劇也.

욕심껏 생활하고 과로로 몸을 상해서 진수(眞髓)가 마르고 음화가 타올라 찌는 듯이 조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증상은 기침을 하고 열이 난다. 음기가 부족하고 혈기를 기르지 못한 것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날로 허세가 극심해진다.

- 합곡〔治三分, 補七呼.〕太衝〔治三分, 補七呼.〕
- 합곡〔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태충〔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列缺〔治一分, 瀉七呼.〕
- 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或<sup>151</sup>列缺, 治足三里〔一寸, 二十呼.〕絶骨〔一寸, 二十呼.〕湧泉〔治三分, 瀉七呼.〕
- 열결 대신 족삼리〔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절골〔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용천〔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을 쓰기도 한다.

<sup>149</sup>. 尖 : \*焔 ㉠『제중신편』↩

<sup>150</sup>. 咬 : \*咳 ㉠『동의보감』↩

<sup>151</sup>. 玄 : \*去 ㉠문맥상 ↩



### 1.4.33. 三十三, 陰虛火動 | 33. 음허화동

潮熱, 盜汗, 咳嗽, 吐痰, 咯血, 午後至夜發熱, 面赤脣紅, 形容消瘦, 腰痛脚痠, 遺精夢泄.

조열、도한、해수、토담、객혈이 있고, 오후에서 밤까지 열이 나며, 얼굴이 빨갛고 입술이 붉으며 몸이 마르고 허리가 아프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유정과 몽설을 한다.

- 內關〔治三分, 暫瀉五呼.〕公孫〔治三分, 極補五呼.〕
- 내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천천히 사한다.〕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 〔以上治降火症. 外關、公孫、照海, 并治三分, 極補五呼. 或以三陰交、公孫, 并治三分, 極補五呼, 幾次換治.〕
- 〔이것으로 화증을 치료하여 내린다. 외관、공손、조해를 모두 3푼씩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또는 삼음교、공손을 모두 3푼씩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몇 차례 경혈을 바꿔가며 치료한다.〕



#### 1.4.34. 三十四, 食傷 | 34. 식상

和胃健脾, 能進飲食. 蓋內傷症, 脾胃中有宿食, 故不嗜食也.

위(胃)를 조화롭게 하고 비(脾)를 건강하게 하면 음식을 먹게 할 수 있다. 내상 증에는 비위 가운데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있어서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甚則三里, 一寸, 二十呼. 又治中脘.〕
- 〔심한 경우에는 삼리를 더하는데,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 또 중완에 자침한다.〕

1.4.35. 三十五, 痰滯〔附倒飽〕| 35. 담체〔도포〕

固<sup>152</sup> 氣虛痰盛, 飲食不能消化也.

기가 허하고 담이 성하여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한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五呼.〕〔或加三里, 治一寸, 補二十呼.〕
- 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또는 삼리를 더하는데,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52. 固 : \*因 [문맥상](#) ↩

#### 1.4.36. 三十六, 宿滯 | 36. 숙체

宿食不化, 見食而惡心.

소화되지 않은 숙식(宿食)으로 음식을 보면 미식거린다.

- 外關、後谿
- 외관、후계
- 三陰交〔胎中不可.〕外關〔治三分, 補三呼.〕公孫〔治三分, 補五呼, 治孕婦食滯.〕
- 삼음교〔임신 중에는 쓸 수 없다.〕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하는데, 임산부의 식체를 치료한다.〕

#### 1.4.37. 三十七, 虛勞症 | 37. 허로증

勿論陰陽, 皆因水火濟<sup>153</sup>, 但以調化<sup>154</sup>心腎爲主, 兼補脾胃, 則飲食進, 而氣血自生, 精神光滿.

음증과 양증에 상관 없이 모두 수(水)와 화(火)가 교제(交濟)하지 못하여 생겨난다. 그러므로 단지 심(心)과 신(腎)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아울러 비위를 보하면 음식을 먹게 되어 기혈이 저절로 생겨나고 정신이 맑고 충만해 진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照海〔治三分, 補五呼.〕
- 조해〔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53. 濟 : \*不濟 ㉠『제중신편』↩

154. 化 : \*和 ㉠『제중신편』↩

### 1.4.38. 三十八, 遺精夢泄 | 38. 유정몽설

閉藏者, 腎也, 疏泄者, 肝也, 皆有相火, 其系屬心. 心君火也, 爲物所感則動, 精自走, 雖不交會, 暗流疏泄. 或腎虛漏精, 或眞元久虧, 而或屬鬱者居多.

간직하는 것은 신(腎)이고, 내보내는 것은 간(肝)이다. 모두 상화(相火)를 가지고 있고 심(心)에 연결되어 있다. 심은 군화(君火)로서 대상에 자극을 받으면 움직인다. 그러면 정(精)이 저절로 내달리게 되어 교합하지 않더라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온다. 신이 허하여 정이 새어 나오거나 진원이 오래도록 줄어들어 생기며, 울체되어 생기는 경우도 많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照海〔治三分, 極補五呼.〕
- 조해〔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 1.4.39. 三十九, 白淫症 | 39. 백음증

愚<sup>155</sup> 想無窮, 所願不成, 或入房太甚, 宗筋弛, 而發爲痿, 及爲白淫. 莖中作痛, 痛極則痒, 或陰莖挺縱不收, 或出白物如精, 隨尿而下, 宜降心火.

생각이 끊이지 않으나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방사를 심하게 하여 종근(宗筋)이 늘어지면 양위(陽痿)가 되고 백음(白淫)이 생긴다. 음경 가운데 통증이 있고 통증이 심하면 가려우며, 음경이 늘어져 수축되지 않거나 정액 같이 흰 것이 나와 소변을 따라 내려오기도 하니 심화를 내려야만 한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內關〔治三分, 瀉七呼.〕
- 外關〔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內關〔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155</sup>. 愚 : 思 『동의보감』↩

1.4.40. 四十, 氣<sup>156</sup>、逆氣 | 40. 상기·역기

上氣者, 肺藏氣, 氣有餘, 則喘咳上氣.

상기는, 폐에서 기를 갈무리하는데 기가 남아돌면 숨이 차고 기침을 하며 상기가 생긴다.

逆氣者, 自腹中火時時上衝. 逆則頭重眩, 必先下氣, 氣降則火自降矣.

역기는 배 속에 있는 화(火)가 때때로 위로 치미는 것이다. 기가 거슬러 오르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우니 반드시 먼저 기를 내려야 한다. 기가 내려가면 화가 저절로 내려간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五呼.〕或加內關〔治三分, 瀉七呼.〕
- 公孫〔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또 내관을 더하기도 한다.〔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156. 氣 : \*上氣 ㉠『제중신편』↩

1.4.41. 四十一, 驚悸怔忡症 | 41. 경계·정충

心中躁動, 惕惕如人將捕, 無時而作, 因驚悸久而成. 肥人多濕疾, 瘦人多血虛.

정충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누가 잡아갈 듯이 두려워하는 증상으로 아무 때고 발작한다. 경계가 오래되어 생긴다. 살찐 사람은 습(濕)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마른 사람은 혈허(血虛)인 경우가 많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內關〔治三分, 瀉二十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내관〔3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臨泣〔治三分, 暫瀉二十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임읍〔3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천천히 사한다.〕
- 不甚, 別或補.
-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혈(別穴)을 보하기도 한다.



#### 1.4.42. 四十二, 健忘症 | 42. 건망증

思慮過多, 心傷則血耗散, 神<sup>157</sup>, 脾傷則胃氣衰, 而慮尤深. ○治法, 養心血, 理脾土.  
怔忡久則健忘, 由心脾血少也.

지나친 고민으로 심(心)을 상하면 혈이 소모되고 흩어져 신이 머물지 못하고, 비(脾)를 상하면 위기(胃氣)가 쇠약해지고 고민이 더 깊어진다. ○ 심혈을 기르고 비토를 다스려 치료한다. 정충이 오래되면 건망이 생기는 것은 심비의 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臨泣〔治三分, 補五呼.〕
- 隱白〔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sup>157</sup>. 神 : 神不守舍 ㄹ『제중신편』↩

#### 1.4.43. 四十三, 癲癇 | 43. 전간

痰在膈間, 眩而不仆, 痰在膈上, 眩甚仆倒. 大人曰癲, 小兒曰癇, 皆由邪氣逆上陽分, 亂于頭中. 癲者, 呻吟<sup>158</sup>, 甚則僵仆, 尋<sup>159</sup>常不樂, 言語無論<sup>160</sup>, 如醉如癡. 癇者, 卒然暈倒, 咬牙作聲, 吐沫, 不省, 隨即便省. ○病而先身熱而脈浮, 六腑之病, 易治也. 先身冷而脈沈者, 五臟病, 難治也.

담이 흉격 사이에 머무르면 어지러워도 졸도하지는 않지만, 담이 흉격 위에 있으면 매우 어지럽고 졸도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전(癲)이라고 하고 소아의 경우에는 간(癇)이라고 한다. 모두 사기(邪氣)가 양분(陽分)으로 거꾸로 치솟아 머릿속을 어지럽힌 것이다. 전(癲)은 신음 소리를 내고 심하면 졸도하며 항상 즐겁지 않고 취하거나 미친 듯 두서없이 말한다. 간(癇)은 갑자기 졸도하여 이를 악다물고 소리를 내며 거품 섞인 침을 토해내고 의식이 없다가 뒤이어 곧 깨어난다. ○병이 났을 때, 먼저 몸에서 열이 나고 맥이 부(浮)하면 육부(六腑)의 병으로 쉽게 치료된다. 먼저 몸이 차갑고 맥이 침(沈)하면 오장(五臟)의 병으로 치료하기 어렵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後谿〔治三分, 瀉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후계〔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 臨泣〔治三分, 暫瀉五呼.〕
- 임읍〔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천천히 사한다.〕

<sup>158</sup>. 甚 : 연문(衍文)으로 번역하지 않았다. 『제중신편』 ↩

<sup>159</sup>. 尋 : 心 『제중신편』 ↩

<sup>160</sup>. 論 : 倫 『제중신편』 ↩



## 1.4.44. 四十四, 癲狂 | 44. 전광

癲, 陰盛多喜, 狂, 陽盛多怒, 蓋心肝二經火盛. 狂爲痰實, 癲爲心血少, 治法, 俱豁痰順氣, 清火平肝. ○癲謂僵仆不省, 狂爲妄言妄走. ○胃大腸實熱燥火鬱結成狂.

전(癲)은 음(陰)이 성하여 지나치게 기빠하고 광(狂)은 양(陽)이 성하여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으로, 심(心)과 간(肝) 두 경맥의 화(火)가 왕성한 경우이다. 광은 담(痰)이 실한 것이고 전은 심혈이 적은 것으로, 치료 방법은 모두 담을 삭이고 기를 순조롭게 하며 화를 식히고 간기를 고르게 한다. ○ 전은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것이고, 광은 함부로 지껄이며 마구 내달리는 것이다. ○ 위·대장의 실열(實熱)로 조기(燥氣)와 화기(火氣)가 울결되어 광증이 된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內關〔治三分, 瀉四十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내관〔3푼 찌르고 40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臨泣〔治三分, 暫瀉四十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임읍〔3푼 찌르고 40번 내쉴 동안 천천히 사한다.〕

#### 1.4.45. 四十五, 衄血 | 45. 코피

陽明熱鬱, 口鼻出血. 衄血出於肺.

양명에 열사(熱邪)가 울결되면 입과 코에서 피가 난다. 코피는 폐에서 나온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七呼.〕
- 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1.4.46. 四十六, 嘔血吐血 | 46. 구혈·토혈

大<sup>161</sup>病, 雖挾痰, 治火則血之<sup>162</sup>

화(火)로 인한 병에는 비록 담(痰)을 동반했다 하더라도 화를 다스리면 피가 멈춘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外關〔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又治足三里, 治一寸, 二十呼.〕
- 〔또 족삼리를 쓰는데,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

---

<sup>161</sup>. 大 : \*火 ㉠『제중신편』↩

<sup>162</sup>. 之 : \*止 ㉠『제중신편』↩

1.4.47. 四十七, 咳血嗽血 | 47. 해혈·수혈

咳血者, 咳甚出血, 屬肝熱<sup>163</sup>. 嗽血者, 痰喘<sup>164</sup>帶血, 屬脾熱.

해혈(咳血)은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피가 나는 것으로, 폐열(肺熱)에 속한다.  
수혈(嗽血)은 기침 할 때 나온 가래에 피가 섞여 있는 것으로, 비열(脾熱)에 속한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五呼.〕〔或加列缺, 治一分, 瀉五呼.〕
- 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을 더하기도 하는데, 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sup>163</sup>. 肝熱 : \*肺熱 ㉠『제증신편』↩

<sup>164</sup>. 喘 : \*嗽 ㉠『제증신편』↩

1.4.48. 四十八, 便血 | 48. 변혈

內因濕熱, 酒色七情, 外感六陰<sup>165</sup>, 氣血逆亂.

내인으로 생긴 습열, 주색(酒色), 칠정(七情), 외감육음으로 기혈이 혼란한 것이다.

- 手三里〔治一寸, 二十呼.〕又治外關〔治三分, 補三呼.〕
- 수삼리 (1치 짜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 또 외관을 쓴다 (3푼 짜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七呼.〕申脈〔治三分, 瀉七呼.〕
- 공손 (3푼 짜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신맥 (3푼 짜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sup>165</sup>. 陰 : \*淫 ㉠『제증신편』↩



1.4.49. 四十九, 齒衄舌衄 | 49. 치늑·설늑

齦者屬胃, 齒者屬腎, 三經<sup>166</sup>相并, 血出牙縫. ◦舌衄者, 血從舌出.

잇몸은 위(胃)에 속하고 이는 신(腎)에 속하므로 두 경맥이 서로 다투면 이와 잇몸 사이에서 피가 난다. ◦설늑은 피가 혀에서 나는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公孫〔治三分, 補七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列缺〔治一分, 瀉七呼.〕
- 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166. 三經 : \*二經 ㉠『제중신편』↩

#### 1.4.50. 五十, 血汗 | 50. 혈한

膽受熱, 血忘行, 則爲血汗. ○大喜傷心, 氣散, 則血隨氣而行, 汗出汚衣赤色.

담이 열을 받아 혈이 멋대로 움직이면 혈한(血汗)이 된다. ○너무 기뻐하여 심(心)을 상해서 기가 흩어지면 혈이 기를 따라 흘러서 땀이 옷을 붉게 적신다.

- 外關〔治三分, 補七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外關〔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照海〔治三分, 補五呼.〕
- 조해〔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4.51. 五十一, 九竅出血 | 51. 구규출혈

卒大驚, 則九竅血而溢出.

갑자기 매우 놀라면 구규(九竅)로 혈이 넘쳐 나온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三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極補七呼.〕
- 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 1.4.52. 五十二, 虛煩不眠 | 52. 허번불수

身不熱, 頭目昏疼, 咽燥不渴, 淸淸不寐, 或心煩擾不步<sup>167</sup>, 皆虛煩.

몸에서 열이 나지 않지만 머리와 눈이 맑지 못하고 아프며 목이 건조하나 갈증은 없고, 정신이 또렷해 잠들지 못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 편안하지 못한 것으로 모두 허번이다.

○大病後虛弱, 及老人陽氣衰, 不寐.

○ 큰 병을 앓은 후에 허약해졌거나 노인의 양기가 쇠약하면 잠들지 못한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외감〔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極補五呼. 或去加照海, 治三分, 極補七呼.〕
- 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공손 대신 조해를 쓰기도 하는데,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

<sup>167</sup>. 步 : \*寧 ㉠『제증신편』↩

#### 1.4.53. 五十三, 失音 | 53. 실음

感冒風寒, 言語不出, 咽乾鼻涕.

풍한에 감모되어 말이 나오지 않고 목 구멍이 건조하며 콧물이 흐른다.

- 內關〔治三分, 瀉五呼.〕公孫〔治三分, 補五呼.〕
- 내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又治列缺, 治一分, 瀉五呼. 或加臨泣, 治三分, 補五呼. 後谿, 治四分, 瀉五呼.〕
- 〔또 열결을 쓰는데, 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임읍을 더하기도 하는데, 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후계, 4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 1.4.54. 五十四, 自汗〔附盜汗〕 | 54. 자한〔도한〕

自汗者, 無時澌澌然出, 動則爲甚, 屬胃陽虛. 盜汗<sup>168</sup>者, 睡時汗出, 覺則止, 陰虛有火, 皆<sup>169</sup>腎虛也.

자한(自汗)은 아무 때고 축축하게 땀이 나고 움직이면 심해지는 것으로, 위(胃)의 양(陽)이 허한 경우이다. 도한(盜汗)은 잘 때 땀이 나고 깨어나면 그치는 것으로, 음(陰)이 허한데 화(火)가 있는 경우이니 신허(腎虛)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照海〔治三分, 補七呼.〕
- 조해〔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sup>168</sup>. 汗 :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

<sup>169</sup>. 皆 : \*此 [☞](#)『제중신편』 [↩](#)

1.4.55. 五十五, 痰飲 | 55. 담음

濕痰者, 身重, 而痰色白, 喘急. ○氣痰者, 七情鬱結, 痰滯者<sup>170</sup>咽喉, 形如破絮, 或如梅核, 咯<sup>171</sup>咯不出, 嚥不下, 胸膈痞悶.

습담(濕痰)은 몸이 무겁고 가래가 희며 숨차한다. ○기담(氣痰)은 칠정(七情)으로 기가 울결되어 담이 목구멍에 낀 것으로 모습이 낡은 솜이나 매실 씨 같다.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넘어가지 않으며 흉격이 막혀 답답하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或加臨泣〔治三分, 補五呼.〕
- 또는 임읍을 더한다.〔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170</sup>. 者 :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

<sup>171</sup>. 咯 :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

1.4.56. 五十六, 蛔厥吐蟲 | 56. 회궐토충

心疼, 靜而復煩, 須臾復止, 得食而嘔, ○<sup>172</sup>又煩吐蛔, 此爲蛔厥. 凡蟲, 聞甘則起, 酸則吐, 聞苦則定, 聞辣則伏以下.

가슴 통증이 잠잠 했다가 다시 답답하고 조금 후에 다시 멈추며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또 답답해하며 회충을 토하는 것이 회궐(蛔厥)이다. 충(蟲)은 단 내를 맡으면 올라오고, 신 내를 맡으면 토하게 하며, 쓴 내를 맡으면 진정하고, 아린 내를 맡으면 숨어서 내려간다.

- 別穴〔治三分, 補七呼.〕三陰交〔治三分, 補七呼.〕甚加足三里〔治一寸, 二十呼.〕
- 別鍼〔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심하면 족삼리를 더한다.〔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

<sup>172</sup>.○ : 연문이다. ↩



1.4.57. 五十七, 淋疾〔不利不通〕| 57. 임질〔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막힌 경우〕

諸淋, 皆腎許<sup>173</sup>, 方光<sup>174</sup>有熱, 心腎氣鬱, 蓄在下焦, 出<sup>175</sup>不出, 甚則窒塞, 皆屬熱也, 淋<sup>176</sup>, 千百之一也.

임증(淋症)은 모두 신(腎)이 허하고 방광에 열이 있는 것으로 심(心)과 신(腎)의 기(氣)가 울체되어 하초에 쌓인 경우이다. 소변을 보려고 해도 나오지 않고 심하면 아예 막힌다. 모두 열 때문이고, 차서 생기는 임증은 매우 드물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後谿〔治四分, 補七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후계〔4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照海〔治三分, 極補七呼.〕申脈〔治三分, 極補二十呼.〕
- 조해〔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신맥〔3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173. 腎許 : \*腎虛 ㉠『제중신편』↩

174. 方光 : 膀胱 ㉠문맥상 ↩

175. 出 : 欲出 ㉠『제중신편』↩

176. 淋 : \*冷淋 ㉠『제중신편』↩

#### 1.4.58. 五十八, 泄瀉 | 58. 설사

濕則飧泄, 亦有熱盛, 完穀不化. 洞泄如水, 寒濕傷脾胃.

습사(濕邪)가 있으면 손설을 하며, 열사(熱邪)가 왕성해도 소화되지 못한 음식이 나온다. 물처럼 쏟아지는 통설(洞泄)은 한습이 비위를 손상시킨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分.〕後谿〔治四分, 補五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후계〔4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4.59. 五十九, 痢疾 | 59. 이질

赤痢, 卽血痢, 自小腸血分來濕熱爲本. ○白痢, 自大腸氣分來濕熱爲本. ○赤而淡者爲寒, 白而稠者爲熱, 赤白, 蓋冷熱不調.

적리는 곧 혈리이니, 소장(小腸) 혈분(血分)에서 온 습열이 원인이다. ○백리는 대장(大腸) 기분(氣分)에서 온 습열이 원인이다. ○붉더라도 묽은 것은 한증이고, 희더라도 찝든 것은 열증이다. 붉은 색과 흰 색이 섞여 있는 것은 한열이 조화롭지 못한 경우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後谿〔治四分, 補九呼.〕
- 외관〔3푼 찢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후계〔4푼 찢르고 9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列缺〔治一分, 瀉七呼.〕
- 열결〔1푼 찢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自<sup>177</sup>則或太沖〔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푼 찢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백리(白痢)에는 태충을 쓰기도 한다.〔3푼 찢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申脈〔治三分, 補九呼.〕
- 신맥〔3푼 찢르고 9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177</sup>. 自 : 白 ㉞문맥상 ↩

**1.4.60. 六十, 大便秘結〔附數便〕 | 60. 대변비결〔жат은 대변〕**

火伏血中, 耗散津液, 甚則不通, 然亦有腸冷而不通.

화(火)가 혈(血) 속에 숨으면 진액을 소모시켜서 심하면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장(腸)이 차가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申脈〔治三分, 補七呼, 或十一呼.〕〔數則暫瀉七呼. 有冷則加照海, 治三分, 補七呼.〕
- 신맥〔3푼 찌르고 7번이나 11번 내쉴 동안 보한다.〕〔대변이 жат으면 7번 내쉴 동안 천천히 사한다. 차가워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조해를 더하는데,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1.4.61. 六十一, 頭風〔附頭正痛偏頭痛〕| 61. 두풍〔정두통·편두통〕

諸風掉眩, 皆屬肝. 大抵上實下虛, 實者, 風火痰, 虛者, 氣血虛. 無痰不作眩, 雖因風, 亦有痰. ○正頭痛, 屬太陽. 偏頭痛, 左屬血虛, 或火或風或熱<sup>178</sup>, 朝輕夕重, 右屬氣虛, 屬痰或鬱滯, 朝<sup>179</sup>夕輕.

풍으로 흔들리고 어지러운 경우는 모두 간(肝)에 속한다. 현훈은 보통 위는 실하고 아래는 허한 때문이라고 하니<sup>180</sup>, 실은 하다는 것은 풍·화·담이고, 허하다는 것은 기혈이다. 담이 없으면 어지럽지 않으므로 풍사(風邪)가 원인이거나 담(痰)도 있는 것이다. ○정두통은 태양에 속한다. 왼쪽 편두통은 혈허(血虛)나 화(火)·풍열(風熱) 때문으로 아침에 가볍고 저녁에 심해진다. 오른쪽 편두통은 기허(氣虛)나 담(痰)·울체(鬱滯) 때문이니 아침에 심했다가 저녁에 가벼워진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申脈〔治三分, 補五呼.〕〔或加列缺, 治一分, 瀉五呼. 甚則治風池, 治七分, 二十呼.〕
- 신맥〔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을 더하기도 하는데, 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심하면 풍지를 쓰는데, 7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치시킨다.〕

<sup>178</sup>. 或風或熱 : \*風熱 ㉠『제중신편』↩

<sup>179</sup>. 朝 : 朝重 ㉠『의학입문』↩

<sup>180</sup>. 현훈은 보통 위는 실하고 아래는 허한 때문이라고 하니 : “眩暈, 皆稱爲

上盛下虛.” ㉞『동의보감』↩

#### 1.4.62. 六十二, 眩暈 | 62. 현훈

上虛則眩, 又曰上氣不足, 目爲之眩. 在<sup>181</sup>足少陽厥陰, 甚則入肝. 頭目眩暈者, 必風木旺, 是金衰不能制木, 而復生火, 風火皆屬陽, 焰得風, 自旋轉, 或乘舟車及環舞, 而眩暈也. 眩暈者, 痰因火動故也.

상부가 허하면 어지럽다. 또 상기(上氣)가 부족하면 눈앞이 어지럽다고도 하였다. 족소음궐음의 문제로, 심해지면 사기(邪氣)가 간(肝)으로 들어간다. 머리와 눈이 어지러운 증상은 분명 풍목(風木)이 왕성한 것이다. 이것은 금(金)이 쇠약하여 목(木)을 견제하지 못하고 목이 다시 화(火)를 낳은 때문이다. 풍과 화는 모두 양(陽)에 속하여 불꽃이 바람을 만나면 절로 도는 것처럼 배나 수레를 타거나 빙글빙글 도는 춤을 추면 어지럽게 된다. 현훈(眩暈)은 담(痰)이 화(火)로 인해서 움직인 결과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五呼.〕
- 公孫〔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181</sup>. 在 : \*過在 ㉮『동의보감』↩

1.4.63. 六十三, 內障 | 63. 내장(內障)

不疼痛, 無時眇淚<sup>182</sup>, 如薄霧輕烟之狀, 日漸月增, 腦脂下結於烏輪, 屬血少神勞腎虛.

아프지 않고 눈곱이나 눈물이 나지 않으며, 눈에 열린 안개나 흐린 연기가 낀 듯하니,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서 뇌지(腦脂)가 검은자위에 엉긴다. 혈(血)이 적거나 신(神)이 피로하거나 신(腎)이 허하여 생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臨泣〔治三分, 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임읍〔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sup>182</sup>. 無時眇淚 : \*無眇淚 ㄹ『제중신편』↩



#### 1.4.64. 六十四, 外障 | 64. 외장(外障)

肺病也, 在睛<sup>183</sup> 外遮暗. 治法, 一切風熱, 眼目赤腫也.

폐(肺)의 병으로 눈동자의 겉을 가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치법은 일체의 풍열(風熱)로 눈이 붉게 붓는 경우에 쓴다<sup>184</sup>.

- 外關〔治三分, 補三呼.〕臨泣〔治三分, 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임읍〔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有努贅肉, 則或內關〔治三分, 瀉五呼.〕, 或加列缺〔治一分, 瀉五呼.〕
- 굿은살(努贅肉)이 있는 경우에는 내관을 쓰거나〔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열결을 더하기도 한다.〔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 有痛, 則加腫子膠、睛明〔治二分, 瀉三呼.〕
-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동자료、정명을 더 쓴다.〔2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上腫, 則手三指尖刺之, 取血, 下腫, 則足三指尖刺之, 取血, 右病則治左.〕
- 〔윗눈꺼풀이 부으면 셋째손가락 끝을 찌러 피를 내고, 아래눈꺼풀이 부으면 셋째발가락을 끝을 찌러 피를 낸다. 오른쪽에 증상이 있으면 왼쪽을, 왼쪽에 증상이 있으면 오른쪽을 쓴다.〕

<sup>183</sup>. 睛 : \*睛 ㉠『제중신편』↩

<sup>184</sup>. 치법은 일체의 풍열(風熱)로 눈이 붉게 붓는 경우에 쓴다 : 세간명목탕(洗肝明目湯)의 주치증 ㉠『제중신편』↩



1.4.65. 六十五, 耳鳴〔附耳痒〕| 65. 이명(耳鳴)〔귀 가려움증〕

凡嗜欲勞役, 或年衰大病<sup>185</sup>, 水涸火炎, 耳鳴耳痒, 漸至聾. ○腎虛, 微鳴.

욕심껏 행동하고 지나치게 몸을 썼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 쇠약해졌거나 큰 병을 앓은 후에 수(水)가 마르고 화(火)가 타오르면 귀가 울리고 가렵다가 점차 들리지 않게 된다. ○ 신허(腎虛)로 인한 경우는 이명이 가볍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後谿〔治四分, 暫瀉五呼, 虛則勿治.〕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후계〔4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천천히 사한다. 허증에는 쓰지 않는다.〕
- 照海〔治三分, 補五呼.〕實則治耳<sup>186</sup>〔一寸, 二十呼〕右鳴治左.
- 조해〔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실증에는 이문을 쓴다〔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오른쪽에 증상이 있으면 왼쪽을, 왼쪽에 증상이 있으면 오른쪽을 쓴다.

<sup>185</sup>. 錄 : \*餘 ㉠『제중신편』↩

<sup>186</sup>. 耳 : \*耳門 ㉠문맥상↩

## 1.4.66. 六十六, 耳聾 | 66. 이릉

聾皆屬熱, 然腎肺的<sup>187</sup> 繫, 治必調氣開鬱. 新聾, 多熱, 散風熱, 開痰鬱. 舊聾, 多虛, 滋補兼通竅.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모두 열(熱)에 속한다. 그러나 귀는 신(腎)·폐(肺)와 연결되어 있으니 치료는 반드시 기(氣)를 고르고 울체를 풀어야 한다. 갓 생긴 경우는 열증이 많으니 풍열을 흘리고 담울을 풀며, 오래된 경우는 허증이 많으니 보해주고 규(窺)를 소통시켜준다.

- 外關〔治四分, 補三呼〕. 後谿〔治四分, 漸瀉五呼. 虛則自治.〕
- 外關〔4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후계〔4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천천히 사한다. 허한 경우는 저절로 낫는다.〕
- 照海〔治三分, 極補五呼.〕
- 조해〔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sup>187</sup>. 的 : \*所 『제증신편』↩

#### 1.4.67. 六十七, 聾耳膿耳 | 67. 정이 · 농이

聾耳者, 原<sup>188</sup>有津, 風熱搏之, 結核暴聾. 膿耳者, 風熱上壅不散, 腫痛流膿.

정이(聾耳)는 귀 속에 있던 진액에 풍열(風熱)이 침입하여 진액이 핵(核)으로 맺혀 갑자기 들리지 않는 것이다. 농이(膿耳)는 풍열이 상초에 응체되어 흠어지지 않아서 붓고 아프며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 耳門〔治一寸, 二十呼. 右病則治左.〕
- 이문〔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 오른쪽에 증상이 있으면 왼쪽을, 왼쪽에 증상이 있으면 오른쪽을 쓴다.〕

---

<sup>188</sup>. 原 : 耳中 ㉠『동의보감』↩

1.4.68. 六十八, 鼻塞鼻痛 (附鼻鼻痛<sup>189</sup>) | 68. 코막힘, 코의 통증 (비연·비구)

寒傷皮毛, 火鬱清道, 則不知香臭. 新者, 偶感風寒.

한사(寒邪)가 피모를 손상시켜 화(火)가 기도에 울체되면 냄새를 맡지 못한다.  
갓 생긴 경우는 풍한(風寒)에 감모된 것이다.

- 外關 (治三分, 補五呼.) 列缺 (治一分, 補七呼.)
- 外關 (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열결 (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 (治三分, 補七呼.)
- 公孫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sup>189</sup>. 鼻鼻痛 : \*鼻淵鼻鼽 ㉠『제증신편』↩

1.4.69. 六十九, 鼻痔鼻瘡 | 69. 비치·비창

鼻痔者, 瘰肉<sup>190</sup>寒鼻, 輕爲鼻瘡, 重爲鼻痔, 甚爲鼻鼈, 皆肺熱.

비치(鼻痔)는 콧은살이 코를 막는 것이다. 가벼운 경우는 비창이 되고 조금 심한 경우는 비치가 되며 아주 심한 경우는 비옹(鼻鼈)이 되니, 모두 폐의 열(熱)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列缺〔治一分, 瀉七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公孫〔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190</sup>. 寒 : \*塞 ㄱ『제중신편』↩

#### 1.4.70. 七十, 鼻齕 | 70. 비사

準頭紅色也, 甚則紫黑, 因飲食<sup>191</sup>血熱入肺, 鬱久則血凝濁而赤, 或飲酒<sup>192</sup>, 乃肺風, 熱<sup>193</sup>也.

코끝이 붉은 것으로 심해지면 자흑색이 된다. 마신 술로 혈열(血熱)이 폐로 들어오래도록 울체되면 혈이 엉기고 탁해져서 붉게 된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는 폐풍창(肺風瘡)이니 혈(血)에 열이 있는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列缺〔治一分, 瀉七呼.〕或加臨泣〔治三分, 補七呼.〕
- 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임읍을 더하기도 한다.〔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191</sup>. 飲食 : \*飲酒 ㉠『제증신편』↩

<sup>192</sup>. 飲酒 : 不飲酒 ㉠『제증신편』↩

<sup>193</sup>. 熱 : \*血熱 ㉠『제증신편』↩



1.4.71. 七十一, 重舌〔附舌腫〕| 71. 중설〔설종〕

舌根下生, 形如舌而小, 口不能聲, 飲食不通, 心脾熱盛也. 刺其舌下兩傍, 勿刺中脈.

혀뿌리 아래에서 생겨나 모습이 혀와 같지만 작다. 입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니, 심(心)과 비(脾)에 열(熱)이 왕성한 것이다. 혀뿌리 아래 양쪽을 찌르되 설소대는 찌르지 않는다.

○舌腫者, 腫硬滿不軟, 名曰木舌, 心脾熱也. 宜急刺當處, 出血泄毒.

○설종(舌腫)은 혀가 부어 단단하고 부드러워지지 않으며 입에 가득 차는 것이다. 목설(木舌)이라고 하며, 심과 비의 열 때문이다. 해당 부위를 급히 자침하여 피를 내서 독기를 배출시켜야만 한다.

- 列缺〔治一分, 瀉七呼.〕
- 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설 동안 사한다.〕

#### 1.4.72. 七十二, 上齒痛 | 72. 상치통

風熱痛者, 外風與內熱相搏, 齦腫痛. 寒痛者, 客寒犯腦, 頭連齒痛.

풍열통(風熱痛)은 밖에서 침입한 풍(風)과 안에서 생겨난 열(熱)이 서로 다투어 잇몸이 붓고 아픈 것이다. 한통(寒痛)은 한사(寒邪)가 뇌(腦)에 침범하여 머리카락에서 이까지 아픈 것이다.

○上齦屬胃, 喜寒惡熱, 下齦屬大腸, 喜熱惡寒. 熱痛怕冷, 冷痛怕熱水, 風痛不怕冷熱. 熱痛, 胃積熱, 齒齦腫爛.

○윗잇몸은 위(胃)에 속하여 차가운 것을 좋아하고 뜨거운 것을 싫어하며, 아랫잇몸은 대장(大腸)에 속하여 뜨거운 것을 좋아하고 차가운 것을 싫어한다. 열로 생긴 통증은 찬 물을 꺼려하고, 찬 기운으로 생긴 통증은 뜨거운 물을 꺼려하며, 풍으로 생긴 통증은 찬 물이나 뜨거운 물을 꺼려하지 않는다. 열통(熱痛)은 위(胃)에 열이 쌓인 것으로 잇몸이 붓고 짓무른다.

- 下三里〔治一寸, 補二十呼.〕加申脈〔治一寸, 補二十呼.〕
- 하삼리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신맥을 더 쏜다. (1치<sup>194</sup>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194. 1치 : 신맥에 1치까지 찌르기 어렵기 때문에 오기로 보인다. 본서에서는 신맥을 주로 3푼 깊이로 자침하였다. ↩

#### 1.4.73. 七十三, 下齒痛 | 73. 하치통

上下痛并治.

상치통과 하치통을 모두 치료한다.

- 上三里〔治一寸, 手補二十呼. 又合谷, 治三分, 補七呼.〕太衝〔治三分, 補七呼.〕加申脈〔治三分, 補二十呼.〕
- 수삼리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수기하여 보한다. 또 합곡을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태충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신맥을 더한다. (3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1.4.74. 七十四, 咽喉痛〔附單蛾雙蛾〕| 74. 인후통〔단유아·쌍유아〕

皆屬火, 肝胆<sup>195</sup>三焦, 皆有相火, 或疼, 或腫, 或脾<sup>196</sup>, 或單蛾, 或雙蛾. 一邊腫, 謂單蛾, 難治. 兩傍腫, 謂雙蛾風, 易治. ○或腫膿, 則刺當處出膿.

인후의 병은 모두 화(火)에 속한다. 간·담·심포·삼초에는 모두 상화(相火)가 있어서 인후가 아프기도 하고 붓기도 하며 후비(喉痺)나 단유아나 쌍유아가 생긴다. 회렴(會厭)의 한 쪽 옆만 붓는 것을 단유아라고 하는데 치료하기 어렵다. 두 쪽 모두 붓는 것을 쌍아풍<sup>197</sup>이라고 하는데 쉽게 치료된다. ○붓고 끓으면 환부를 찌러 고름을 빼 낸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臨泣〔治三分, 補九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임읍〔3푼 찌르고 9번 내쉴 동안 보한다.〕
- 迎香〔治三分, 補三呼.〕小商〔刺之出血.〕
- 영향〔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소상〔찌러서 피를 낸다.〕
- 甚則照海, 一寸, 補二十呼. 肩井, 一寸, 補二十呼, 而治臨泣, 則去照海, 治照海, 則去臨泣. 始發時, 則加列缺, 治一分, 瀉五呼. 傷寒, 則外關、列缺、三陰交、臨泣, 治法上同.
- 심하면 조해를 1치<sup>198</sup>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하며, 견정을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임읍을 쓰면 조해를 쓰지 말고, 조해를 쓰면 임읍을 쓰지 않는다. 처음 생겼을 때는 열결을 더하는데, 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상한으로 인후통이 있는 경우에는 외관·열결·삼음교·임읍을 앞의 방법과 같이 쓴다.

<sup>195</sup>. 心 : 心胞 『제증신편』 ←

196. 脾 : 痺  문맥상 [←](#)

197. 쌍아풍 : 쌍유아의 동의어이다. [←](#)

198. 1치 : 본문에서 조해는 모두 3푼 깊이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一寸”이라고 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 [←](#)

1.4.75. 七十五, 直項 | 75. 직항

項强似拔, 不得回顧.

뒷목이 뽑힐 듯 뺏뺏하여 돌아보지 못한다.

委中〔治一分<sup>199</sup>, 補二十呼.〕

위중〔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

<sup>199</sup>. 分 : \*寸  문맥상 [↩](#)

1.4.76. 七十六, 例項 | 76. 예항

項強以拔, 不得舉頭.

뒷목이 뽑힐 듯 뻣뻣하여 머리를 들지 못한다.

- 大椎〔治五分, 補二十呼.〕又治長強〔治一寸, 補二十呼.〕
- 대추〔5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또 장강을 쓴다.〔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1.4.77. 七十七, 太陽〔右治〕| 77. 태양〔오른쪽 경혈을 쓴다〕

項強, 不得右顧, 太陽經中寒濕.

뒷목이 뻣뻣하여 목을 오른쪽으로 돌리지 못하는 것은 태양경이 한습(寒濕)의 사기를 받은 경우이다.

- 肩井〔治一寸, 補二十呼. 或與肩髃換治.〕
- 견정〔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견우와 함께 번갈아 자침하기도 한다.〕
- 曲池〔治三分, 補七呼.〕 승골〔治三分, 補七呼.〕
- 곡지〔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합곡〔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1.4.79. 七十八, 太陰〔左治〕| 78. 태음〔왼쪽 경혈을 쓴다.〕**

項強, 不得左顧, 太陰經裏血虛風.

뒷목이 뻣뻣하여 목을 왼쪽으로 돌리지 못하는 것은 태음경 속 혈이 허하여 풍이 생긴 것이다.

- 肩井〔治一寸, 補二十呼. 或與肩髃換治.〕
- 견정〔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견우와 함께 번갈아 자침하기도 한다.〕
- 曲池〔治一寸, 補二十呼.〕 승골〔治三分, 補七呼.〕
- 곡지〔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합곡〔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4.79. 七十九, 結胸痞氣 | 79. 결흉·비기

痞, 胸膈飽悶, 不舒暢也. 胸滿不痛爲痞, 滿而痛爲結胸, 治法同, 而痞輕結重. 寒痞寒結胸, 不渴, 熱痞熱結煩不渴<sup>200</sup>.

비(痞)는 흉격이 그득하고 답답하여 시원하지 않은 것이다. 가슴이 그득한데 아프지 않은 것을 비(痞)라고 하고, 아픈 것을 결흉(結胸)이라고 한다. 치료하는 방법은 같으나 비는 가볍고 결흉은 심하다. 한(寒)으로 인한 비와 결흉에는 갈증이 없고, 열(熱)로 인한 비와 결흉에는 타는 듯 목이 마른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內關〔治三分, 瀉三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내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公孫〔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臨泣〔治三分, 瀉七呼.〕甚則加三里〔治一寸, 補二十呼.〕
- 임읍〔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심하면 삼리를 더 쓴다.〔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00</sup>. 熱痞熱結煩不渴 : \*熱痞熱結胸, 煩渴 『제증신편』↩

#### 1.4.80. 八十, 血結胸 | 80. 혈결흉

婦人瘀血入心脾, 作痛, 腰脇背膂上下攻刺<sup>201</sup>, 上下攻刺, 甚作撻擗.

부인의 어혈이 심비로 들어가서 가슴과 배에 통증이 생기고 허리·옆구리·등까지 통증이 이어져 오르내리며 찌르는 듯하며, 심하면 경련이 생긴다.

- 別穴〔治三分, 補五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別혈〔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或加足三里〔治一寸, 補二十呼.〕
- 족삼리를 더 쓰기도 한다.〔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

<sup>201</sup>. 作痛, 腰脇背膂上下攻刺 : \*心腹作痛, 連腰脇背膂 ㄱ『제증신편』↩

1.4.81. 八十一, 乳巖〔附乳癰結核〕| 81. 유암〔유옹·결핵〕

乳癰者, 因膈間濕熱痰與乳滯相搏, 或小兒口氣順虛<sup>202</sup>, 或怒氣激滯而成.

유옹은 흉격 사이의 습·열·담이 머물러 있던 젖과 서로 다투었거나, 아이가 입김을 불었거나, 분노로 기운이 심하게 막혀 생겨난다.

○乳巖者, 憂怒抑鬱, 時日積累, 脾氣消, 肝氣逆, 爲成.

○유암은 근심과 성냄을 억누른 것이 여러 날 계속되어 비기(脾氣)가 깎이고 간기(肝氣)가 거슬러 올라 생긴다.

○結核者, 如碁子, 不痛不痒, 十致瘡黑陷凹<sup>203</sup>, 難治.

○결핵은 바둑알 모양으로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다. 십수년이 지나서 혈이 검게 함몰되면 치료하기 어렵다.

- 乳根〔治三分, 瀉七呼或九呼.〕
- 유근〔3푼 찌르고 7-9번 내쉴 동안 사한다.〕

---

<sup>202</sup>. 順虛 : 吹噓 『제중신편』↩

<sup>203</sup>. 十致瘡黑陷凹 : 十數年, 瘡黑陷凹 『제중신편』↩

#### 1.4.82. 八十二, 腹痛 | 82. 복통

寒痛, 綿綿痛而無增減, 脈沈遲. 熱痛, 時止, 痛處極痛<sup>204</sup>. 瘀血痛, 因墮撲, 或婦人經來產後未蓋要血<sup>205</sup>, 其痛有常處, 而不移痛. 痰飲痛, 腹中引鉤, 腹下<sup>206</sup>有水聲, 必尿不利. ○按之痛爲熱, 重按之不痛爲寒, 有積者, 按之愈痛. ○瀉則熱.

한복통(寒腹痛)은 통증에 증감 없이 계속 아프며 맥이 침(沈)·지(遲)하다. 열복통(熱腹痛)은 때때로 아팠다 그쳤다 하며 아픈 곳이 매우 뜨겁다. 어혈복통(瘀血腹痛)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졌거나, 부인이 월경을 할 때나 출산 후에 악혈이 모두 다 나오지 않아서 생기는데, 항상 같은 곳이 아프고 통처가 변하지 않는다. 담음복통(痰飲腹痛)은 배 속이 당기고 옆구리 아래에서 물 소리가 나며 소변이 분명 시원하지 않다. ○가볍게 눌렀을 때 아픈 것은 열증이고, 깊이 눌렀을 때 아픈 것은 한증이다. 적(積)이 있으면 눌렀을 때 더욱 아프다. ○설사를 하면 열증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後谿〔治三分, 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후계〔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204. 極痛 : 極熱 『제증신편』↩

205. 未蓋要血 : 未盡惡血 『동의보감』↩

206. 腹下 : \*脇下 『제증신편』↩



1.4.83. 八十三, 腰痛 | 83. 요통

腎虛痛<sup>207</sup>常<sup>207</sup>.

신허요통(腎虛腰痛)은 통증이 항상 있어 끊이지 않는다.

- 委中〔治一寸, 補二十五呼.〕或長強〔治一寸, 補二十呼亦可.〕腎俞〔治一寸, 補二十呼.〕
- 위중〔1치 찌르고 25번 내쉴 동안 보한다.〕또는 장강도 좋다.〔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신수〔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

<sup>207</sup>. 常 : \*常常疼不已 ㄹ『제중신편』↩

#### 1.4.84. 八十四, 兩脇痛 | 84. 양협통

諸脇痛, 肝火盛, 木氣實也. 瘀血留肝<sup>208</sup>, 居於脇下, 按之痛甚, 或夜痛, 或午後發. 痰領<sup>209</sup>痛, 痰流肝經, 咳嗽氣急, 引脇痛. 腎邪上搏, 亦爲痛也.

모든 협통은 간화(肝火)가 왕성하고 목기가 실하여 생긴다. 어혈협통(瘀血脇痛)은 어혈이 간과 옆구리 아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누르면 통증이 심하며 밤이나 오후에 통증이 생긴다. 담음협통(痰飲脇痛)은 담이 간경으로 흘러들어 기침을 하고 숨이 차서 옆구리까지 아픈 것이다. 신(腎)의 사기(邪氣)가 위로 치받아도 옆구리가 아프다.

- 環跳〔治一寸五分, 補二十五呼.〕或章門〔治三分, 補七呼.〕
- 환도〔1치 5푼 찌르고 25번 내쉴 동안 보한다.〕또는 장문〔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삼금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08</sup>. 瘀血留肝 : \*死血痛, 瘀血留肝 ㉞『제증신편』↩

<sup>209</sup>. 領 : 飲 ㉞『제증신편』↩



#### 1.4.85. 八十五, 痒痛 | 85. 가려우며 아픈 경우

諸痒爲虛, 血不榮肌, 宜養血.

모든 가려움은 허증으로 혈이 기육(肌肉)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니 혈을 길러야 한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列缺〔治一分, 瀉五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 照海〔治三分, 補五呼.〕〔上痒, 則去照海, 加公孫, 治三分, 補五呼.〕
- 조해〔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상반신이 가려우면 조해 대신 공손을 쓰는데, 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4.86. 八十六 癰疹 | 86. 반진

有色点而無顆粒曰癰, 浮小而有顆曰疹, 隨沒隨出. 傷寒發癰, 謂<sup>210</sup>毒. ○春溫發癰, 爲喝毒<sup>211</sup>. ○夏熱發癰, 謂熱毒. ○時行發癰, 謂時毒, 皆火乘肺, 紅点見皮毛. 輕如疹子蚊跡發手足, 先紅後黃, 如<sup>212</sup>錦紋發胸腹, 先紅後赤. 切忌發汗, 又不宜<sup>213</sup>. ○亦色<sup>214</sup>, 身緩<sup>215</sup>, 自胸腹散四肢者, 吉. 黑色, 身凉, 自四肢入胸腹者, 胸<sup>216</sup>.

점점이 변색 되나 꼭지가 없는 것을 반(癰)이라고 하고, 조금 부어올라 꼭지가 있는 것을 진(疹)이라고 하는데, 없어졌다 생겼다 한다. 상한(傷寒)으로 인한 발반은 양독(陽毒)이라고 하고, ○ 춘온(春溫)으로 인한 발반은 온독(溫毒)이라고 하며, ○ 하열(夏熱)로 인한 발반은 열독(熱毒)이라고 하고, ○ 시행병으로 생긴 발반은 시독(時毒)이라고 하니, 모두 화(火)가 폐를 손상시켜 붉은 점이 피부에 드러난 것이다. 가벼운 경우에는 모기가 문 듯한 진(疹)이 손발에 생기는데 처음에는 붉었다가 나중에는 누렇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비단 무늬같은 것이 가슴과 배에 생기는데 처음에는 붉었다가 나중에는 벌겋게 된다. 절대 발한 시켜서는 안되며, 하법도 쓰지 말아야 한다. ○ 반진의 색이 붉고 몸이 따뜻하며 가슴과 배에서 사지로 뻗어나간 경우에는 예후가 좋으나, 반진의 색이 검고 몸이 차며 사지에서 시작되어 가슴과 배로 들어온 경우에는 예후가 나쁘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列缺〔治一分, 瀉七呼.〕
- 外關〔3분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1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10</sup>. 毒 : 陽毒 ㉠『동의보감』↩

211. 爲喝毒 : 謂溫毒 ㉾『제중신편』↩

212. 如 : 重如 ㉾『제중신편』↩

213. 不宜 : \*不宜下 ㉾『제중신편』↩

214. 亦色 : 赤色 ㉾『제중신편』↩

215. 身緩 : 身煖 ㉾『제중신편』↩

216. 胸 : 凶 ㉾문맥상↩

1.4.87. 八十七, 癩疹 | 87. 은진

屬脾, 隱隱然在皮膚, 多痒, 或不仁, 風熱濕之殊. ○赤疹, 因天熱燥氣乘之<sup>217</sup>, 稍涼則消. ○白疹, 因天寒冷氣折之, 稍暖<sup>218</sup>則消.

비(脾)에 속하며 은은히 피부에 나서 매우 가렵고 더러 감각이 무뎌지기도 한다. 풍(風)·열(熱)·습(濕)의 차이가 있다. ○적진(赤疹)은 덥고 건조한 기후에 상하여 생긴 것으로 조금 서늘해지면 사라진다. ○백진(白疹)은 춥거나 서늘한 기운에 상하여 생긴 것으로 조금 따뜻해지면 사라진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列缺〔治一分, 瀉七呼.〕〔或加臨泣, 治三分, 補七呼.〕
- 外關〔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혹은 임읍을 더 쓰는데,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17</sup>. 乘之 : \*乘之 ㉠『제중신편』↩

<sup>218</sup>. 稍暖 : 稍暖 ㉡『제중신편』↩

1.4.88. 八十八, 毒<sup>219</sup> | 88. 단독

人身忽然塗丹, 是惡毒, 熱血也.

사람이 갑자기 붉은 칠을 한 듯이 되는 것은 악독(惡毒)이니 열혈(熱血) 때문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內關〔治三分, 瀉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내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 列缺〔治一分, 瀉七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五呼.〕臨泣〔治三分, 補五呼.〕
- 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임읍〔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19</sup>. 毒 : 丹毒 ㉠『제중신편』↩

1.4.89. 八十九, 筋癢〔附足心筋偏<sup>220</sup>〕 | 89. 근계〔발바닥 근육에 쥐 나는 경우〕

癢者, 筋脈縮急也.

계(癢)는 근맥(筋脈)이 수축하며 당기는 것이다.

諸務月<sup>221</sup>, 皆屬於<sup>222</sup>. 熱勝風搏, 并<sup>223</sup>經絡, 風<sup>224</sup>相乘, 是以務目癢<sup>225</sup>生也.

모든 열로 의식이 흐리고 경련하는 것은 모두 화에 속한다. 왕성한 열이 풍과 다투며 경락에 침범하여 풍화가 서로 다투면 이로 인해 의식이 흐려지고 경련이 생긴다.

- 合谷〔治三分, 補七呼.〕手三里〔治一寸, 補二十呼.〕
- 합곡〔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수삼리〔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太衝〔治三分, 補七呼.〕
- 태충〔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足心筋編<sup>226</sup>, 則治角孫, 治二分, 補卒時.
- 발바닥 근육에 쥐가 나면 각손을 쓰는데, 2푼 찌르고 잠깐 동안 보한다.

220. 偏 : 縮 ㉞문맥상 ㉞

221. 諸務月 : 諸熱贅癢 ㉞『동의보감』 ㉞

222. 皆屬於 : 皆屬於火 ㉞『동의보감』 ㉞

223. 并 : 併 ㉞『동의보감』 ㉞

224. 風 : 風火 ㉞『동의보감』 ㉞

225. 務目癢 : 贅癢 ㉞『동의보감』 ㉞

226. 編 : 縮  문맥상 [←](#)

#### 1.4.90. 九十 肩痛〔附臂痛〕 | 90. 견통〔비통〕

心肺有邪氣流兩肘, 手不屈伸, 病在兩筋骨<sup>227</sup>. 或氣血凝滯于經絡, 臂痛不舉. ○痰飲居多, 左右轉移, 脈沈細, 麻木, 或戰掉, 皆痰飯取作<sup>228</sup>也.

심폐의 사기가 양쪽 팔꿈치로 흘러들면 팔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으니 병이 양쪽 근이나 골에 있는 것이다. 기와 혈이 경락에 응체된 경우에도 팔이 아파 들지 못한다. ○담음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처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맥이 침(沈)·세(細)하며 마목이 있고 덜덜 떨리는 것은 모두 담음 때문이다.

- 肩井〔治一寸, 二十呼. ○或治肩髃, 一寸, 二十呼. 臂痛, 則去肩井, 治曲池, 一寸, 二十呼.〕 合谷〔治三分, 補七呼.〕
- 견정〔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 ○견우를 쓰기도 하는데,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 비통에는 견정 대신 곡지를 쓰는데,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 합곡〔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27</sup>. 手不屈伸, 病在兩筋骨 : 手屈不伸, 病在筋, 手伸不屈, 病在骨 ㉞『제중신편』↩

<sup>228</sup>. 痰飯取作 : 痰飲所作 ㉞『동의보감』↩



1.4.91. 九十一, 濕熱脚氣 | 91. 습열각기

有乾濕之分, 筋<sup>229</sup>編不腫, 名曰乾脚氣, 宜潤血清燥, 筋<sup>230</sup>施腫, 名曰濕脚氣, 宜利濕<sup>231</sup>蹠風.

건각기와 습각기가 있다. 근육이 수축하나 붓지 않는 것을 건각기라고 하니 혈을 윤택하게 하고 청조(淸燥)시켜야 한다. 근육이 늘어지고 붓는 것을 습각기라고 하니 습(濕)을 내보내고 풍(風)을 흠어야 한다.

- 足三里〔治一寸, 二十呼, 或治絕骨, 一寸, 二十呼. ○右病左治. 或治湧泉, 三分, 瀉七呼.〕
- 족삼리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 절골을 쓰기도 하는데,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 ○병이 있는 반대편에 자침한다. 용천을 쓰기도 하는데,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sup>229</sup>. 筋編 : 筋縮 ㉠『제중신편』↩

<sup>230</sup>. 筋施腫 : 筋弛腫 ㉠『제중신편』↩

<sup>231</sup>. 蹠風 : 蹠風 ㉠『제중신편』↩

#### 1.4.92. 九十二, 鶴膝風 | 92. 학슬풍

氣血瘀滯經絡, 兩膝腫痛, 髀<sup>232</sup>腫<sup>232</sup>枯細, 抱攣<sup>233</sup>, 不能屈伸. 風乘虛, 足三陰也.

기와 혈이 경락을 막아 양쪽 무릎이 붓고 아프며 허벅지와 정강이가 가늘게 마르고 당겨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풍이 허한 틈으로 침입하여 족삼음에 병이 든 경우이다.

- 膝眠<sup>234</sup> (治一寸, 二十呼, 右病左治.)
- 슬안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하되, 병이 있는 반대편에 자침한다.)
- 或衝陽 (一寸, 二十呼, 而兼治耳.)
- 충양을 쓰기도 한다.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하며 양쪽 모두 자침한다.)

232. 腫 : 脛 『제중신편』 ↩

233. 抱攣 : 拘攣 『동의보감』 ↩

234. 膝眠 : \*膝眼 『문맥상』 ↩

### 1.4.93. 九十三, 疝症 | 93. 산증

始於濕熱在經, 或感寒而痛. ○寒病<sup>235</sup>, 囊冷, 硬如右<sup>236</sup>, 莖不舉, 得於寒濕. ○氣疝  
· 狐疝, 上連腎俞, 下及陰囊, 得於忿怒氣鬱. ○癰疝은 囊大如升, 不通痒<sup>237</sup>, 屬濕.  
○筋疝· 下疳瘡, 陰莖腫, 或清<sup>238</sup>而爲膿, 裏急, 筋編<sup>239</sup>, 莖痛痒, 得於房勞. ○血疝,  
如爪<sup>240</sup>在小腹, 得於春夏大煖, 或值情欲, 當泄不泄, 亦成此症.

처음에 습열이 경맥에 머물러 있다가 한(寒)에 감촉되어 통증이 생긴 것이다.  
○한산(寒疝)은 음낭이 차고 돌처럼 단단하며 발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한습 때  
문에 생긴다. ○기산(氣疝)· 호산(狐疝)은 증상이 위로는 신수까지 이르고 아  
래로는 음낭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노와 기울 때문에 생긴다. ○퇴산(癰疝)은  
음낭이 되박처럼 커지나 아프거나 가렵지 않는 것으로 습에 속한다. ○근산(筋  
疝)· 하감창(下疳瘡)은 음경이 붓거나 짓물러 곪고 변을 볼 것 같으며 근이 당  
기고 음경이 아프면서 가려운 것으로 방로 때문에 생긴다. ○혈산(血疝)은 오이  
같은 것이 아랫배에 생기는 것으로 봄·여름이 매우 더워서 생긴다. 또는 성욕  
이 생겼을 때 배설해야 하는데 배설하지 못했을 때도 이 증상이 생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照海〔治三分, 補七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조해〔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  
다.〕
- 大都〔治三分, 留補二十呼. ○或加申脈, 治三分, 補五呼, 微瀉五呼, 而去大都,  
亦可也. ○又治環跳, 治一寸五分, 二十呼.〕
- 대도〔3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오래 보한다. ○신맥을 더하기도 하는데, 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하고 5번 내쉴 동안 조금 사한다. 대도 대신 써도 좋다.  
○또 환도를 쓰는데, 1치 5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

<sup>235</sup>. 寒病 : \*寒疝 『제중신편』↩

236. 右 : 石 ㉞『제중신편』↩

237. 不通痒 : 不痛痒 ㉞『제중신편』↩

238. 淸 : \*潰 ㉞『제중신편』↩

239. 筋編 : 筋縮 ㉞『제중신편』↩

240. 爪 : 瓜 ㉞『제중신편』↩

1.4.94. 九十四, 陰囊濕痒症 | 94. 음낭습양증

卽腎藏風, 精血不足, 嗜欲內傷, 風冷外乘, 風濕毒氣, 從虛入, 囊下濕痒, 或生瘡.

바로 신장풍(腎藏風)이다. 정혈이 부족한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 속을 상하고 풍냉이 겉에서 침입하여 풍습의 독기가 허한 틈으로 들어온 것으로 음낭 아래가 축축하고 가려우며 창(瘡)이 생기기도 한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照海〔治三分, 補五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조해〔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申脈〔治三分, 暫瀉五呼.〕
- 신맥〔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천천히 사한다.〕

#### 1.4.95. 九十五, 後陰痔瘻症 | 95. 후음치루증

皆筋脈病也. 小腸熱, 必痔也. 便血, 大腸熱大盛也. 痔病非外邪, 乃藏內濕熱風燥合成.

치루는 모두 근맥의 병이다. 소장(小腸)에 열이 있으면 반드시 치(痔)가 생긴다. 변혈은 대장의 열이 매우 성한 경우이다. 치는 외사(外邪) 때문이 아니고 오장(五臟) 속에 습(濕)、열(熱)、풍(風)、조(燥)가 합쳐져 생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申脈〔治三分, 暫瀉五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신맥〔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천천히 사한다.〕
- 列缺〔治一分, 瀉五呼.〕
- 열결〔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 1.4.96. 九十六, 脫肛 | 96. 탈항

卽腸<sup>241</sup>, 氣虛也. 勞倦房欲過度, 及產婦用力過多, 與小兒呌號努力<sup>242</sup>, 并久痢不上<sup>243</sup>, 皆風邪襲虛, 而氣下陷.

곧 장치(腸痔)이니 기가 허한 것이다. 노권과 방로가 지나쳤거나, 산모가 출산에 힘을 너무 많이 썼거나, 소아가 악을 쓰며 울었거나, 오래 앓은 이질이 멈추지 않은 경우에, 모두 풍사가 허한 틈을 타고 들어와 기가 밑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公孫〔治三分, 補七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內關〔治三分, 瀉七呼. 或玄關, 治列缺, 治一分, 瀉七呼.〕
- 내관〔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현관(玄關)<sup>244</sup>에는 열결을 쓰기도 하는데, 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百會〔治三分, 補二十呼.〕
- 백회〔3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 若痢疾後, 則治一外關〔治三分, 補三呼.〕
- 이질 후에는 한쪽 외관을 쓴다.〔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五呼.〕申脈〔治三分, 補三呼.〕
- 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신맥〔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41</sup>. 腸 : \*腸痔 『제증신편』↩

242. ㄸ號努力 : ㄸ號努氣 ㄸ『제중신편』↩

243. 上 : 止 ㄸ『제중신편』↩

244. 현관(玄關) : 의미를 알 수 없다.↩



1.4.97. 九十七, 乾藿亂<sup>245</sup>〔附轉筋〕| 97. 건괵란〔전근〕

心腹痛, 不吐利, 關格陰陽, 燥煩. ○暴吐瀉, 亡津液, 不潤宗筋, 兩脚轉筋, 甚則遍身.  
○轉筋厥冷.

가슴과 배가 아프지만 구토와 설사는 하지 않으며 대소변이 나오지 않고 번조가 있다. ○갑자기 토하고 설사하면 진액이 사라져서 종근(宗筋)을 적시지 못하여 두 다리의 근이 뒤틀리고 심하면 온 몸에 근이 뒤틀린다. ○근이 뒤틀리면 손발이 싸늘해진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內關〔治三分, 瀉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내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或補七呼, 或九呼, 或十一呼, 或十五呼.〕〔○隨症加減, 或加公孫, 治三分, 補或七呼, 或九呼. ○或加太衝, 治三分, 或補七呼, 或九呼. ○甚則加足三里, 治一寸, 補二十呼. 又治合谷、太衝, 各治三分, 補九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이나 9번이나 11번이나 15번 내쉴 동안 보한다.〕〔○증상에 따라 가감한다. 공손을 더 쓸 경우에는 3푼 찌르고 7번이나 9번 내쉴 동안 보한다. ○태충을 더 쓸 경우에는 3푼 찌르고 7번이나 9번 내쉴 동안 보한다. ○심한 경우에는 족삼리를 더 쓰는데,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또 합곡、태충을 쓰는데, 각기 3푼 찌르고 9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45</sup>. 乾藿亂 : 乾霍亂 ㉠문맥상 ㉡

1.4.98. 九十八. 濕霍亂 | 98. 습곽란

上吐下瀉, 渴爲熱, 不渴爲寒.

위로 토하고 아래로 설사한다. 갈증이 나는 것은 열증이고 갈증이 없는 것은 한증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後谿〔治四分, 補九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후계〔4푼 찌르고 9번 내쉴 동안 보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甚則足三里〔治一寸, 補二十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심하면 족삼리를 쓴다.〔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 暑傷寒, 則加列缺〔治一分, 瀉七呼.〕
- 서병(暑病)이나 상한(傷寒)에는 열결을 더 쓴다.〔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4.99. 九十九, 嘔吐 | 99. 구토

皆屬火. 者<sup>246</sup>, 有物有聲, 氣血俱病. 吐者, 有物無聲, 血病. 噦者, 有聲無物, 氣病. 皆因脾虛, 或寒冒<sup>247</sup>, 或傷食, 嘔輕吐重.

모두 화(火)에 속한다. 구(嘔)는 토물과 토하는 소리가 모두 있는 경우로 기혈이 모두 병든 것이다. 토(吐)는 토물은 있지만 토하는 소리가 없는 경우로 혈병이다. 열(噦)은 토하는 소리만 있고 나오는 것이 없는 경우로 기병이다. 모두 비(脾)가 허한 때문으로 한(寒)이 위(胃)에 침범했거나 음식에 상하여 생긴다. 구는 가볍고 토는 위중하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五呼.〕
- 公孫〔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46</sup>. 者 : \*嘔者 ㉠『제증신편』↩

<sup>247</sup>. 寒冒 : \*寒客胃 ㉠『제증신편』↩

1.4.100. 百, 咳嗽〔附喘氣〕 | 100. 해수〔천기〕

咳, 無痰有聲, 肺氣傷. 嗽, 無聲有痰, 脾濕動. 咳嗽者, 有聲有痰也. ㉔風肺<sup>248</sup>, 脈浮, 鼻塞<sup>249</sup>, 聲重, 寒熱, 自汗, 惡風, 口乾, 喉痒, 語未竟而咳. 寒傷肺, 脈緊, 寒熱, 無汗, 惡寒, 煩燥, 不渴, 胸緊, 聲啞, 遇寒而咳. 風寒<sup>250</sup>鬱熱夜咳. 諸咳, 皆肺傷脾虛也. 諸喘亦同.

해(咳)는 가래 없이 기침 소리만 나는 것으로 폐기(肺氣)가 상한 것이다. 수(嗽)는 기침 소리 없이 가래만 있는 것으로 비습(脾濕)이 동한 것이다. 해수는 기침 소리도 나고 가래도 있는 것이다. ○풍(風)이 폐(肺)에 침범하면 맥이 부(浮)하고 코가 막히며 목이 잠기고 오한발열이 나며 자한이 있고 오통이 있으며 목구멍이 가렵고 말을 끝맺기 전에 기침을 한다. 한(寒)이 폐를 손상시키면 맥이 긴(緊)하고 오한발열이 나며 땀이 나지 않고 오한이 있고 번조하나 갈증이 없으며 가슴이 당기고 목이 쉬며 추우면 기침을 한다. 풍한(風寒)이 전변된 후 울열(鬱熱)이 되면 밤에 기침을 한다. 해수는 모두 폐가 손상되고 비가 허한 것이다. 천(喘)도 동일하다.

- 內關〔治三分, 瀉五呼. 虛咳, 則暫瀉.〕
- 내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허증 해수에는 천천히 사한다.〕
- 公孫〔治三分, 補五呼.〕又治列缺〔治一分, 瀉五呼.〕
- 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또 열결을 쓴다.〔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 臨泣〔治三分, 補五呼.〕
- 임읍〔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48</sup>. 風肺 : \*風乘肺 ㉔『의학입문』↩

249. 寒 : \*塞 〔塞〕『제중신편』↩

250. 寒 :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

## 1.4.101. 百一, 積聚 | 101. 적취

鬱, 爲積聚癥瘕痞之本. 鬱者, 病結不散. ○氣鬱生濕, 濕鬱成熱, 熱鬱成痰, 痰鬱血不行, 血鬱食不消, 成痞塊. 此六者, 相因爲病. ○積, 屬五臟, 陰, 有形, 脈而沈伏<sup>251</sup>, 發痛有常處. ○痞與疝瘕, 胸膈間病, 積聚, 吐復內疾<sup>252</sup>, 多見男子. ○癥瘕, 肺見臍下<sup>253</sup>, 婦人常得, 皆因痰飲食積死血而成也. ○在右食積, 在左血積, 在中痰積也.

울(鬱)은 적(積)·취(聚)·징(癥)·가(瘕)·현(疝)·벽(癖)의 근본이다. 울은 병이 맺혀 흩어지지 않는 것이다. ○기(氣)가 울체되면 습이 생기고, 습(濕)이 울체되면 열이 되고, 열(熱)이 울체되면 담이 되고, 담(痰)이 울체되면 혈이 흐르지 않게 되고, 혈(血)이 울체되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비괴(痞塊)가 생긴다. 이 6가지는 서로 원인이 되어 병이 된다. ○적은 오장에 속하여 음의 성질을 지니고 형태가 있다. 맥은 침(沈)·복(伏)하고 항상 같은 곳이 아프다. ○비(痞)와 현벽(疝癖)은 흉격 사이의 병이고 적취는 배 속의 병으로, 남자에게 자주 생긴다. ○징가(癥瘕)는 하복부에만 나타나며 항상 부인(婦人)에게 생긴다. 이들은 모두 담·음·식적·사혈로 인해 발생한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식적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혈적이며, 가운데 있는 것은 담적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五呼. 或去公孫, 加三里, 治一寸, 補二十呼.〕
- 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공손 대신 삼리를 쓰기도 하는데,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51</sup>. 脈而沈伏 : 脈沈而伏 『동의보감』 ↩

252. 吐復內疾 : 肚腹內疾 ㉞『제증신편』↩

253. 肺見臍下 : 獨見臍下 ㉞『동의보감』↩

#### 1.4.102. 百二 食積 | 102. 식적

食不消化, 成積痞悶.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적(積)이 되어 거북하고 답답한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4.103. 百三 血積 | 103. 혈적

血積, 打撲瘀蓄, 面黃糞黑. 婦人有塊, 多屬死血也.

혈적은 맞거나 넘어져 어혈이 쌓인 것으로 얼굴이 누렇게 검은 대변을 본다.

부인에게 만져지는 덩어리는 대개 사혈(死血)에 속한다.

- 別穴〔治三分, 補七呼.〕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別혈〔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下腹痛, 則加後谿, 治三分, 補七呼.
- 아랫배가 아픈 경우에는 후계를 더 쓰는데,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4.104. 百四 蟲積 | 104. 충적

飯食積聚<sup>254</sup>成蟲.

음식으로 인한 적취로 충(蟲)이 생긴 것이다.

- 別穴〔治三分, 補五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別혈〔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sup>254</sup>. 飯食積聚 : 飮食積聚 ㉞『동의보감』↩

**1.4.105. 百五 諸物傷成積 | 105. 여러 원인으로 생긴 적(積)**

脾胃虛弱, 飲食過多, 常腹脹滿, 得病也.

비위가 허약한데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항상 배가 창만하면 적(積)이 생긴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足三里〔治一寸, 補七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족삼리〔1치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 甚則後谿, 治四分, 補二十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심하면 후계를 쓰는데, 4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1.4.106. 百六 浮腫 | 106. 부종

腫者, 寒熱之氣所聚也. 諸濕充滿<sup>255</sup>而得疾也, 皆屬脾土. 腎者, 胃之關也, 關閉則不利, 故로 聚承<sup>256</sup>而生病.

종(腫)은 한열의 기운이 모인 것이다. 습사(濕邪)로 부어올라 생긴 병으로 모두 비토(脾土)에 속한다. 신(腎)은 위(胃)의 관문이다. 관문이 막히면 흐르지 못하므로 물이 고여 병이 된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援引補七呼.〕
- 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당겨 보한다.〕

<sup>255</sup>. 充滿 : 腫滿 ㉞『동의보감』↩

<sup>256</sup>. 聚承 : 聚水 ㉞『동의보감』↩

#### 1.4.107. 百七 張滿<sup>257</sup> | 107. 창만

穀脹, 生飢傷飽<sup>258</sup>, 痞悶, 朝能食暮不食. 水脹, 水漬腸胃, 溢於皮膚, 漉有聲, 怔忡喘息. ◦氣脹, 七情鬱結, 氣道壅塞, 升降不得, 體腫肢瘦.

곡창(穀脹)은 지나치게 굶주리거나 배불리 먹어 생긴 것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아침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저녁에는 먹지 못한다. 수창(水脹)은 장위에 스며든 물이 피부까지 넘쳐난 것으로 꾸룩 소리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을 헐떡인다. ◦기창(氣脹)은 칠정의 기운이 울결되고 기가 흐르는 길이 막혀 기운이 오르내리지 못하여 생긴 것으로 체간은 부으나 팔다리는 야윈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五呼.〕
- 公孫〔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57</sup>. 張滿 : \*脹滿 ㉠문맥상 ㄹ

<sup>258</sup>. 生飢傷飽 : 失飢傷飽 ㉠『제중신편』 ㄹ

1.4.108. 百八 單腹蟲脹<sup>259</sup> | 108. 배만 부어오르는 고창(蠱脹)

由脾虛之極, 乃眞脹病也. 臍腹四肢悉腫, 爲水. 但腹脹, 四肢不甚腫, 爲鼓<sup>260</sup>.

비(脾)가 극도로 허약하여 생긴 것으로 진짜 창병(脹病)이다. 배꼽 주변 복부와 팔다리가 모두 붓는 것은 수종(水腫)이고, 배만 부어오르고 팔다리는 심하게 붓지 않는 것은 고창(鼓脹)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援補七呼. 或加後谿, 治四分, 補七呼. 或去公孫, 加三里, 治一寸, 補二十呼.〕
- 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당겨 보한다. 후계를 더 쓰기도 하는데, 4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공손 대신 삼리를 쓰기도 하는데,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59</sup>. 單腹蟲脹 : 單腹蠱脹 ㉠문맥상 ㉡

<sup>260</sup>. 爲鼓 : 爲蠱 ㉠『동의보감』 ㉡

1.4.109. 百九 消渴症 | 109. 소갈증

上消, 煩燥, 舌裂, 大渴, 尿數, 能食. ○中消, 善食而瘦, 自汗, 便硬, 尿赤數, 不甚渴.  
下消, 煩燥, 引食, 面黑, 身焦<sup>261</sup>, 尿如膏, 腿膝枯.

상소는 가슴이 답답하여 어쩔 줄 모르고 허가 갈라지며 갈증이 심하고 소변이  
짙으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중소는 음식을 잘 먹으나 야위고 자한(自汗)이  
있으며 대변이 단단하고 소변이 붉으며 짙고 갈증도 심하지 않다. 하소는 가슴  
이 답답하여 어쩔 줄 모르고 음식을 찾으며 낮빛이 검고 귀가 까맣게 마르며  
소변이 기름 같고 다리와 무릎이 마른다.

- 內關〔治三分, 瀉五呼.〕公孫〔治三分, 補五呼.〕
- 內關〔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61</sup>. 身焦 : \*耳焦 ㄱ『제증신편』↩

1.4.110. 百十 黃疸〔附黑疸〕| 110. 황달〔흑달〕

黃疸, 小便面目牙齒肢體, 皆如金, 食已善飢, 安臥懶動. ○酒疸, 心胸懊懣, 欲吐, 不食, 足心熱, 面赤<sup>262</sup>赤班. ㊟穀疸, 食已頭眩腹脹. ○女勞疸, 又名黑疸, 額黑, 微汗, 手足心熱, 方光急<sup>263</sup>, 小便利, 過房, 寒熱, 脾腎俱痛病<sup>264</sup>, 難治

황달(黃疸)은 소변 색과 낮빛과 눈과 이와 몸이 모두 금색과 같은 것으로, 식사한 뒤에 다시 쉽게 허기지고 눕기를 좋아하며 나른하게 움직인다. ○주달(酒疸)은 가슴 속이 괴롭고 토하려 하며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손발바닥에서 열이 나며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긴다. ○곡달(穀疸)은 음식을 먹은 뒤에 머리가 어지럽고 배가 창만하다. ○여로달(女勞疸)은 흑달(黑疸)이라고도 하는데, 이마에 검은 빛이 돌고 조금 땀을 흘리며 손발바닥에서 열이 나고 방광이 당기며 소변이 잘 나온다. 지나친 성생활로 오한과 발열이 있고 비(脾)와 신(腎)이 모두 병든 경우로 치료하기 어렵다.

- 外關〔治三分, 補三分.〕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援補七呼. 或去公孫, 加三里, 治一寸, 二十呼.〕
- 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당겨 보한다. 공손 대신 삼리를 쓰기도 하는데,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262. 赤 : \*發 ㉞『제증신편』↩

263. 方光急 : 膀胱急 ㉞『제증신편』↩

264. 俱痛病 : 俱病 ㉞『제증신편』↩





#### 1.4.111. 百十一 瘧疾 | 111. 학질

冒暑榮衛, 而得秋風也. 在氣早發, 在血晏發. 陽爲腑, 晝發, 陰爲臟, 夜發, 或久必有瘧母, 其間, 陽爲氣虛, 陰爲血虛. 二日連發, 住一日, 發一次, 又夜一發者, 氣血俱病.

침입한 서사(暑邪)가 영위(榮衛) 사이에 머물러 있다가 가을의 풍사(風邪)를 받아 발생한다. 사기가 기분(氣分)에 있으면 아침에 발작하고, 혈분(血分)에 있으면 저녁에 발작한다. 양(陽)은 부(腑)가 되니 낮에 발작하고, 음(陰)은 장(臟)이 되니 밤에 발작한다. 오래되면 반드시 학모(瘧母)가 생긴다. 하루 건너 발작할 경우 낮에 발작하면 기허이고 밤에 발작하면 혈허이다. 2일 연이어 발작하고 하루 쉬었다가 밤낮으로 1번씩 발작하는 것은 기혈이 모두 병든 것이다.

- 間使〔治三分, 瀉七呼.〕三陰交〔治三分, 瀉七呼.〕
- 간사〔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公孫〔治三分, 補七呼, 或微瀉.〕〔發熱, 特大椎四面, 瀉付缸.〕
- 公孫〔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하거나 약하게 사한다.〕〔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대추 사방을 사혈하고 부항을 붙인다.〕

## 1.4.112. 百十二 邪祟 | 112. 사수

能言平生未見聞事, 見五色鬼. 青鬼肝虛, 赤鬼心虛, 黃鬼脾虛, 白鬼肺虛, 黑鬼腎虛, 等及<sup>265</sup> 氣血虛極, 神光不足, 或挾痰火也. 神氣衰乏, 邪因入裏, 氣血兩虛, 痰滯心胸, 升降不得, 以十二官失職, 視聽言動皆妄邪, 非眞邪祟也

평소 보거나 듣지 못한 일에 대해 말하고 다섯 가지 색의 귀신을 본다. 푸른색 귀신을 보면 간이 허한 것이고, 붉은 색 귀신을 보면 심이 허한 것이며, 누런색 귀신을 보면 비가 허한 것이고, 흰색 귀신을 보면 폐가 허한 것이며, 검은 색 귀신을 보면 신이 허한 것이다. 이들은 기혈이 매우 허하고 신광(神光)이 부족한 경우로 담화를 끼기도 한다. 신기(神氣)가 쇠약한 틈에 사기(邪氣)가 몸속으로 침입하고, 기혈이 모두 허하고 담(痰)이 심흉을 막아 기운이 오르내리지 못하여 장부(臟腑)가 기능하지 못하여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망령되고 샛된 것이니 정말로 귀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內關〔治三分, 瀉七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내관〔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臨泣〔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임읍〔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65</sup>. 等及 : 此乃 『제증신편』 [↩](#)

1.4.113. 百十三 癰疽辨膿成深淺 | 113. 응저에 화농 여부와 깊이를 가리는 방법

手掩腫, 熱軟而卽復者, 有膿. 不熱強而<sup>266</sup>不熱強而不復者, 無膿. 按堅硬者, 未膿, 半膿<sup>267</sup>半軟半硬者, 已膿也. ○小按卽痛, 膿成<sup>268</sup>, 重按乃痛, 膿深. ○按腫處, 隨手而起者, 宜卽破之, 初起時刺之泄毒亦可.

손으로 종기를 눌렀을 때 뜨겁고 부드러우며 바로 원래 모양대로 돌아오는 경우는 화농된 것이다. 뜨겁지 않고 단단하며 원래 모양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화농되지 않은 것이다. 눌러보아 단단하면 화농되지 않은 것이고, 절반은 부드럽고 절반은 단단하면 이미 끓은 것이다. ○조금 눌러 바로 아프면 고름이 겉에 있는 것이고, 깊게 눌러야 아프면 고름이 깊이 있는 것이다. ○종기를 눌렀을 때 손을 따라 올라오는 경우는 터뜨려야 한다. 처음 돋았을 때 자침하여 독을 배출시키는 것도 좋다.

266. 不熱強而 : 연문(衍文)으로 번역하지 않았다. 『제증신편』 ↩

267. 半膿 : 연문(衍文)으로 번역하지 않았다. 『제증신편』 ↩

268. 成 : \*淺 『제증신편』 ↩

1.4.114. 百十四 紅絲疔 | 114. 홍사정

一條紅絲直上, 急刺紅絲所止處, 出毒血,<sup>269</sup> 瘡口, 若入心腹則<sup>270</sup> 咽喉, 必致難治.

한 줄기 붉은 실 같은 것이 곧게 올라오면 급히 붉은 실이 멈춘 곳을 침으로 찌러 독혈(毒血)을 빼 내고 부평초나 섬수와 유향을 섞어 창구(瘡口)에 발라준다. 만약 가슴·배 및 인후에 미치면 반드시 치료하기 어렵게 된다.

---

<sup>269</sup>. : \*外付萍草根, 又蟾酥、乳香和塗 ㉞『제중신편』↩

<sup>270</sup>. 則 : 及 ㉞『제중신편』↩

1.4.115. 百十五 大風瘡 | 115. 대풍창

脈風成癩, 榮衛熱腐, 遍身癩疹, 初起白屑紫雲, 或皮落鼻壞, 色敗毛落<sup>271</sup>有脫.

풍사가 맥(脈)에 침입하여 나병(癩病)이 되면 영위가 열을 내며 썩어 온 몸에 나진(癩疹)이 돋는다. 처음에는 흰색 부스러기나 자색 구름 같은 것이 생기다가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며 안색이 나빠지고 체모와 눈썹이 빠진다.

- 足三里〔治一寸, 補二十呼.〕 함곡〔治三分, 補七呼.〕
- 족삼리〔1치 찌르고 24번 내쉴 동안 보한다.〕 합곡〔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太衝〔治三分, 補七呼.〕
- 태충〔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71</sup>. 有 : \*眉 ㉠『제중신편』↩

1.4.116. 百十六 血風瘡 | 116. 혈풍창

生手掌與十指, 痒坼裂走, 皮指<sup>272</sup>脫, 是病性燥, 血熱凝血爲瘡.

손바닥과 손가락에 생기는데 가렵고 갈라지며 피부가 떨어져 나온다. 이 병은 성질이 조(燥)한데, 혈의 열로 혈이 뭉쳐 창이 된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公孫〔治三分, 補五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列缺〔治一分, 瀉五呼.〕
- 열결〔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sup>272</sup>. 皮指 : 의미가 불분명하나 문맥을 근거로 피부로 번역하였다. ↗

1.4.117. 百十七 瘰癧<sup>273</sup>〔附連珠結核〕| 117. 나력〔연주결핵〕

頸前項側, 核如銀杏梅<sup>274</sup>也. 生胸脇腋下, 堅硬如石<sup>275</sup>. 蓋困味厚氣鬱, 與風熱毒蘊積, 而肝胆<sup>276</sup>生筋病, 則累累如珠貫<sup>277</sup>, 寒癰<sup>278</sup>, 孔竅相穿流汁. 氣血虛而痰<sup>279</sup>相乘, 非斷欲絕慮淡食, 不治. 婦人多有之也.

목 앞과 뒷목 옆에 은행·매실·오얏 같은 멍울이 생긴 것이다. 가슴·옆구리·겨드랑이 밑에 생겨 돌처럼 단단한 것은 마도창(馬刀瘡)이라고 한다. 대개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 기가 울체되고 풍열의 독이 쌓여서 생긴다. 간(肝)과 담(膽)이 근(筋)의 병을 주관하므로 구슬을 꿰 듯 늘어서며 오한과 발열이 있고, 화끈거리며 아프고, 구멍이 앞뒤로 뚫려 진물이 흐른다. 기혈이 허약한데 담(痰)과 열이 서로 다투어 생긴 것이니, 욕망과 근심을 끊고 음식을 담담히 먹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 부인에게 많이 생긴다.

- 列缺〔治一分, 瀉七呼.〕臨泣〔治三分, 補七呼.〕
- 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임읍〔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273. 瘰癧 : \*瘰癧 ㉠문맥상 ㄱ

274. 季 : \*李 ㉠『제증신편』 ㄱ

275. : \*曰馬刀瘡也 ㉠『제증신편』 ㄱ

276. 生 : \*主 ㉠『제증신편』 ㄱ

277. 珠貫 : \*貫珠 ㉠『제증신편』 ㄱ

278. 寒癰 : 寒熱癰 ㉠『동의보감』 ㄱ

279. 痰 : 痰熱 ㉠『제증신편』 ㄱ





**1.4.118. 百十八 頭瘡 | 118. 두창**

風熱上升, 頭上生瘡, 項結核.

풍열이 위로 올라 머리 위에 창(瘡)이 생기고, 뒷목에 멍울이 맺히는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列缺〔治一分, 瀉五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 臨泣〔治三分, 補五呼.〕
- 隱白〔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1.4.119. 百十九 內瘡<sup>280</sup> | 119. 내감창

生於口上腭<sup>281</sup>, 初發如蓮花根蒂小, 而下垂乃大.

입천장에 생긴다. 처음에는 연꽃처럼 뿌리와 꼭지가 작다가 아래로 처지면서 커진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公孫〔治三分, 補七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列缺〔治一分, 瀉七呼.〕
- 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280. 內瘡 : 內疳瘡 『제증신편』↩

281. 腭 : 齶 『제증신편』↩

**1.4.120. 百二十 諸傷 | 120. 제상**

從其傷處, 勿論諸傷, 腫而有毒, 則刺之泄毒也.

다친 부위에 따라 어떤 상처든 상관없이 붓고 독이 있으면 침으로 찔러 독을  
배출시킨다.

1.4.121. 百二十一 諸毒 | 121. 제독

諸戰<sup>282</sup>肉毒, 諸禽肉毒, 魚蟹毒, 茶果毒<sup>283</sup>, 豆腐毒, 菜蔬毒, 烟<sup>284</sup>熏毒.

짐승 고기의 독, 새 고기의 독, 물고기와 게의 독, 과일의 독, 두부의 독, 채소의 독, 연기의 독.

- 外關〔治三分, 補五呼.〕列缺〔治一分, 瀉七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1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臨泣〔治三分, 瀉七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임읍〔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或酒毒, 內關, 治三分, 瀉七呼.〕
- 〔주독에는 내관을 쓰는데, 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282. 戰 : 獸 ㉠『제증신편』↩

283. 茶果毒 : 苽果毒 ㉠『제증신편』↩

284. 烟 : \*烟 ㉠문맥상 ↩

1.4.122. 百二十二 中惡〔附尸厥、鬱胃<sup>285</sup>、卒死〕| 122. 중악〔시궐·울모·졸사〕

凡人暮夜登廁，或出郊，或遊空房冷室，忽見鬼物，口鼻吸着，**驚**<sup>286</sup>然倒地，厥冷**握手捲**<sup>287</sup>。○鼻出血，或心腹絞痛，脹滿氣衝，與尸厥同，但腹不鳴，心腹煖。切勿移屍。

중악은 저녁이나 밤에 변소에 가거나 교외에 나가거나 빈 방이나 찬 방에서 머물다가 갑자기 귀신을 보고 입과 코로 나쁜 기운을 들이마셔 돌연 땅에 쓰러져 손발이 싸늘해지고 손을 꼭 찬다. ○코에서 피가 나고, 가슴과 배가 쥐어짜듯 아프거나 창만하고 기가 치미는 것이 시궐(尸厥)과 같지만, 배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가슴과 배가 따뜻하다. 절대로 환자를 옮겨서는 안 된다.

○尸厥者，卽中惡**頰**<sup>288</sup>，凡弔死**同**<sup>289</sup>病，或入**暮**<sup>290</sup>登塚，卒中邪惡，與**臟風**<sup>291</sup>相忤，忽然逆冷，頭面青黑，牙關緊急，昏倒如尸，但氣不絕，脈無**論**<sup>292</sup>，或乍大乍小，或細不見，心胸煖是也。

○시궐(尸厥)은 곧 중악(中惡)의 부류이다. 조문이나 문병을 다녀왔거나, 묘지에 들어갔거나 무덤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나쁜 기운에 맞아 장(臟)의 기운과 서로 뒤섞여 돌연 손발이 싸늘해지고 얼굴이 검푸른 색으로 변하며 입을 악다물고 시체처럼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그러나 호흡은 끊어지지 않고, 맥은 규칙 없이 컸다가 작았다가 가늘어 보이지 않거나 하며, 가슴이 따뜻하다.

- 委中〔治一寸，補二十呼。治后灰入〕
- 위중〔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처치한 뒤에 재를 넣는다**<sup>293</sup>.〕

鬱冒者，亦名血厥，婦人多有，**平**<sup>294</sup>平居無疾，忽如死人，身不動，不知人，目閉，口啞，或如眩暈，移時方**寤**<sup>295</sup>。此由汗血小，氣并于血，陽上氣塞，或乘房勞，因氣血閉。卒死，如尸厥同治，**而或**<sup>296</sup>

울모(鬱胃)는 혈꺼(血厥)이라고도 하며, 부인에게 많다. 평소 질병이 없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눈을 감고 말을 못하며 더러 어지럼증 같기도 한데, 조금 뒤에 깨어난다. 이것은 땀을 흘려 혈(血)이 적어져서, 기와 혈이 다투어 양(陽)이 치솟고 기(氣)가 막힌 것이다. 방로로 기혈이 막혀 생기기도 한다. 갑자기 죽은 경우는 시꺼와 같은 방법으로 처치한다.

- 습꺼〔治三分, 補七呼.〕太衝〔治三分, 補七呼.〕
- 합꺼〔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태충〔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285. 鬱胃 : \*鬱胃 ㉠『제중신편』↩

286. 騫 : 騫 ㉠『제중신편』↩

287. 握手捲 : 握拳 ㉠『제중신편』↩

288. 頰 : 類 ㉠『제중신편』↩

289. 問 : 問 ㉠『동의보감』↩

290. 暮 : \*墓 ㉠『제중신편』↩

291. 臟風 : \*臟氣 ㉠『제중신편』↩

292. 論 : 倫 ㉠『동의보감』↩

293. 처치한 뒤에 재를 넣는다 : 의미 미상 ↩

294. 平 :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

295. 竅 : 竅 ㉠『동의보감』↩

296. 而或 : 연문(衍文)이거나 내용이 누락된 듯하다. ↩





## 1.4.123. 百二十三 鬼魔 | 123. 귀염

鬼折<sup>297</sup>之症, 人至客舍官驛<sup>298</sup>, 及久無人居冷房, 睡而中爲鬼所魔, 吃吃作聲而不星<sup>299</sup>. 刺十二關<sup>300</sup>出血.

귀염(鬼魔)·귀타(鬼打)는 사람이 객사나 역관 및 오래도록 사람이 쓰지 않았던 찬 방에서 자던 중에 귀신에게 가위눌리는 것으로,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고 깨어나지 않는 것이다. 12관<sup>300</sup>에 자침하여 사혈한다.

- 합곡〔治三分, 補七呼.〕太衝〔治三分, 補七呼.〕
- 합곡〔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태충〔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297</sup>. 折 : 打 『제증신편』↩

<sup>298</sup>. 官驛 : 館驛 『제증신편』↩

<sup>299</sup>. 星 : 醒 『제증신편』↩

## 1.4.124. 百二十四 婦人胎漏胎動 | 124. 부인태루태동

孕婦血漏, 屬氣血<sup>300</sup>有熱. 胎動, 下血腹痛, 宜行氣, 胎漏, 下血無腹痛, 宜清熱. ○勞傷, 小腸<sup>301</sup>常墜, 甚則子宮墜出者, 氣陷. ○因母病胎動, 治安<sup>302</sup>, 因胎病致母痰<sup>303</sup>, 安胎則母亦自愈.

임신한 부인이 하혈(下血)하는 것으로 기허에 열이 있기 때문이다. 태동(胎動)은 하혈이 있고 배가 아픈 것으로 행기(行氣) 시켜야 하며, 태루는 하혈이 있으나 배가 아프지 않은 것이니 청열(淸熱) 시켜야 한다. ○노권상으로 아랫배가 항상 처지고 심하면 자궁이 빠져 나오는 것은 기(氣)가 내려앉은 경우이다. ○임신부의 병으로 태동이 된 경우에는 임부의 병을 치료하면 태아가 안정된다. 태아의 병으로 임신부가 병이 된 경우에는 태아를 안정시키면 임부도 낫는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公孫〔治三分, 極補七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 百會〔治三分, 留補二十呼.〕
- 백회〔3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오래 보한다.〕

300. 氣血 : \*氣虛 ㉠『제중신편』↩

301. 小腸 : 小腹 ㉠『제중신편』↩

302. 治安 : 治母則胎安 ㉠『제중신편』↩

303. 痰 : 疾 ㉠동의보감↩



1.4.125. 百二十五 子懸〔附見在腹中尖<sup>304</sup>〕| 125. 자현〔태아가 뱃속에서 우는 경우〕

胎氣不知<sup>305</sup>, 逆上心胸, 脹滿疼痛.

태기가 고르지 못해 심흉으로 거슬러 오르고 창만하며 아픈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五呼.〕公孫〔治三分, 極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

<sup>304</sup>. 見在腹中尖 : 兒在腹中哭 ㉮『제중신편』↩

<sup>305</sup>. 知 : 和 ㉮『제중신편』↩

1.4.126. 百二十六 催産〔附難産、橫産、便産<sup>306</sup>、石産<sup>307</sup>〕 | 126. 최산〔난산·횡산·편산·애산〕

難産者, 交骨不開, 陰氣虛也. 氣血虛, 難産, 胞系於腎, 以此治逆産, 橫産亦同.

난산은 치골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음기가 허한 것이다. 기혈이 허하면 난산이 된다. 포(胞)는 신(腎)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방법으로 역산(逆産)을 치료한다. 횡산(橫産)도 동일하다

- 승골〔治三分, 補七呼.〕三陰交〔治三分, 瀉七呼.〕
- 합곡〔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sup>306</sup>. 便産 : 偏産 ㉠동의보감 ↩

<sup>307</sup>. 石産 : 礙産 ㉠동의보감 ↩

1.4.127. 百二十七 産後發熱 | 127. 산후발열

血虛, 熱入血室, 發悶<sup>308</sup>燥, 晝輕夜重, 或譫語見鬼而寒熱

혈허에 열이 혈실로 들어가서 가슴이 답답해 어쩔 줄 모른다. 낮에는 가볍고 밤에 심해지며, 더러 귀신을 본 듯 헛소리를 하고 한열이 왕래한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後谿〔治三分, 暫瀉七呼.〕
- 外關〔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후계〔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천천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五呼.〕照海〔治三分, 補五呼.〕
- 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조해〔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308. 燥 : \*躁 『동의보감』↩

#### 1.4.128. 百二十八 脫陰 | 128. 탈음

臨産, 用力太過, 陰門脫門脫出<sup>309</sup>, 腫痛. ○産後生腸不收或不飲<sup>310</sup>

출산에 임박해 힘을 지나치게 써서 음문(陰門)이 빠져 나와 붓고 아픈 것이다.

○산후에 장(腸)이 튀어나와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公孫〔治三分, 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照海〔治三分, 補五呼.〕申脈〔治三分, 瀉五呼.〕
- 조해〔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신맥〔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 百會〔治三分, 留補二十呼.〕
- 백회〔3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오래 보한다.〕

<sup>309</sup>. 陰門脫門脫出 : 陰門脫出 『제증신편』 ↩

<sup>310</sup>. 不飲 : 不斂 『제증신편』 ↩

1.4.129. 百二十九 月候不調〔附血閉〕| 129. 월경이 고르지 못한 경우〔혈폐〕

或前或後, 或多或行<sup>311</sup>. 後痛者, 虛也. 多者, 氣虛也. 行經作痛, 及凝塊不散者, 滯也. 不調之中趨前者, 熱也. 常時經前作痛者, 血積也. 經後痛者, 血虛也. 常時發熱, 血虛有積也. 經行發熱者, 血虛有熱也. 熱則瀉, 虛則補.

월경이 이르거나 늦거나,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이다. 월경 후에 아픈 것은 허증이고, 월경혈이 많은 것은 기허이다. 월경이 시작될 때 아프거나 월경혈이 덩어리져 흩어지지 않는 것은 체증(滯症)이다. 월경 주기가 고르지 못한 것 가운데 빨라지는 것은 열증이다. 항상 월경 전에 통증이 생기는 것은 혈적(血積)이다. 월경 전에 아픈 것은 혈허이다. 항상 월경할 때 열이 나는 것은 혈이 허하고 적이 있는 경우이다. 월경 전에 열이 나는 것은 혈이 허하고 열이 있는 경우이다. 열증에는 사하고 허증에는 보한다.

○血閉者, 月事不來, 胞脈閉, 而迫肺心, 氣不下也. 經閉有三, 第一者, 胃弱形瘦, 氣血衰, 不生津液也, 名曰血枯, 此中焦熱結也. 第二者, 便尿不利, 心胞脈洪數, 乃血海乾枯, 毛<sup>312</sup>下焦胞脈熱結也. 第三者, 因勞心, 心火上行, 比<sup>313</sup>上焦<sup>314</sup>心肝肺熱結.

○혈폐(血閉)는 월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포맥(胞脈)이 막혀 폐(肺)·심(心)을 치받아 기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이다. 경폐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위(胃)가 약하고 몸이 마른 경우로, 기혈이 쇠약하여 진액을 만들지 못한 것이니, 혈고라고 한다. 이것은 중초에 열이 맺힌 것이다. 둘째는 소변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이니, 심포맥이 홍삭(洪數)하여 혈해가 마른 것이다. 이것은 하초 포맥(胞脈)에 열이 맺힌 것이다. 셋째는 노심(勞心)으로 심화가 위로 오른 것이다. 이것은 상초 심간폐에 열이 맺힌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後谿〔治三分, 補七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후계〔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다.)

- 或與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삼음교를 쓰기도 한다. (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換<sup>315</sup> 治照海〔治三分, 補七呼.〕申脈〔治三分, 補七呼.〕
- 또는 조해 (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신맥 (3분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311. 行 : \*少 ㉠『제중신편』↩

312. 毛 : \*此 ㉠『제중신편』↩

313. 比 : \*此 ㉠『제중신편』↩

314. 上焦 : \*上焦 ㉠『제중신편』↩

315. 換 : \*或 ㉠문맥상 ↩

1.4.130. 百三十 血崩血漏 | 130. 혈붕혈루

産后下血不止.

산후에 하혈이 멎지 않는 것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公孫〔治三分, 補七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照海〔治三分, 補七呼.〕申脈〔治三分, 暫補<sup>316</sup>瀉七呼.〕
- 조해〔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신맥〔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천천히 사한다.〕

---

<sup>316</sup>. 補 :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

#### 1.4.131. 百三十一 帶下症 | 131. 대하증

任脈自胞上過帶脈貫臍，故濕熱寃結不散爲帶。赤者，熱入小腸屬氣<sup>317</sup>。亦白濁<sup>318</sup>一般，但不備<sup>319</sup>耳。肥人白帶是濕痰，然瘦人白帶是熱。

임맥은 포(胞)에서 위로 대맥(代脈)을 지나 제중(臍中)을 관통한다. 그러므로 습열이 뭉쳐 흩어지지 않으면 대(帶)가 된다. 적대하(赤帶下)는 열이 소장(小腸)에 침입한 것으로 혈(血)에 속하며, 백대하(白帶下)는 열이 대장(大腸)에 침입한 것으로 기(氣)에 속한다. 적백탁(赤白濁)과 같지만 통증이 없을 뿐이다. 살진 사람의 백대하는 습담(濕痰) 때문이고, 마른 사람의 백대하는 열(熱) 때문이다.

○血崩久則亡陽，故日<sup>320</sup>滑之物下流不止，血海將枯。

○혈붕이 오래되면 망양(亡陽)이 된다. 그러므로 희고 미끈한 것이 아래로 흘러 멈추지 않으면 혈해가 마르게 된다.

○五色帶下，白如涕，赤如絳<sup>321</sup>，黃如爛爪，青如藍，黑如衄，五臟俱虛，五色并下，皆血病。

○오색대하에서, 백대하는 콧물 같고, 적대하는 붉은 비단 같으며, 황대하는 문드러진 오이 같고, 청대하는 남색을 띠며, 흑대하는 코피 같다. 오장이 모두 허하면 다섯 가지 색의 대하가 함께 나온다. 모두 혈병(血病)이다.

- 습곡〔治三分，極補五呼.〕太衝〔治三分，極補五呼.〕
- 합곡〔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태충〔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 又治外關〔治三分，補三呼.〕三陰交〔治三分，補五呼.〕
- 또는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照海〔治三分, 補五呼.〕甚則加申脈〔治三分, 補五呼.〕
  - 조해〔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심하면 신맥을 더 쓴다.〔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317. 熱入小腸屬氣 : \*熱入小腸屬血, 白者, 熱入大腸屬氣 ㉞『제중신편』↩

318. 亦白濁 : \*赤白濁 ㉞『제중신편』↩

319. 備 : \*痛 ㉞『제중신편』↩

320. 日 : \*白 ㉞제중신편 ↩

321. 絳 : \*絳 ㉞제중신편 ↩

#### 1.4.132. 百三十二 血塊 | 132. 혈괴

腸覃, 乃寒氣客於大腸與胃, 相搏結而爲覃瘕<sup>322</sup>. 延年日久, 瘕肉乃生, 始如鷄卵, 久如懷孕, 按堅推之移, 月事時下, 或多或少, 此氣病血不病也.

장담(腸覃)은 한기(寒氣)가 대장과 위(胃)에 침입하여 서로 뭉쳐 가(瘕)가 된 것이다. 오래 지나면 식육(瘕肉)이 생겨나 처음에는 계란만 하게 되었다가 오래되면 아이를 뱀 듯하다. 눌러보면 단단하고 밀면 움직이며 월경은 제때 나오지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기(氣)가 병들고 혈(血)은 병들지 않은 것이다.

○石瘕者, 胞中傷損, 瘀血結成, 久則堅硬如石, 寒<sup>323</sup>於子門, 大如懷孕, 月事不下, 乃先感寒氣而後血壅所致也.

○석가(石瘕)는 포 내부가 손상되어 맺혀진 어혈이 오래되어 돌과 같이 단단해지고 산도를 막은 것으로 만져지는 크기가 아이를 뱀 듯하고 월경이 나오지 않는다. 먼저 한기(寒氣)에 감촉된 뒤에 혈(血)이 응체되어 생긴다.

○血<sup>324</sup>, 卽瘕瘕<sup>325</sup>之甚也, 肚腹堅硬如石也.

○혈괴(血蠱)는 징가(癥瘕)가 심한 것으로, 배가 돌처럼 단단하다.

- 外關〔治三分, 補七呼.〕後谿〔治三分, 補七呼, 或二十呼.〕
- 外關〔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후계〔3푼 찌르고 7번이나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別穴〔治三分, 補七呼.〕三陰交〔治三分, 補七呼.〕
- 別혈〔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
- 甚則加足三里〔治一寸, 補二十呼.〕
- 심하면 족삼리를 더 쓴다.〔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322. 覃瘕 : \*瘕 ㄱ『제중신편』 [↩](#)

323. 寒 : \*塞 ㄱ『제중신편』 [↩](#)

324. 血 : \*血蟲 ㄱ『제중신편』 [↩](#)

325. 癥瘕 : \*癥瘕 ㄱ『제중신편』 [↩](#)

1.4.133. 百三十三 小兒急驚風 | 133. 소아급경풍

因聞大聲, 或大驚, 或挾食傷寒, 發搐, 牙關緊急, 搖動<sup>326</sup>竄視, 張口出舌, 角弓反張.

큰 소리를 들었거나 크게 놀라서 생기며, 식상(食傷)이나 상한(傷寒)을 동반하기도 한다. 경련이 일고 입을 악다물며 머리를 흔들고 눈을 치켜뜨며 입을 연 채 혀를 늘어뜨리고 각궁반장이 생긴다.

- 外關〔治一分, 補三呼.〕三陰交〔治一分, 補五呼.〕
- 외관〔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臨泣〔治一分, 暫瀉五呼.〕又治合谷、太衝〔治一分, 極補五呼.〕
- 임읍〔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천천히 사한다.〕또 합곡、태충을 쓴다.〔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sup>326</sup>. 搖動 : 搖頭 ㄹ 제증신편 ↩

1.4.134. 百三十四 慢驚風 | 134. 만경풍

吐瀉日久, 或大病後, 或<sup>327</sup>過寒藥, 脾敗而成. 體冷或熱, 口眼牽引, 宜溫補之已.

여러 날 구토와 설사를 하였거나 큰 병을 앓은 뒤거나 찬 성질의 약을 지나치게 복용하여 비(脾)가 손상되어 생긴다. 몸이 차거나 뜨겁고 입과 눈이 당기니 온보(溫補) 시켜야만 할 뿐이다.

- 합곡〔治三分, 補五呼.〕太衝〔治三分, 補五呼.〕
- 합곡〔3분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태충〔3분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sup>327</sup>. 過 : \*過服 ㉠『제중신편』↩



## 1.4.135. 百三十五 肝氣〔附夜啼〕| 135. 간기〔야제〕

因<sup>328</sup>, 直視, 惡叫<sup>329</sup>, 呵欠, 項急, 煩悶, 甚則風搐拘急. ○常時吐舌.

간이 실하면 눈을 곧추 뜨고 고약하게 소리치며 하품하고 목덜미가 당기며 답답해한다. 심하면 풍搐(風搐)으로 근육이 당긴다. ○항상 혀를 입 밖으로 늘어뜨린다.

夜啼有四, 第一寒, 第二熱, 第三口瘡重舌, 第四客肝<sup>330</sup>中惡.

야제에는 4가지 원인이 있으니, 첫째는 한(寒), 둘째는 열(熱), 셋째는 구창(口瘡)、중설(重舌), 넷째는 객오(客忤)、중악(中惡)이다. // 제증신편에는 “有四, 一寒、二熱、三口瘡、四客忤.”, 동의보감에는 “小兒夜啼有四證. 一曰寒, 二曰熱, 三曰口瘡重舌, 四曰客忤.”

- 外關〔治一分, 補三呼.〕臨泣〔治一分, 暫瀉三呼.〕
- 외관〔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임읍〔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천천히 사한다.〕
- 滯崇, 加三陰交〔治三分, 補三呼.〕
- 체해서 생긴 경우에는 삼음교를 더 쓴다.〔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 〔或後谿, 治四分, 瀉五呼. 又治合谷、太衝, 治一分, 極補五呼.〕
- 〔후계를 쓰기도 하니, 4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또 합곡·태충을 쓰는 데, 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328. 因 : \*實 ㉠『동의보감』↩

329. 惡叫 : 大叫 ㉠『동의보감』↩

330. 肝 : 忤 ㉠『제증신편』↩



#### 1.4.136. 百三十六 痙瘓 | 136. 치경

寒熱似傷寒, 但脈沈遲弦細, 搖頭露眼, 噤口<sup>331</sup>搐弱, 項強<sup>332</sup>反張, 如發癇, 終日不醒爲異, 驚風之類. 柔瘓, 有身軟, 剛瘓, 無汗身強.

상한(傷寒)처럼 오한과 발열이 있으나 맥이 침(沈)·지(遲)·현(弦)·세(細)하고, 머리를 흔들며 눈을 뒤집고 입을 악다물고 경련하며 목이 뻣뻣하고 각궁반장이 있다. 간증(癎症)과 같으나 종일 깨어나지 않는 것이 다르다. 경풍의 종류이다. 유치(柔瘓)는 몸이 뻣뻣하지 않고, 강치(剛瘓)는 땀이 나지 않고 몸이 뻣뻣하다.

- 합곡〔治一分, 補五呼.〕太衝〔治一分, 補五呼.〕
- 합곡〔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태충〔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風市〔治五分, 補二十呼.〕
- 풍시〔5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大人, 則合谷 太衝〔并三分, 補七呼.〕風市〔治一寸, 補二十呼.〕
- 성인은 합곡 태충(모두 3푼씩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하며) 풍시(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를 쓴다.

<sup>331</sup>. 搐弱 : \*搐搦 ㉠『제증신편』↩

<sup>332</sup>. 首 : \*背 ㉠『제증신편』↩

1.4.137. 百三十七 疢病 | 137. 감병

多食肥甘, 或早飲粥<sup>333</sup>, 乳哺不節而得. 而起<sup>334</sup>內熱中滿, 酷嗜瓜果酸醎. 二十前疢, 二十后勞症.

기름지고 단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너무 일찍 밥이나 죽을 먹기 시작하였거나 젖을 불규칙하게 먹어 생긴다. 처음에 몸 속에서 열이 나고 배가 불러 오르면서 과일·신 것·짠 것을 지나치게 좋아한다. 20세 전에는 감병(疢病)이고, 20세 이후는 노증(勞症)이다.

- 外關〔治三分, 補三呼.〕三陰交〔治三分, 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五呼.〕
- 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sup>333</sup>. 早飲粥 : \*朝食飯粥 ㉠『제중신편』↩

<sup>334</sup>. 而起 : 初起 ㉠『제중신편』↩

**1.4.138. 百三十八 解顱 | 138. 해로**

頭縫開解不合, 由腎氣不成, 腦隨虛也.

머리의 솟구멍이 열려 봉합되지 않는 것으로 신기(腎氣)가 여물지 않고 뇌수가 허한 때문이다.

- 승골〔治一分, 極補三呼.〕太衝〔治一分, 極補三呼.〕
- 합곡〔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태충〔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강하게 보한다.〕
- 臨泣〔治一分, 暫瀉五呼.〕
- 迎香〔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천천히 사한다.〕

1.4.139. 百三十九 龜背 | 139. 구배

風入脊骨, 或坐太早, 背突如龜背.

풍사(風邪)가 척골(脊骨)로 들어가거나 너무 일찍 앉아 등이 거북등처럼 솟는 것이다.

- 委中〔治五分, 補二十呼.〕或治長強〔治五分, 三十呼. 大人, 則一寸可.〕
- 위중〔5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장강을 쓰기도 한다.〔5푼 찌르고 3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 성인은 1치까지 찌를 수 있다.〕
- 腎俞〔治五分, 二十呼.〕
- 신수〔5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유침한다.〕

1.4.140. 百四十 龜胸症 | 140. 구흉증

肺熱脹滿, 胸骨高起. 蓋因乳母多食卒熱<sup>335</sup>.

폐(肺)의 열로 창만이 생겨 흉골이 높게 들린 것이다. 대개 유모(乳母)가 맵고 뜨겁게 먹었기 때문이다.

- 委中〔治五分, 補二十呼. 大人, 則治一寸.〕
- 위중〔5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성인은 1치까지 찌른다.〕

---

<sup>335</sup>. 卒熱 : 辛熱 『제중신편』↩

1.4.141. 百四十一 小兒丹毒 | 141. 소아단독

有赤白, 皆因母食五辛, 及尿衣不乾, 濕<sup>336</sup>之毒與血相搏, 而風乘之. 自腹出四肢, 易, 自肢入腹, 難.

붉은 것과 흰 것이 있다. 모두 유모(乳母)가 다섯 가지 매운 채소를 먹고, 오줌  
싼 옷이 축축하여 습열의 독과 혈이 서로 다투는 틈에 풍사가 침범한 때문이  
다. 배에서 시작되어 사지로 나아가면 예후가 좋고, 사지에서 시작되어 배로  
들어오면 고치기 힘들다.

- 外關〔治一寸<sup>337</sup>, 補三呼.〕列缺〔治一分, 瀉五呼.〕
- 外關〔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一分, 補五呼.〕公孫〔治一分, 補五呼.〕
- 삼음교〔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336. 濕 : \*濕熱 ㉠제중신편 ↩

337. 寸 : \*分 ㉠문맥상 ↩



1.4.142. 百四十二 疳眼 | 142. 감안

盲膜不見物也. 食熱太甚故也.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서 생긴다.

- 列缺〔治一分, 瀉五呼.〕臨泣〔治一分, 補五呼.〕
- 열결〔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임읍〔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滯崇, 則加外關〔治一分, 補三呼.〕三陰交〔治一分, 補五呼.〕
- 체해서 생긴 경우에는 외관을 더한다.〔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1.4.143. 百四十三 胎毒 | 143. 태독

胎熱盛, 而生瘡.

태열이 성하여 창(瘡)이 된 것이다.

- 外關〔治一分, 補二<sup>338</sup>呼.〕後谿〔治一分, 瀉三呼. 或去後谿, 治列缺, 治一分, 瀉三呼.〕
- 外關〔1푼 찌르고 3번<sup>339</sup> 내쉴 동안 보한다.〕후계〔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사한다. 후계 대신 열결을 쓰기도 하는데, 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사한다.〕
- 臨泣〔治一分, 補五呼.〕
- 臑管〔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338. 二 : \*三 ㉠문맥상 ↩

339. 3번 : “三呼”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본문에서 이 외에 “二呼”의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또 외관(外關)은 주로 “三呼”로 사용되었다. ↩

1.4.144. 百四十四 痘疹 | 144. 두진

痘餘毒太盛, 以此解之.

두창(痘瘡)의 여독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풀어준다.

- 外關〔治一分, 補三呼.〕列缺〔治一分, 瀉五呼.〕
- 外關〔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一分, 補五呼.〕臨泣〔治一分, 補五呼.〕
- 삼음교〔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임읍〔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1.4.145. 百四十五 腹瘧 | 145. 복학

痰結成母在脇下, 或一日發, 或品日<sup>340</sup>發, 則要寒<sup>341</sup>發熱如瘧.

맺힌 담이 옆구리 아래에 학모(瘧母)를 이룬 것으로, 하루 혹은 하루 걸러 발작하면 학질과 같이 오한과 발열이 생긴다.

- 章門〔治一分, 補五呼.〕三陰交〔治一分, 補五呼.〕
- 장문〔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340. 品日 : 間日 [문맥상 ↩](#)

341. 要寒 : 惡寒 [문맥상 ↩](#)

### 1.5.1. 公孫(父) | 공손(부)

足大指本節后一寸. 內踝前, 足太陰絡脈, 別走陽明胃經. 針三分, 灸三壯. 主寒瘧, 不嗜食, 癰氣, 好太息, 多寒熱, 汗出, 煩心, 狂言, 厥氣上逆. ○<sup>343</sup>霍亂. 實則腸中切痛, 瀉之, 虛則鼓脹, 補之.

첫째발가락 본절 뒤 1촌에 있다. 안쪽복사 앞에서 족태음의 낙맥이 갈라져 족양명위경으로 흐른다. 침은 3푼 깊이로 찌르고, 뜸은 3장 뜬다. 한학(寒瘧),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경우, 간기(癰氣), 잦은 한숨, 심한 오한과 발열, 땀이 나는 경우, 가슴 답답함, 광언(狂言), 귓기의 상역, 객란을 치료한다. ○실하면 장이 끊어지는 듯 아프니 사하며, 허하면 고창(鼓脹)이 생기니 보한다.

心腹五臟病, 與內關主客相應. 九種心痛延悶, 結胸, 翻胃難停, 酒食積聚, 臍腹痛, 脇脹, 腸風, 瘡疾, 胎衣不下, 與池瀉<sup>344</sup>, 公孫立應.

가슴과 배의 오장병을 치료하며, 내관과 주객의 관계로 서로 대응한다. 9가지 심통과 답답함, 결흉, 안정되지 않는 번위(翻胃), 술로 생긴 적취, 제복통, 협창(脇脹), 장풍(腸風), 학질, 태의불하, 설사에 공손을 쓰면 곧 효과가 있다.

343. ○ : 문맥상 “霍亂” 뒤에 와야 한다. ←

344. 池瀉 : 泄瀉 『침구대성』 ←

### 1.5.2. 內關(母) | 내관(모)

心胞經, 去掌二寸, 兩筋間, 緊握券取之. 針一寸二分. 主心<sup>345</sup>脾胃之病, 與公孫二穴主客相之.

심포경에 속한다. 손바닥에서 2치 떨어진 곳에서 두 힘줄 사이에 있으니 주먹을 꼭 쥐고 취혈한다. 침을 1치 2푼 깊이로 찌른다. 심(心)·담(膽)·비(脾)·위(胃)의 병을 치료하며 공손 두 혈과 주객의 관계로 서로 대응한다.

中滿, 心胸痞脹, 腸鳴, 泄瀉, 脫肛<sup>346</sup>, 食難下膈, 積塊堅橫, 婦女脇痛, 心疼, 結胸, 裏急不解胸<sup>347</sup>, 瘧疾, 狎行當內關<sup>348</sup>.

속이 그득한 경우, 심흉이 답답하고 창만한 경우, 장명(腸鳴), 설사, 탈항, 음식을 내려보내기 힘든 경우, 비괴로 단단히 막힌 경우, 부인과 여자의 협통, 심통, 결흉, 견디기 힘든 이급(裏急), 상한이 풀리지 않는 경우, 결흉, 학질에 내관만이 마땅하다.

實則心暴痛, 瀉之. 虛則頭強, 補之.

실하면 가슴이 갑자기 아프니 사하고, 허하면 머리와 목이 뻣뻣해지니 보한다.

345. 脾 : \*膽 ㉠『침구대성』↩

346. 脫肛 : \*脫肛 ㉠『침구대성』↩

347. 裏急不解胸 : \*裏急難當, 傷寒不解, 結胃膈 ㉠『침구대성』↩

348. 狎行當內關 : \*內關獨當 ㉠『침구대성』↩



### 1.5.3. 後谿(夫) | 후계(부)

小腸經, 小指本節後, 外側骨縫中, 緊握拳尖上, 針一寸. 主頭面項頸病, 與申脈主客相應.

소장경에 속한다. 다섯째 손가락 본절 뒤에서 바깥쪽 뼈가 만나는 부분으로 주먹을 꼭 쥐면 튀어나오는 곳이다. 침을 1치 깊이로 찌른다. 머리와 얼굴과 목의 병을 치료하며, 신맥과 주객의 관계로 서로 대응한다.

○手足拘攣戰掉, 中風不已<sup>349</sup>, 癲癇, 頭疼, 眼腫淚漣漣, 眼膝<sup>350</sup>背腰痛遍, 項强, 傷寒不解, 牙齒腮腫咽喉, 手麻足麻, 破傷牽, 溫汗<sup>351</sup>, 先砭後谿.

○팔다리의 구축(拘縮)과 떨림, 중풍으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 전간, 두통, 눈이 붓고 눈물이 흐르는 경우, 다리·무릎·등·허리가 모두 아픈 경우, 항강, 상한이 풀리지 않는 경우, 이와 인후의 병과 뺨이 붓는 경우, 팔다리의 마목(麻木), 파상풍으로 인한 강직, 도한에 먼저 후계를 찌른다.

此穴, 手太陽小陽脈所注爲兪木, 小腸而虛, 補之. 銅人, 針一分, 留二呼, 灸一壯. 主瘧寒熱, 目赤生翳, 鼻衄, 耳聾, 胸滿, 項頂<sup>352</sup>不顧, 癲疾, 臂肘急攣, 痲疥.

이 경혈은 수태양소장맥의 수혈(輸穴)·목혈(木穴)이다. 소장이 허하면 보해 준다. 『동인경』에 침은 1푼 깊이로 찌르고 2번 내쉴 동안 유침하며, 뜸은 1장 쓰라고 하였다. 학질로 한열이 왕래하는 경우, 눈이 충혈되고 예막이 생긴 경우, 코피가 나는 경우, 귀가 들리지 않는 경우, 가슴이 그득한 경우, 항강으로 목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 전질(癲疾), 팔·팔꿈치의 당김, 가개(痲疥)를 치료한다.

349. 已 : \*語 ㄱ『침구대성』↩

350. 眼膝 : 腿膝 ㄱ『침구대성』↩



351. 溫汗 : 盜汗 ㄱ 침구대성 ㄷ

352. 頂 : 強 ㄱ 『침구대성』 ㄷ

#### 1.5.4. 申脈(妻) | 신맥(처)

膀胱經, 足外踝下五分陷中, 赤白肉際, 直立而取之. 針一寸. 主四肢風邪, 癰<sup>353</sup>毒病, 與後谿相應.

방광경에 속한다. 발 가쪽복사에서 5푼 아래 움푹한 곳 적백육제로, 바르게 서게 한 뒤 취혈한다. 침을 1치 깊이로 찌른다. 사지의 풍사, 옹독(癰毒)으로 인한 병을 치료하며, 후계와 서로 대응한다.

腰背屈強, 腿腫, 惡風自汗, 頭痛, 手足麻攣, 臂冷, 耳聾, 鼻衄, 癰間<sup>354</sup>, 肢節煩愠, 編身<sup>355</sup>腫滿, 汗頭淋, 申脈先針有應.

허리와 등이 굽어지지 않는 경우, 다리가 붓는 경우, 오통과 자한이 있는 경우, 두통, 수족의 마목과 경련, 팔이 시린 경우, 귀가 들리지 않는 경우, 코피, 전간, 팔다리 관절이 쑤시는 경우, 온몸이 부어오르는 경우,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경우에 신맥에 우선 침을 놓으면 효과가 있다. 又主風眩, 腰脚痛, 疔瘻不能久立如左<sup>356</sup>舟中, 勞極, 冷氣, 逆氣, 腰髀痺, 脚膝屈伸難, 婦人血氣痛, 潔舌白<sup>357</sup>. 또 풍현, 허리와 다리의 통증, 정강이가 시큰하여 배 안에 있는 듯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경우, 심한 허로, 냉기와 역기(逆氣), 허리와 엉치의 비증(痺證), 무릎을 구부릴 수 없는 경우, 부인의 혈기통(血氣痛)을 치료한다. 장결고(張潔古)는 간병(癰病)이 낮에 발작했을 때에는 양교맥에 뜸을 뜨라고 하였다.

353. 癰 : \*癰 ㄱ『침구대성』↩

354. 癰間 : 癰癰 ㄱ『침구대성』↩

355. 編身 : \*遍身 ㄱ『침구대성』↩

356. 左 : \*在 ㄱ『침구대성』↩

357. : \*癰病晝發灸陽蹻  『침구대성』 

### 1.5.5. 臨泣(男) | 임읍(남)

但<sup>358</sup>經, 足小指次指外側, 本節中節<sup>359</sup>骨縫內, 去一寸是. 針五分. 主四肢病, 與外關主客相應.

담경(膽經)에 속한다. 넷째발가락 바깥쪽 본절 가운데 힘줄과 뼈가 만나는 곳에서 1치 떨어진 곳이다. 침을 5푼 깊이로 찌른다. 팔다리의 병을 치료하며, 외관과 주객의 관계로 서로 대응한다.

手足中風不舉痛, 頭風項痛, 齒痛, 耳聾, 咽腫, 浮風, 臨泣針時有驗.

중풍으로 팔다리를 가누지 못하며 아픈 경우, 두풍(頭風)으로 뒷목까지 아픈 경우, 치통, 귀가 들리지 않는 경우, 목이 붓는 경우, 풍으로 부은 경우에 임읍에 침을 놓으면 바로 효과가 있다.

婦人月事不利, 波漸<sup>360</sup>振寒, 心痛, 周髀<sup>361</sup>痛無常處, 厥逆, 氣喘不能<sup>362</sup>.

부인의 월경곤란, 오싹하게 춥고 떨리는 경우, 심통, 여기저기 아픈 주비(周痺), 곁역, 숨이 차서 걷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358. 但 : 膽 ㉠『침구대성』↩

359. 節 : 筋 ㉠『침구대성』↩

360. 波漸 : \*洒漸 ㉠『침구대성』↩

361. 周髀 : \*周痺 ㉠『침구대성』↩

362. 不能 : \*不能行 ㉠『침구대성』↩



### 1.5.6. 外關(女) | 외관(여)

三焦經, 掌背去腕二寸, 骨縫兩筋陷中. 伏手取之. 一寸二分. 主風寒經絡皮膚, 與臨泣主客相應.

삼초경에 속한다. 손등쪽 손목에서 2촌 떨어져 뼈가 갈라진 곳 두 힘줄 사이이다. 손을 얹어 취혈한다. 침을 1치 2푼 깊이로 찌른다. 풍한(風寒)·경락·피부의 병을 치료하며, 임읍과 주객의 관계로 서로 대응한다.

肢節腫痛, 膝冷, 四肢不遂, 頭風, 背<sup>363</sup> 內外骨筋攻, 頭項<sup>364</sup> 皆痛, 手足熱麻, 盜汗, 破傷, 跟腫, 青紅<sup>365</sup>, 傷寒自汗表烘烘, 獨會外關爲重.

사지 관절이 붓고 아픈 경우, 시린 무릎, 팔다리를 가누지 못하는 경우, 두풍, 등과 허리 안팎의 뼈와 힘줄의 통증, 머리·뒷목·미륵골 모두의 통증, 손발이 열감과 마목(麻木), 도한, 파상풍, 뒷꿈치가 붓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상한에 자한이 있고 겉에 열이 심한 경우, 외관만이 주효하다.

耳聾渾渾惛惛無聞, 五指盡痛不能握物. 實則肘攣, 瀉之, 虛則不<sup>366</sup> 吸, 補之. 又治手臂不得屈伸.

귀가 먹어 잘 들리지 않는 경우, 다섯 손가락이 모두 아파 물건을 쥐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실하면 팔꿈치가 떨리니 사하고, 허하면 굽히지 못하니 보한다. 또 팔꿈치를 펴고 굽히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sup>363</sup>. 膝 : 膝 『침구대성』 ↩

<sup>364</sup>. 肩稜 : 肩稜 『침구대성』 ↩

<sup>365</sup>. 青紅 : \*睛紅 『침구대성』 ↩

<sup>366</sup>. 吸 : \*收 『침구대성』 ↩



### 1.5.7. 列缺(主) | 열결(주)

肺經, 手腕內則<sup>367</sup>一寸五分, 手交叉食指盡處骨間是也. 針八分. 主心腹脇肋五臟病, 與照海相應.

폐경(肺經)에 속한다. 손목 안쪽 1치 5푼 되는 부분으로 손을 교차하여 둘째 손가락 끝이 닿는 곳 두 뼈 사이에 있다. 침을 8푼 깊이로 찌른다. 가슴·복부·옆구리·늑골과 오장병을 치료한다. 조해와 서로 대응한다.

痔瘡便重<sup>368</sup>, 泄痢, 唾紅, 溺血, 咳嗽<sup>369</sup>, 牙疼, 喉腫, 小便難, 心胸腹痛, 噎嚥, 産後發強不語, 腰疼血疾, 臍寒, 死胎不下, 膈中寒, 列缺多散亂癰<sup>370</sup>.

치(痔)·학(瘡), 부종, 설사, 타혈(唾血), 뇨혈(尿血), 가래 끓는 기침, 어금니의 통증, 목구멍이 부은 경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가슴과 배의 통증,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 출산 후 몸이 강직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 허리의 통증과 혈질(血疾), 제한(臍寒), 사태(死胎)가 나오지 않는 경우, 흉격에 한사(寒邪)가 침입한 경우를 치료한다. 열결은 유옹(乳癰)도 잘 푼다.

熱病汗不出, 咳逆, 肘臂厥痛屈伸難, 手不及頭, 指不握, 吐血, 失音, 咽腫, 頭痛<sup>371</sup>. 又主編風<sup>372</sup>口喎斜, 手腕無力, 半身不遂, 掌中熱, 噤不開, 寒熱瘧, 嘔沫, 咳嗽, 善笑, 健忘, 溺血, 精出, 陰莖痛, 小便熱, 癰驚, 忘見, 肩脾<sup>373</sup>, 胸背寒慄, 少氣不足息, 尸厥, 寒熱. 實則胸背熱汗出, 四肢暴腫, 虛則胸背寒慄, 少氣不足以息. 素問, 實則手銳掌熱瀉之, 虛則欠故則便遺數, 補之.

열병에 땀이 나지 않는 경우, 해역(咳逆), 팔과 팔꿈치가 아파 굽히고 펴기 어렵고 손이 머리에 닿지 않으며 손가락을 굽혀 주먹을 쥌 수 없는 경우, 토혈(吐血), 실음(失音), 목구멍이 붓는 경우, 두통을 치료한다. 또 몸 한쪽에 풍사가 들어 구안와사가 생기고 손과 손목에 힘이 없으며 몸 한쪽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 손바닥에서 열이 나는 경우, 입을 악다물어 벌리지 못하는 경우, 한열이 왕래하는 학질, 거품을 게워내는 경우, 해수, 잦은 웃음, 건망, 뇨혈(尿血), 유정



(遺精), 음경의 통증, 소변 볼 때 작열감이 있는 경우, 간(癰)·경(驚), 헛것을 보는 경우, 견비(肩痺), 가슴과 등에 오한이 들고 떨리는 경우, 숨 쉬기 어려울 정도로 호흡이 얇은 경우, 시결(尸厥), 한열왕래를 치료한다. 실패하면 가슴과 등이 뜨겁고 땀이 나며 팔다리가 갑자기 붓는다. 허하면 가슴과 등에 오한이 들고 떨리며 숨 쉬기 어려울 정도로 호흡이 얇다. 『소문(素問)』에서 “실패하면 어제혈 부위와 손바닥에 열이나니 사하고, 허하면 입을 벌려 하품을 하고 변을 지리거나 자주 보니 보하라.”고 하였다.

367. 內則 : \*內側 ㉠『침구대성』↩

368. 便重 : \*便腫 ㉠『침구대성』↩

369. 咳嗽 : 咳痰 ㉠『침구대성』↩

370. 亂癰 : 乳癰 ㉠『침구대성』↩

371. 熱病汗不出, 咳逆, 肘臂厥痛屈伸難, 手不及頭, 指不握, 吐血, 失音, 咽腫, 頭痛 : 『침구대성』에는 공최(孔最)의 주치로 되어 있다. ↩

372. 編風 : 偏風 ㉠『침구대성』↩

373. 肩脾 : \*肩痺 ㉠『침구대성』↩

## 1.5.8. 照海(客) | 조해(객)

腎經, 足內踝下陷中. 令人穩座, 兩足底相合, 取之. 針一寸二分. 主臟府病, 與列缺主客相應. 喉塞, 小便淋澁, 膀胱氣痛, 腸鳴, 食黃, 酒積腹臍并, 嘔瀉, 胃翻, 便緊, 難產, 昏迷, 腸風下血常頻, 膈快<sup>374</sup>氣核侵, 照海有功必矣.

신경(腎經)에 속한다. 발 안쪽복사 아래 움푹한 곳이다. 환자를 바닥에 편안히 앉게 한 뒤 두 발바닥을 맞닿게 한 후 취혈한다. 침을 1치 2푼 깊이로 찌른다. 장부의 병을 치료하며, 열결과 주객의 관계로 서로 대응한다. 목구멍이 막힌 경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방광기통(膀胱氣痛), 장명(腸鳴), 식체로 인한 황달, 제복(臍腹)에 생긴 주적(酒積), 구토와 설사, 번위(翻胃), 변을 보기 어려운 경우, 난산, 혼미, 장풍(腸風)으로 항상 빈번히 하혈하는 경우, 불만으로 가슴 속에 응어리가 생긴 경우에 조해가 반드시 효과가 있다.

又主咽乾, 心悲不樂, 嘔吐, 嗜臥, 大風默默不知所痛, 小腸<sup>375</sup>而痛, 婦人經逆, 四肢浮樂<sup>376</sup>, 陰暴跳起, 或癢漉清汁, 小腹偏痛, 淋, 陰挺出, 月水不調. 潔舌<sup>377</sup>曰, 癰夜發灸照海穴

또 목구멍이 건조한 경우, 마음이 슬프고 즐겁지 않은 경우, 구토, 누우려고 하는 경우, 대풍(大風)을 맞아 말을 못하고 아픈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랫배의 통증, 부인의 착경망행(錯經妄行), 팔다리가 힘없이 저리고 무거운 경우, 갑자기 발기하거나 성기가 가렵고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경우, 아랫배 한쪽이 아픈 경우, 임증(淋症), 부인의 밑이 빠지는 경우, 월경이 고르지 못한 경우를 치료한다. 장결고(張潔古)는 간병(癰病)이 밤에 발작하면 조해에 뜸을 뜨라고 하였다.

374. 快 : \*快 ㄱ『침구대성』↩

375. 小腸 : \*小腹 ㄱ『침구대성』↔

376. 浮樂 : \*淫樂 ㄱ『침구대성』↔

377. 潔舌 : \*潔古 ㄱ『침구대성』↔



1.6.1. 一, 滯瘡 | 1. 체학

- 外關〔治三分, 補三呼.〕列缺〔治一分, 瀉五呼.〕內關〔治三分, 瀉七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내관〔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사한다.〕
- 三陰交〔治三分, 補七呼.〕公孫〔治三分, 補五呼.〕
- 삼음교〔3푼 찌르고 7번 내쉴 동안 보한다.〕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1.6.2. 二, 急關隔<sup>378</sup> | 2. 급관격

- 合谷、太衝〔各治三分, 各補五呼. 又治左右三里, 各一寸, 補二十呼.〕
- 합곡、태충〔각각 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또 좌우 삼리를 찌르는데, 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

378. 關隔 : 關格 [☞ 문맥상](#) [←](#)

### 1.6.3. 三, 鶴膝風 | 3. 학슬풍

- 中腕〔治一寸, 補二十呼.〕 膝眼〔治一寸, 補二十呼.〕 三里〔治一寸, 補二十呼.〕 委中〔治一寸, 補二十呼.〕
- 중완〔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슬안〔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삼리〔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위중〔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6.4. 四 肝氣 | 4. 간기

- 合谷、太衝〔各治一分, 補三呼.〕外關〔治一分, 補三呼.〕
- 합곡、태충〔각각 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외관〔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列缺〔治一分, 補三呼.〕三陰交、臨泣〔各治一分, 各補三呼.〕
- 열결〔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임읍〔각각 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 人中〔治一分, 補三呼.〕
- 인중〔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6.5. 五, 癩痒症 | 5. 소양증

- 外關〔治三分, 補三呼.〕照海〔治四分, 補五呼.〕列缺〔治一分, 瀉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조해〔4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1.6.6. 六, 痲癰 | 6. 비웅

- 外關〔治三分, 補三呼.〕照海〔治四分, 補五呼.〕列缺〔治一分, 瀉五呼.〕
- 외관〔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조해〔4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사한다.〕

#### 1.6.7. 七, 積病 | 7. 적병

- 外關〔治三分, 補五呼.〕別穴〔治三分, 補五呼.〕三陰交〔治二分, 補五呼.〕
- 외관〔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별혈〔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삼음교〔2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 公孫〔治三分, 補五呼.〕天樞〔治三分, 補三呼.〕
- 공손〔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천추〔3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1.6.8. 八, 呃氣 | 8. 애기**

- 後谿〔治三分, 補五呼.〕甚則下三里〔治一寸, 補二十呼.〕
- 후계〔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심하면 족삼리를 쓴다.〔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 1.6.9. 九, 무사마귀 | 9. 무사마귀

- 後谿〔治半寸, 補二十呼.〕
- 후계〔0.5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1.6.10. 十, 가래툰 | 10. 가래툰**

- 太溪〔治三分, 補五呼.〕甚則環跳〔左病右治.〕
- 태계〔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심하면 환도를 쓴다〔오른쪽 병에 왼쪽 경혈을, 왼쪽 병에 오른쪽 경혈을 쓴다.〕

**1.6.11. 十一, 小兒腹瘡 | 11. 소아복학**

- 在左右章門. 治章門, 三陰交〔治一分, 補三呼.〕
- 좌우 장문 부위에 생긴다. 장문·삼음교를 쓴다. (1푼 찌르고 3번 내설 동안 보한다.)

1.6.12. 十二, 痰癖 | 12. 담벽

- 外關〔治一分, 補五呼.〕列缺〔治一分, 瀉三呼.〕三陰交、公孫、臨泣〔各治一分, 補三呼.〕
- 外關〔1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열결〔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사한다.〕삼음교、공손、임읍〔각각 1푼 찌르고 3번 내쉴 동안 보한다.〕



**1.6.13. 十三, 胸滿痛 | 13. 흉만통**

- 外關、三陰交、公孫、三里〔各治三分, 補五呼.〕
- 외관、삼음교、공손、삼리〔각각 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1.6.14. 十四, 두두래기 | 14. 두드러기**

- 外關、照海、列缺〔治各三分, 補五呼.〕
- 외관、조해、열결〔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

**1.6.15. 十五, 痰積 | 15. 담적**

- 外關、列缺、三陰交、公孫〔各治三分, 補各二十呼.〕
- 외관、열결、삼음교、공손〔각각 3푼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1.6.16 十六, 血塊 | 16. 혈괴**

- 外關、三陰交、公孫〔各治三分, 補五呼.〕中脘〔治一寸, 補二十呼.〕
- 외관、삼음교、공손〔각각 3푼 찌르고 5번 내쉴 동안 보한다.〕중완〔1치 찌르고 20번 내쉴 동안 보한다.〕

1.6.17. 十七, 小兒癇氣 | 17. 소아간기

- 銅針合谷 三分, 曲池、行間、三陰交、足三里、頰車. 葉針<sup>379</sup>白會、人堂、人中、承漿.
- 동침(銅鍼)으로 합곡 3푼, 곡지、행간、삼음교、족삼리、협거를 자침한다. 엽침(葉鍼)으로 백회、인당、인중、승장을 자침한다.

---

<sup>379</sup>. 白會 : 百會 ㄱ문맥 ↩

**1.6.18. 十八, 小便不利、淋疾等 | 18. 소변불리、임질 등**

- 大敦、中封、三陰交
- 대둔、중봉、삼음교

完

끝.

## 2.1. 일러두기

- 1940년 일본 황한의학서사전회(皇漢醫書寫傳會)에서 간행한『朝鮮秘傳 藏珍要編』<sup>380</sup>을 저본으로 삼고 관련 서적들로 대교하여 번역하였다.
- 본문 이외에 황한의학서사전회 간행 시에 포함된 속표지나 간행기의 내용은 생략하였다.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좇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본문은 여러 차례 전사되어 글자의 오류가 매우 많다. 인용 관계에 있는 의서의 유관 내용,『장진요편』내 용례, 전후 문맥을 근거로 고증하였다. 그 결과는 교감기로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 로 표시하였다.
- 본문에 현토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현토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번역하였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글자는 표시 없이 수정해 넣었다.
  - 燥가 躁를 의미하는 경우 躁로 수정
  - 后가 後를 의미하는 경우 後로 수정
  - 後溪 → 後谿, 藿亂 → 霍亂, 大沖 → 太衝, 列決 → 列缺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기호가 사용되었다.
  - [ ... ] : 본문 가운데 소자(小字)
  - ☒ : 판독 안되는 글자
  - ㉿ : 원문에 없으나 의미상 추가한 권점
- 본문에 사용된 보사법은 의미를 상고하기 어려워 글자의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괄 번역하였다.

- 極補 “강하게 보한다.”, 留補 “오래 보한다.”, 援補(援引補) “당겨 보한다.”
  - 暫瀉(漸瀉) “천천히 사한다.”, 徐瀉 “서서히 사한다.”, 微瀉 “약하게 사한다.”
- 

<sup>380</sup> : 표제지 기준, 판권지에는 “朝鮮家傳 藏珍要編”으로 되어 있다.



## 2.2. 해제

19세기 조선은 황도연(黃度淵, 1807-1885), 이제마(李濟馬, 1837-1900), 이규준(李圭駿, 1855-1923) 등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대이다. 이들의 주도 하에 실용임상의학, 사상체질의학(四象體質醫學), 부양론(扶陽論) 등 기존 의학관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이런 학문적 분위기에 힘입어 침구학에 있어서도 이론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실질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장진요편(藏珍要編)』은 19세기말 조선의 침구서 가운데 하나로서, 당시 조선 침구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 2.2.1. 유전과정

『장진요편』은 고종 31년(1894, 갑오) 송계(松溪)가 저술한 한국의 침구학 전문의서이다. 이 책의 간행본은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유일한 사본(寫本)이 일본에 전해져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본은 일본의 침구학자 야나기야 소레이(柳谷素靈, 1906-1959)가 소장하고 있었으나 현재 그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하 “야나기야본”).

오늘날 이 책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2가지로, 1940년 황한의서사전회(皇漢醫書寫傳會)에서 야나기야본을 다시 필사하여 간행한 등사본(이하 “황한의서사전회본”)과 1988년 이케다 마사카즈(池田政一)가 일역(日譯)하고 해설을 덧붙여 의도 의일본사(醫道の日本社)에서 간행한 『장진요편(藏珍要編) : 조선의 침법(朝鮮の鍼法)』(이하 “이케다해설본”)이다. 야나기야본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이케다해설본은 원문 없이 일역문만 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황한의서사전회본이 원본에 가장 충실한 사료이다. 황한의서사전회본은 일본 치바대학(千葉大學) 도서관에 소

장되어 있으며, 1991년 일본 오리엔트출판사(オリエント出版社)에서 간행한 『임상 침구고전전서(臨床鍼灸古典全書)』 제33권에도 영인되어 있다.

### 2.2.2. 저자

이 책의 저자는 서문을 통해 송계(松溪)<sup>381</sup>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송계는 저자의 호(號)로 추정된다. 그의 행적에 대해 알 수 있는 바는 거의 없다. 다만 서문에서 자신을 “後學 江陽後人”이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저자의 본관이나 세거지(世居地)가 강양(江陽, 지금의 경남 함천)인 것으로 보이며, 다년간 임상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던 인물임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 2.2.3. 구성

책은 서문(序文), 장부총론(臟腑總論), 범례(凡例) 및 각 병증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서문과 범례가 이웃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전되는 과정에서 차서가 바뀌었거나 후에 장부총론이 추가된 것이 아닌가 한다.

각론 부분에서는 중풍(中風)을 시작으로 복학(腹癰)까지 145개의 병증문으로 나누어 병증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침 치료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 병증문에 실려 있는 의론은 대부분 강명길(康命吉)의 『제중신편(濟衆新編)』(1799)에서 인용한 것이며, 일부 내용은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따랐다. 병증문 뒤에는 ‘경혈(經穴)’을 두어 본문에서 주로 사용한 팔맥교회혈(八脈交會穴)의 혈위와 주치증상을 설명하였다. 이 내용은 『침구대성(鍼灸大成)』에서 주로 인용된 것이다. 권말에는 병증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병증 18가지에 대한 침 치료 방법이 추가로 실려있다.

### 2.2.4. 의학관

이 책은 기존의 침구의서와는 차별화된 내용과 치법을 담고 있다. 우선 침구서적임에도 불구하고 권두에 장부에 관한 의론을 적지 않은 분량으로 실었고, 병증 설명에는 종합의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삼았다. 또 비교적 적은 수의 요혈(要穴)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병증을 치료하였다.

그럼에도 이 책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사암침법에서 드러나듯 이미 조선에서 침법과 장부 이론이 임상적인 수준에서 융합되었고 요혈의 배합을 통한 치료법도 시도된 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책의 「장부총론」은 조선의가들이 친숙한 『의학입문(醫學入門)』에서 인용되었으며, 병증에 대한 설명 역시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제중신편(濟衆新編)』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이 책에는 팔맥교회혈(八脈交會穴)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기존 기경팔맥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 보다는 십이경맥(十二經脈)의 대표 경혈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책의 저자는 십이경맥의 대표 혈들을 하나 혹은 두 개씩 뽑아내어 경혈의 개수를 최소화하고, 이들을 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흔히 경맥을 대표하는 경혈이라고 하면 원혈(原穴)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저자는 팔맥교회혈을 중심으로 선혈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아울러 병의 발생을 정사(精邪)의 성쇠(盛衰)로 보고, 치료에 있어서 먼저 병자의 기질(氣質)을 살피고 다음으로 병증의 경중(輕重)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병의 치료를 위해 삼초(三焦)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고 본문에서 외관(外關)을 빈번히 사용한 점, 침자수기법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보사(補瀉)와 냉온(冷溫)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한 점 등도 이 책의 특징이다.

## 2.2.5. 참고문헌

- 松溪. 『朝鮮家傳 藏珍要編』. 皇漢醫書寫傳會. 1940.
- 『臨床鍼灸古典全書』 第33卷. オリエント出版社. 1991.
- 池田政一. 『藏珍要編: 朝鮮의 鍼法』. 醫道の日本社. 1988.
- 오준호. 「19세기 조선 침구서 장진요편의 침법 연구」. 『경락경혈학회』. 2010:159-168.

- 김도훈, 백유상. 「『藏珍要編』의 選穴特性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13:291-304.

#### 2.2.6. 감사의 글

치바대학(千葉大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황한의서사전회본의 존재를 알려 주시고 아울러 서영(書影)을 제공해 주신 경희대학교 백유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2.2.7. 부록

藏珍要編序

凡人之生也。皆具五行之精。而每於風寒暑濕。從其不足處。外作生病者也。當其治病。必先審人之氣質。外正察病之輕重。此其大概也。雖看氣察其病之所在。當穴投之當出。外有異言。外何者。不知天稟之不足。外但量病勢之沉重。外且看為人之輕重。軟弱。外不度病之滯疾。外以輕治重。外以重治輕。外三焦經絡不能均平。而然矣。外豈不誤哉。外予則識見外淺短。外且學外不長。外然外幾年以來。耳聞目見。外多有驗之確證。故至略具一二。外以備要覽而近求也。俗但稱服藥。外誠中補。外滋陰。外之玄妙。外良可歎也。外觀其人之動靜。外高下。外病之本。外外神中。外有溫中有冷。外通中於宗賦。外

[그림 1] 야나기야본 서문 (이케다해설본에 수록된 서영)



[그림 2-1] 황한의서사전회본 표지

朝鮮家傳藏珍要編 全

柳谷素靈撰

皇漢醫書會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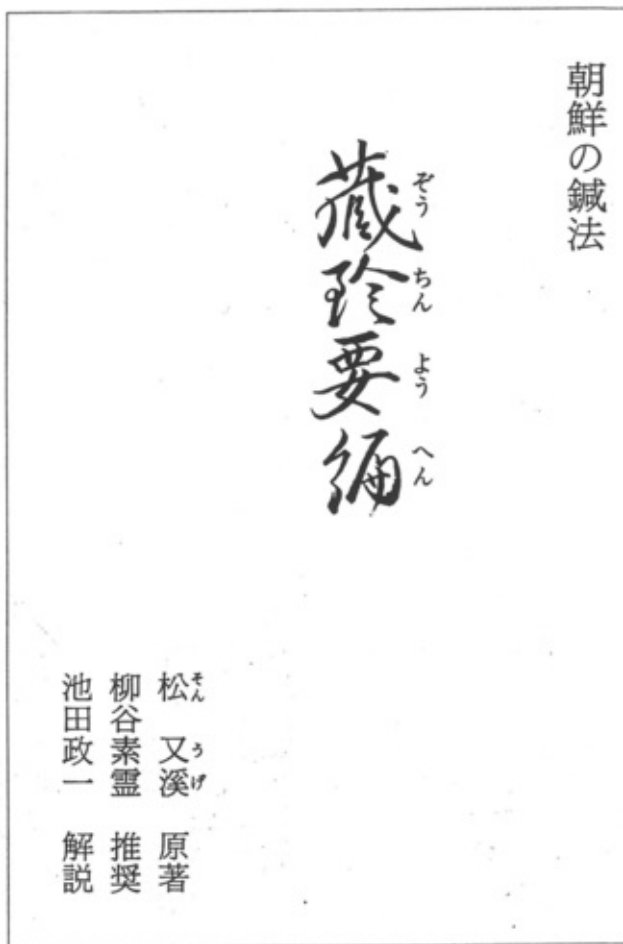
[그림 2-2] 황한 의서사전 회본 속표지

## 藏珍要編序

凡人之生也皆具五臟之精而每於風寒暑濕則從其不足處ハ水  
 生病者也ハ當其治病也ハ先看人之氣質ハ其次察病之輕重ハ此  
 是大槩也ハ雖者其氣察其病治之ハ正當穴投之當藥也ハ反其害  
 也ハ何者ハ不知天稟之不足也ハ但量病勢之沉重也ハ且看爲人  
 之輕重軟弱也ハ不度病症之痼疾也ハ以輕治重也ハ以重治輕也  
ハ水三焦經絡也ハ不能拘平而然矣ハ豈不誤哉也ハ予則識見外滋短也  
ハ所學也ハ予長也ハ然也ハ幾年以來予耳聞目見也ハ多有多驗也ハ確  
 定故也ハ畧具一二也ハ水以備要覽而近來世俗也ハ但稱服也ハ未識鍼  
 法也ハ補瀉溫冷之玄妙也ハ良可歎也ハ觀其人之動靜也ハ審其病

[그림 2-3] 황한의원서사전회본 서문





[그림 3] 이케다해설본 속표지

<sup>381</sup> 송계(松溪): 이케다해설본에는 “松又溪”로 되어 있으나 오류로 보인다.

## 출판사항

<참고> 글꼴 설정을 "원본"으로 지정해야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글꼴 적용 로딩시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 국역 장진요편 藏珍要編  
원저자 : 송계(松溪)  
국역 : 오준호  
해제 : 오준호  
편집 : 문진  
발행인 : 권오민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17년 12월 11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 (한글과컴퓨터)

##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하여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오준호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17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K17670》 고문헌 기반 <한의학고전DB> 서비스 개발

---

